

광주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사회 소통위한 승가 변화
'부처불교' 평생 숙제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4월 2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43호 2013년 6월 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대품반야경〉

사람은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사물의 본성은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편견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근대 선지식 저서 '세계 속으로'

조계종 28일 영역 편찬위 설치 규정 공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근현대 대표적 불교 저작들을 선별해 영역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계종은 5월 28일 열린 제28차 종무회의에서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편찬위원회(이하 영역 편찬위)는 총무원장 직속 기관으로 교육원이 업무를 위임하며,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 문헌의 영역과 번역 대상 문헌 조사, 번역 출판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총무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며, 교육부장 · 기획실장 · 불학연구소장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총무원장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영역 편찬위에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와 기획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과 번역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획편집위원회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해 번역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故 지관 스님의 총무원장 당시 한국 대표 고승들의 저술들을 엮은 전통사상총서를 영역화한 사례는 있지만, 근대 불교 문헌을 종단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영역사업을 펼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불교의 근대 대표저작들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예산을 지원 받아 이뤄진다. 올해에는 1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영역화 사업에 대해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근대 불교문헌 영역 대상은 효봉 · 만암 · 경허 · 만해 스님 등의 법어집과 저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6월 초 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6월 안에 영역화 편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 저서 목록을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근대 선지식 저서 · 번역물 등
영역화해 세계에 전파 목적
국고 지원… 교육원 업무 진행
올해에는 번역 대상 조사 작업

이어 "외국인들이 달라이 라마, 틱낫한 스님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수행법이 철저히 영역화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한국에도 외국 유명 스님 못지않는 선지식들이 많다. 이번 영역화 사업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학자들의 기초 연구 자료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 당시 약탈됐다가 421년만에 환지본처한 '석가영산회도'. 조선 전기의 영산회도는 국내 7~8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보급 '석가영산회도' 日서 환수

상궁 시주 왕실 발원 추정…조선 초기 영산회도 드물어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약탈 당한 국보급 조선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조선 선조 25년(1592년) 조성된 불화 '석가영산회도(釋迦靈山會圖)'가 421년만에 국내로 환수됐다.

영산회도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으로 조선 전기로 연대가 규명된 영산회도는 7~8점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석가영산회도는 불화 중 화기(畵記 · 조성기록)가 명확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시주자에 왕실 상궁 명호가 있어 조선 초기 왕실 발원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가영산회도 환수는 일본 교토(京都)의 한 사찰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주승진 '고미술연구소 무유헌' 대표가 설득해 매입을 성사시켰다. 주 대표는 2년 넘게 정성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된 석가영산회도를 연구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만력(萬曆) 20년 임진년 원월(元月 · 1월)에 백족산(百足山) 석남사(石楠寺)에서 완성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개월 전에 불화가 그려진 것"이라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일본으로 강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명예교수는 "조선 초기 영산회도는 희귀할뿐더러 시주자에 왕실 상궁이 있는 것을 보아 왕실 발원본으로 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당시 영산회도 중 사료로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예술적으로도 독특한 매력이 풍부해 최소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노덕현 기자

943호 INDEX

종합 2·3
진각종 29대 통리원장 기자회견
"부석사 불상, 환지본처가 해답"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
이영근 인천공항사장 퇴진운동
조계종 환경위 밀양송전탑 회견

시방세계 5
청소년교화연합회 예술경연대회

학술 · 문화재 9
동아시아 약사신앙 국제학술세미나
선본사 갓바위 학술대회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남양주 수종사



조계종, 선학원과 공식 협상 '본격화'

대책위 5인 협상소위 구성… 위원장 원담 스님

법인법을 놓고 선학원과 갈등 중인 조계종이 공식적 협상 기구를 구성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선학원협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상소위는 종책특보단장 원담 스님을 위원장으로 정념 스님, 대오 스님, 주경 스님, 일운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성직스님은 지난 5월 21일 열린 선학원과의 비공식 면담에 대해 "'법인법'과 관련한 여러 논의에 대해 협상팀을 구성해 정식으로 협상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법보 스님은 "적지 않는 법인 관련 스님들이 '법인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던데, 법인법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담 스님은 "총무원이 법인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 중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어도 이해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경스님은 "법인법은 권한쟁의나 이익충돌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협상소위는 법인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등 스님도 "종단 내부 결속을 위해 조계종의 선학원 분원장 임명과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사장이 추천한 분원장을 원장이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대책위는 이날 소위원회에 선학원과 관련한 논의를 위임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종관위 정관 개정안 동국대이사회 부결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5월 31일 제277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 시 조계종 재적 승려만 조계종에서 2배수로 추천받도록 결정했다. 모든 이사 및 감사를 조계종에서 2배수로 추천 받도록 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정관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정관 개정안에서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3항 중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에서 '조계종 재적승려'를 삭제하고 '개방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바 있다.

하지만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정관 변경은 정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감사로 혜오 스님과 제정 스님을 선출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사부대중 여러분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불서 1932권, 일선 사찰 및 불자에게 법공양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마장초등학교 1학년 이수인 양에게 어린이 불교 도서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본지는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국 각지의 사부대중이 캠페인에 동참해 적지 않은 후원금이 모연됐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법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일선 사찰을 비롯해 주위 어린이들에게 불서를 나눠주고 싶다는 산간 오지 사찰, 자신의 아이에게 불교 서적을 선물하고 싶다는 불자 분들에게 법공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어린이 불교 도서는 〈나도 부처님 될래요(불교시대사)〉, 〈잠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읽는 불교동화18(불광출판사)〉, 〈지혜가 쑥쑥 자라는 명상동화20(불광출판사)〉, 〈만화 백유경(비움과 소통)〉, 〈만화 인물불교사(솔바람)〉 등 5종 1932권입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본지의 캠페인을 통해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 도서기금 300만원을 지정 기탁해주셨습니다.

어린이는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圓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元老 聖雲堂 靑松 大宗師 寂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원로 성운당 청송 대종사님께서 5월 29일 새벽 3시 45분경에 입적하셨습니다. 본종단 전종도는 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화합하고, 수행정진하여 내실을 다지고 전종도가 합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종단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9재 일정

◆ 초재 : 6월 04일 (음력 4월 26일) 화요일
◆ 2 재 : 6월 11일 (음력 5월 03일) 화요일
◆ 3 재 : 6월 18일 (음력 5월 10일) 화요일
◆ 4 재 : 6월 25일 (음력 5월 17일) 화요일
◆ 5 재 : 7월 02일 (음력 5월 24일) 화요일
◆ 6 재 : 7월 09일 (음력 6월 02일) 화요일
◆ 7 재 : 7월 16일 (음력 6월 09일) 화요일
◆ 장소 : 울산 중구 태화동 321-1 청송사

※문의 :052)247-7280(청송사) / 041)566-2277 ~ 2278(장의위원회)

증 명 : 법해 도기, 해월 용암
고 문 : 법운, 명종, 법헌
장의위원장 : 화엄 장의부위원장 : 동봉, 성각, 삼주, 도광, 해동, 진공, 보월, 지우, 법승
장 의 위 원 : 지산, 일성, 지현, 정일, 정원, 자광, 동해, 재성, 보각, 도천, 청호, 완경
집행위원장 : 상원 집행부위원장 : 광은, 법광
집 행 위 원 : 지운, 법연, 일운, 자각, 지산, 대성, 령신, 능관, 문상철, 김유광, 광명심, 도현, 연수, 성일, 보현, 동덕, 정일, 법산, 정견, 자각, 도원, 서광, 각원, 도심, 강명, 도정, 보각, 철우, 덕문, 심오, 경오, 수영, 법경, 의해, 미산, 진성, 지공, 보성, 금비, 청정심, 지원, 정행심, 연화심, 도심, 지혜, 일월
은 상 좌 : 보적, 천웅, 법은, 심오 유 발 상 좌 : 청정심
속 가 상 좌 : 유상진, 황규철, 강차완, 송민철, 유분필, 이명자, 김상선, 김선희, 황원준, 서민선, 박경자, 고의택, 신도회장 박선옥, 신도 일동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宗團葬 葬儀委員會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윤회와 열반의 뿌리는

그대 마음 안에 있으니

마음은 어떠한 형태나 내용이 없노라.

윤회계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서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참된 본성이 가려져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생각은 그러한 본성이 어떤 모습을 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착화를 통해 순수자작은 나와 남, 좋고 싫음 등의 고정관념에 의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윤회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부처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지 못한면 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건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도하고 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결정돼 있는 어떤 실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진흙처럼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공성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비어 있는 본성을 깨닫기 위해 정진하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진각공감' 내걸고 불교 대사회화에 주력"

진각종 제 29대 회정 통리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우리 한국불교는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서원과 실천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공감 실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각 밀교를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수행문화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대중들과 함께 '진각공감'의 이름으로 불교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29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5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피력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이어 "밝은 신행, 즐거운 신행, 신바람 나는 신행문화를 만들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각종이 되도록 변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신행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통리원 부실장급 간부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정 통리원장은 "신행문화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각 심인당과 진각문화전승관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심인당 문화를 연구·개발하고 진각의 문화를 기반으로 수행문화가 갖춰지도록 유도하는 동참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라고 계획을 털어놨다.

취임사서 밝힌 진각종이 '사회적 공감'을 표방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회정 통리원장은 "종단은 교육과 복지의 두 수레

신명나는 신행프로 늘리고

전승관 일부 지역민에 개방

경주에 50만평 체험공간 조성

를 중심으로 교화,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활동을 문화로 결집해 공감하는 불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진각공감의 참뜻이라며 "문화란 나누어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도 이제 나누어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진각문화전승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회정 통리원장은 "지하 1층 공연장, 1층 전통밀교문화전시관, 2층 도서관과 각국 밀교자료실, 3~4층 종무기관 사무실, 5층 템플스테이, 6층 수행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적으로는 공연, 전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1층과 2층의 경우 세계의 밀교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과 다문화시대의 새 문화공간으로 구성하겠다. 또한 시설도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정 통리원장은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완공 예정인 국제체험관과 교육관은 종단의 중심자리인 총인원 성역화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국제체험관은 가족단위 수행을 위한 공간이자 내,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진각 밀교 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며, 교육관은 가족단위 공간이 50여 개인 공간으로 가족의 체험문화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서 매년 열리는 회당문화축제에 대한 변화도 언급했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으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울릉군문화제로 승격하는 계획을 마련해 울릉군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도로재정비 계획 등 금강원 성역화 불사에도 만전을 기해 진각종 종조탄생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정 통리원장은 "밀교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신라시대 화랑도 훈련장소였던 경주 단석산 자락에 50만평 규모의 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부석사 불상, 환지본처가 해답"

부석사 불상 봉안위, 30일 정책토론회 열어

일본 시민단체의 반환 요구 등 부석사 불상의 환수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가 격화되는 가운데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공동대표 주경 등, 이하 봉안위)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봉안위 집행위원장 원우 스님, 김경임 중원대 교수(前 튀니지 대사), 이명수 국회의원, 김문길 한일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역사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주제발표로 환수운동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봉안위 공동대표 주경 스님(부석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를 드러내고 종교적으로도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700년 전 조상들이 서산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상을 주조하고 극락전에 모셨다는 사실이 복장기에 기록돼 있다. 후손된 도리로 그 발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살좌상은 본래의 자리인 서산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임 중원대 교수는 '국제법·최근



서산 부석사 불상 제자리 봉안위 공동대표 주경 스님(부석사 주지)이 세미나에 앞서 불상의 환지본처를 발원하고 있다.

국제동향·유사사례'에서 "좌상을 절도해 반입한 행위는 유네스코 협약에 위반되나, 수백 년 전 약탈된 우리의 문화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반환은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며 "이 불상이 약탈된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고, 약탈된 문화재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불상의 반환에 앞서 일본정부에 대해 출처를 정식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길 한일문제연구소장은 '일본 자료를 통해 본 불상의 약탈 가능성 조명'에서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교류품이라면 복장의 교류품이 바뀌거나 없을 것"이라며 "부석사에서 봉안했다는 복장이 불상채내에 들어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약탈품이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우 스님은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제자리봉안활동과 전개방향에서 "서산 부석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부석사의 불상과 관련한 구전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구전모음집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환수국회포럼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 구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림 사격 갖추고 나눔 활동 앞장"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재임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주지에 우송 스님이 재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우송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우송 스님은 5월 2일 신흥사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우송 스님은 이날 △수행도량 △복지도량 △가람수호를 3대지표로 신흥사와 조계종 3교구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총림 사격을 갖춘 도량으로 일구겠다"며 "6월 종회를 기준해 총림 지정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흥사는 어느 본사보다 지역 복지에 앞장 서고 있다"며 "4년간 경험을 토대로 계속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우송 스님은 임명식 이후 아름다운 동행에 5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서는 직할사찰인 약수사 주지에 우화 스님이 임명됐다.

노덕현 기자

봉 행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위령제

승단의 화합과 더불어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의 걸림과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완전한 일체가 되어 서로 융화하며 장애가 되지 않는 원융무애 사상을 근본으로 한국 불교의 발전 위한 **사단법인 한국 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에서는 2013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제2회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일 시 | **불기 2557(2013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제1부 - 순국선열 현충문 참배

제2부 - 현충관 위령제

제3부 - 영산제

◇ **법 주(총 재)** : 영산당 일공 대화상 **부 총 재** : 고명 대종사, 법혜 대종사

◇ **대 회 장** : 석연화 **부대회장** : 은곡, 효진. 도선. 원덕. 월암

◇ **봉행 위원장** : 법붕 **봉행 부위원장** : 법성, 청운

◇ **집행 위원장** : 성관

◇ **준비 위원장** : 혜월,

◇ **의 전** : 무영. 지성. 홍법. 혜성.

◇ **제 전 위 원** : 혜일. 휴암. 륜보. 경민. 경진. 자연스님와 다수

◇ **진흥회회원** : 돈오. 금봉. 송현. 오연. 체의. 도현. 혜광. 정안. 담원. 경천. 법헌. 법혜. 자운. 해문. 지우 등

◇ **후 원** : 국방부. 국립 현충원. 나라사랑 국민연합. 불교TV BTN. BBS. 현대불교. 월남 참전 전우회, 전국의용 소방 연합회. 자유수호 참전동지회. 지구환경 운동본부. 독도수호 국민연합. 세계 예술교류 협회. 한국 민속예술 연구원. 월간 禪으로 가는 길.

* 나라를 위하는 숭고한 동행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함께하실 법하를 초청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연락처 : 사무총장 승덕 010-2718-0963 / 총무 금화 010-3151-2556 / FAX: 02-857-2250

한국불교 아프리카에 농업학교 설립한다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 개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를 건립해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선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민족의 아픔인 한반도 전쟁의 참혹함에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그분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며 "아프리카에는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환경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이들이 배움 속에서 미래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수학할 학교 건립이 절실하다. 오늘의 발원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한 민간단체사업발굴지원에 선정돼 아프리카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이 탄자니아 토지 4만여 평을, 재단법인 선원수좌회(대표이사 의정)가 5억을 기부하면서 사업논의가

"청소년들 배움으로 미래찾길"

4만평 부지…2015년 개교

학교 건립위한 모금활동 개시

본격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도 흥법문화재단 이사장 정우 스님이 학교건립 기금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는 오랜 식민통치, 최고의 가뭄으로 2억 명 이상의 기아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국제연합 등 각종 국제기구와 이웃종교 단체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어서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건립될 부지는 탄자니아 경제수도로 꼽히는 다르에스살람 지역으로, 도심권의 비싼 집값으로 테메케군에 빈곤주민이 밀집거주한 곳이다.

아름다운동행은 학교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오는 8~9월 중 기공식을 개최한다. 4만여 평 부지에 본관과 별관 2동, 학생·직원 기숙사와 식당 및 농업·목축을 위한 야외실습장과 운동장을 건립하고 2015년 9월 초 개교식을 계획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예산을 10억 원 내외로 책정했으나 이사회에서 예산을 3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를 추가 구입해 농업학교와 농업 부지를 확대해 양질의 농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언론사와 공동모금 캠페인, 전국사찰 1배-100원모금-108배 법회 등 캠페인을 전개해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계, 빈민국 교육불사 활발

이와 함께 불교 국제구호단체들도 동남아 불교국가를 넘어 제3세계 국가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스님)는 지난 4월 30일 케냐에서 올마피테트 만해 초등학교를 기공했다. 이미 2007년도에 케냐 나이로비에 지부를 건립한 지구촌공생회는 현재 프로젝트 매니저 2명, 활동단원 2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는 신생 독립국가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이다. 더프라미스는 동티모르에서 가장 먼저 공동식수개발 사업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현재 800여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밀양송전탑'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조계종 환경위 밀양 한국전력공사서 기자 회견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25일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밀양지역은 현재 765㎸ 고압선을 전송하는 송전탑건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들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는 "무엇보다 지난 2005년 송전선로가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한전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한전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서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위는 한전과 경찰은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통행금지와 강제 진압 등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경위는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주민들이고, 시위 장소가 산속이고 날씨가 무더워지는 등 여건이 열악하므로 충분한 대화와 검토 후에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위는 밀양송전선탑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한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지역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므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정부와 한전, 주민대표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협의체 조속히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 영축환경보존위원회 위원장 도안 스님,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 표충사 총무 덕운 스님, 환경위원 김익중 동국대 교수, 최송현 부산대 교수, 이철헌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25일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유지'

2014년 학제 개편 방침 철회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세웠던 불교문화대학 개편 조정이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5월 30일 "2014학년도 경주캠퍼스 학제 개편에서 불교문화대학 학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29일 발표한 학제 개편에서 경주캠퍼스는 불교문화대학 폐지 후 △불교학과와 선학과는 불교학부 통합 후 인문과학계열 편입 △불교미술학과는 미술학과와 통합 △한국음악과는 3년 내 기준 미달 시 폐지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립학교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안팎의 반발에 긴급회의를 열고 불교문화대학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심규박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사지원본부장은 "이번 학제 개편에서 불교문화대학 소속 학과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교내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덕현 기자**

"이영근 인천공항 사장 직대 퇴진하라"

불교계 퇴진 운동 전개
차정권 첫 종교편향 규정
압박 높혀… 1인 시위도

인천공항 내 연등회 전통등 설치 과정에서 불거진 종교편향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사찰 및 불교단체들은 5월 31일부터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1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는 문화국장 수진 스님이 진행했으며 향후 포교사단 등 불교단체들이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교편향 논란은 불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27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도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종단협은 "국토교통부 등 책임기관에서는 더 이상 종교적 갈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이라고 천명했다.



조계사는 31일 일주문 앞에서 이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의 공직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총무원

조계종은 5월 28일 대변인 주경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가장 먼저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연등회의 장엄등을 특정종교 상징물로 치부한 것은 국가 지정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이자, 원칙없는 행정제일주의에 기댄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년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은 성대하게 진행하면서 '연등회' 전통등(傳統燈) 설치를 특정종교 상징물로 치부하면서 거부한 것은 이 사장 직무대행의 명백한 종교편향 행위"라며 "금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최초의 종교편향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 정부의 종교적 균형정책에 대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이 사장 직무대행의 공개사과와 공직사퇴를 촉구했으며, 6년간 진행해온 크리스마스 점등식과 경비징수 의혹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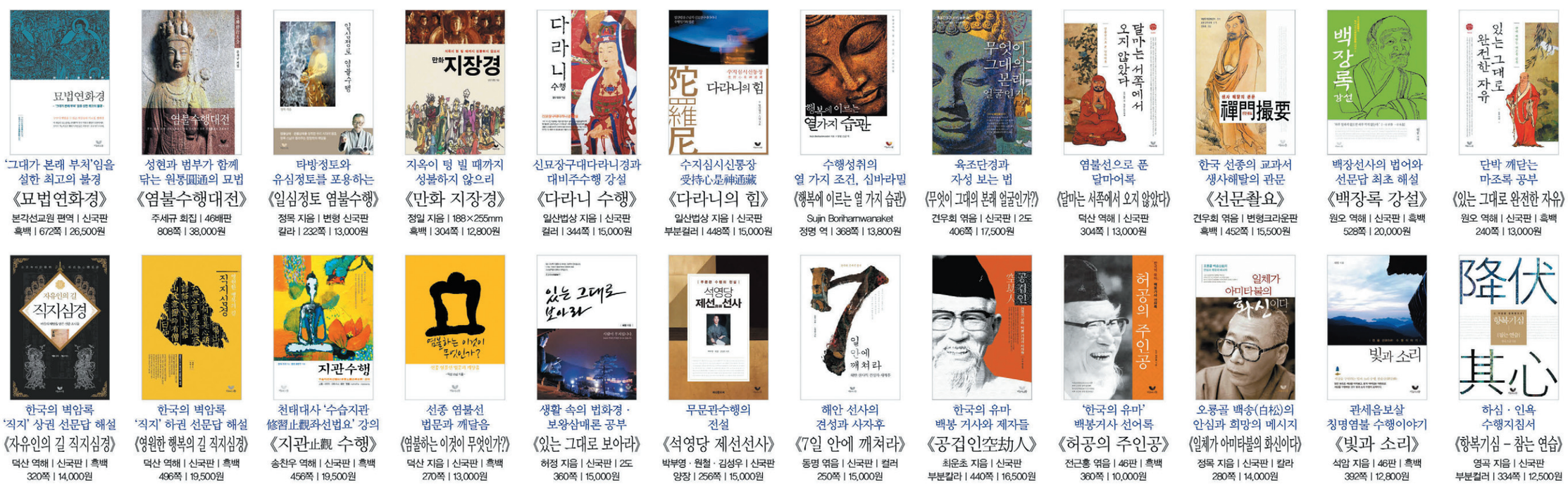
또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교편향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도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의 공개 사과와 공직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비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탑승동 안에 한국문화박물관을 설치해 석가탑, 내소사 고려동종,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불교문화의 대표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중일 기자**



'자유와 행복을 여는 지혜의 문'

비움과소통에서 펴낸 佛書들 (전국 서점에서 판매)



비움과소통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청소년·군포교·49재 등 법공양시 특별 할인!** **문의:** 02-2632-8739 buddhapia5@hanmail.net

제 11회 유심작품상 최동호·박현수 교수

시 부문 수상작

히말라야의 독수리들

최 동 호

히말라야 설산에 사는 전설의 독수리들은
먹이를 찢는 부리가 약해지면
설산의 절벽에 머리를 부딪쳐
조각난 부리를 떨쳐버리고 다시 솟구쳐 오르는
강한 힘을 얻는다고 한다.
백지의 눈보라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언어가
펜 끝에 머물러, 눈 감고 있을 때
설산에 머리를 부딪쳐 피에 물든 독수리의
두개골이 떠오른다.

– 2012년 가을 〈문학 마당〉

8월 중 만해마을서 시상식

(사)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는 제11회 유심작품상 시 부문에 최동호 고려대 교수, 학술부문에 박현수 경북대 교수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최동호 교수는 '문학마당' 2012년 가을호에 발표된 '히말라야의 독수리들'로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히말라야의 독수리들'은 우리의 시 쓰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일깨워 주는 시로 유달리 눈에 띄었다. 명징성, 단순성, 견고성을 갖춘 극서정시야말로 우리 시가 빠져 있는 미망(迷妄)을 헤쳐 나갈 탈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동호 시인의 대안 제시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이번 유심문학상 수상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둠에 잠긴 새벽 설악산을 향해 엎드려 절하고 면목을 일신하여 앞으로 용맹정진하리라 결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인 박현수 교수는 한국현대문학연구 38집에 발표한 '십현담주해의 언어관과 한용운의 시론'으로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 부문 최동호 교수


학술 부문 박현수 교수

최동호 "용맹정진하리라 결심"
박현수 "상 의미 깊이 새기겠다"

심사위원들은 "박현수 교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언어의식을 한 차원 놓여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 또 이를 통해 시집 〈님의 침묵〉에 담긴 오묘한 시적 함축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논문은 만해 한용운의 〈십현담주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견해를 새롭고도 균형감 있게 수립하고, 그러면서도 만해의 언어관과 시 사상에 관한 독창적인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수상이란 어떤 의미에서 시선의 모음이자 관심의 매듭이다. 이 상을 계기로 평소 무관심하던 여러 시선이 수상자의 자격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 중에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전달된다. 정혜숙 기자

일 주 문



순국선열 추모대법회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6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하동 쌍계사 및 인근 문화체험장에서 7월 25~30일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을 실시한다. (055)883-1901



백양사 참사람 법회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6월 4~25일 매주 화요일 '참사람의 향기,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참사람 법회를 개최한다. (061)392-7502



故경허 선사 101주기 다례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6월 3일 수덕사 대웅전에서 故경허 선사 열반 101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천안 구룡사서 사경대법회

서울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은 6월 8일 천안 구룡사에서 사경대법회를 봉행한다. (02)928-1331

"문수 스님 유지 받들겠습니다"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3주기 추모제



문수 스님 소신공양 3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부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 이하 불시넷)가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5월 31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함께삽시다! 생명평화의 한반도에서'를 주제로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공연, 대화마당, 생명평화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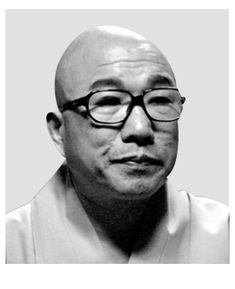
특히 추모사에는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 스님, 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생명환경분과 엘리사벳 수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퇴휴 스님 등이 참여해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뜻을 기렸다.

추모대화마당에서는 방송인 오한숙희 씨의 사회로 △도법 스님 '한반도의 생명평화' △지율 스님 '4대강의 합리적 복원' △성원 스님 '문수 스님의 유지 계승' 등을 주제로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행사는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촛불걷기명상으로 마무리됐다.

정혜숙 기자

"각계 힘 모아 순국선열 기릴 것"

호국영령 순국선열 위령제 여는 연화 스님



"매년 현충의 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얼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 위령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진흥회가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8일 서울 현충원에서 제2회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위령제를 개최한다.

이날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는 대회장 원주 연화사 주지 연화 스님은 "예로부터 국난이 있을 때마다 불교가 이 나라를 지키고자 앞장 섰다"며 "이러한 불교계의 활동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활동을 활발히 펴겠다"고 이번 위령제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진흥회는 유관순 여사의 아우네 장터, 한국전쟁 격전지인 낙동강 일대에서 위령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영산당 일공 스님을 법주로 고명, 법혜, 은곡, 효진, 도선, 원덕, 월암, 법뭉, 법성, 청운, 성관, 혜월 스님 등이 참여한다.

스님들은 종단을 초월해 호국불교 정신을 살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연화 스님은 "우리 사회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원융화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호국불교 정신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경주 불국사 라오스 학교건립 후원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불국사 자원봉사단(대표 종상)은 5월 22일 경주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라오스 논킬렉 불국초등학교 교실 신축 내용을 담은 후원 협약식을 맺었다.

논킬렉 불국초등학교는 6월 기공을 시작으로 9월 준공이 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양영자 씨, 동국대에 3000만 원 기부



독실한 불자가 종립 동국대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불교경영최고위과정에 재학 중인 양영자 씨는 5월 29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제2건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향후 2년 간 2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할 것을 약정했다.

양영자 씨는 "김희옥 총장님 취임 후 동국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전기금을 모금했다고 들었다"며 "종립 동국대가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우면 복지관 한마음 축제 행사 열어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운)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면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삼성물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동 대항 윷놀이대회, 떡메 치기, '추억의 책가방'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지역주민 장기자랑 '우면스타킹'이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공 고

1. (사)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 의결 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는 2013. 5. 13 제 18대 임시 중앙종회 회의를 개최하여 (혜륜스님은 혼인관계 도중에도 종단 소속 비구니 스님과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는 등, 종단의 위신이 추락되게 한 점, 종도에 대한 공갈협박 전과사실 등 外) 혜륜(김용대)스님의 총무원장 직위에 대하여 불신임 의결 하였으며, 보광(이학관)스님의 중앙종회 의원자격에 대하여 징계(제적의결) 하였는바, 이를 공고 합니다.

2. 직인무효 및 변경공고

상기 1항에 따라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장의 직인을 변경 하였으므로, 전)총무원장 및 전)중앙종회 의장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변경된 총무원장 서리 직인
변경된 중앙종회 의장 직인

2013. 5. 20

(사)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승헌 (이재열)
(사)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 의장 수성 (임채곤)

공 고 문

1.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 의결 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는 2013. 5. 13 제 18대 임시 중앙종회 회의를 개최하여 (혜륜스님은 혼인관계 도중에도 종단 소속 비구니 스님과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는 등, 종단의 위신이 추락되게 한 점, 종도에 대한 공갈협박 전과사실 등 外) 혜륜(김용대)스님의 총무원장 직위에 대하여 불신임 의결 하였으며, 보광(이학관)스님의 중앙종회 의원자격에 대하여 징계(제적의결) 하였는바, 이를 공고 합니다.

2. 직인무효 및 변경공고

상기 1항에 따라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장의 직인을 변경 하였으므로, 전)총무원장 및 전)중앙종회 의장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변경된 총무원장 서리 직인
변경된 중앙종회 의장 직인

2013. 5. 20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승헌(이재열)
대한불교법화종 중앙종회 의장 수성(임채곤)



5월 26일 대회에 앞서 마가스님의 명상시간에 이어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축사와 모범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여 등이 이어졌다. 본 행사에서는 명지중의 '웃다리', 동대부고 '천수바라', 인천부루나포교원 '영남사물놀이', 시흥중 '화선무', 경민고 '서용석류 대금산조', 동대부여고 '장고춤', 국립전통예술고 '지영의류 해금산조', 경남칠성중 '고성오광대', 동대부중 '삼도사물놀이', 국립전통예술고 '짧은 산조', 동대부여중 '국악관현악' 등이 진행됐다. 동대부여중의 '국악관현악' 모습.

"전통문화 '맥' 청소년이 잇고 있다"



경남 칠성중의 '고성 오광대 놀이' 신명나는 공연 모습

청소년교화聯, '제26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서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선 뵈
500여 학생 어깨춤 등 열띤 호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5월 말 동국대 중강당은 떠들썩한 풍물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 찼다. 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현성)가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6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 것.

이날 대회에는 명지중학교 사물놀이패, 국립전통예술고 해금산조패 등 예선을 거친 총 11개 팀이 출전해 500여 청소년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심 증진과 예술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부처님오신날 및 5월 청소년의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왔다.

4부로 나뉜 행사의 1부는 백두한라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준문화재 김장순 씨의 개막공연으로 시작됐다. 본행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귀를 쫑긋 기울였다. 공연은 크게 전통춤과 국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는 명지중학교의 '웃다리'. 웃다리는 사물놀이의 다른 이름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아이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진행된 동대부고의 천수바라는 청소년들이 스님복장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소 미숙하기도 했지만 바라를 치는 모습에서는 열정이 뿜어져 나왔다.

공연 중 특히 국립전통예술고의 해금산조와 짧은 산조, 동대부여중의 국악관현악의 잔잔하면서도 애잔한 선율은 좌중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국악관현악의 말미에서는 깜짝 반전 이벤트로 한복을 곱게 입은 단원이 꽹가리를 쳐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고성오광대놀이에서는 광대들이 대중들 앞으로도 다가오는 등 참관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동국대 만해광장 등 곳곳에서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성 오광대놀이'를 지도한 정종빈 경남칠성중 지도교사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 놀이 맥을 잇는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사는 "또래 아이들 앞에서 전통문화를 공연하는 경험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연습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사회 미래가 밝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흥겨운 무대가 이어지자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일반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동대부여중 이민지 양(중1)은 "이날 대회에 자원봉사하러 참가하게 됐다"며 "학교 내에 전통문화 동아리 활동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날 공연을 보며 알게 됐다. 학교에 가서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부여고 배우리 양(고1)도 "또래 아이들이 전통문화인의 꿈을 꾸며 풍물과 춤을 열심히 추는 것이 보기 좋았다"며 "특히 일부 공연에서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나온 부분이 제일 흥이 났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회는 본 경연에 이어 강남송죽국악예술봉사단 공연과 청담고 댄싱팀 공연, 시상 및 경품추천 등으로 마무리됐다. 대상은 국립전통예술고의 '지영의류 해금산조', 최우수상은 동대사범대부속여고의 '장고춤', 경민고등학교 '서용석류 대금산조'가 차지했다. 하지만 모든 팀들에게 부상과 상금이 돌아갔으며 일일이 격려하는 심사위원들의 말이 이어지며 원만히 회향됐다. 청소년들의 전통문화를 향한 꿈과 열정은 이렇게 영글어 가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관한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공연을 함께 즐겼다.



금색의 고깔을 쓰고 바라춤을 재현한 동대부고의 '천수바라'



동대부중팀이 '삼도사물놀이'를 하고 있다.

"청소년 전통교육에 불교계 관심가져야"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



"외국문화 유입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아갈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전통문화 지킴이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의 시작을 이렇게 말했다.

"일본문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입니다. 당시 청소년들이 한국문화는 모르고 일본문화에 젖어가는 것을 보며 대회를 열어야 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1981년부터 30년 넘게 안양교도소 위문법회, 5군단 수계법회, 현성정사 어르신잔치 등을 열고 있는 스님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꾸준히 대회를 열어왔다.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는 문화관광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최근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되며 지원이 중단됐다.

현성 스님은 "최근 각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스님은 "남은 생동안 우리 미래세대에 꿈을 심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밝게 웃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한여름에 화두참구 어때요?

동국대 국제선센터, 6·8월 간화선 집중수행…불교영어강좌도 개설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이 여름 간화선 집중수행을 지도한다. 간화선 집중수행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는 6월 27일~7월 3일, 2차는 8월 9~15일에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으로 입제를 시작해 6박 7일간 개별적으로 참선 정진에 들어가며, 수불 스님이 직접 화두점검을 하게 된다.

참가비는 25만원으로 수행기간 중 기숙사도 이용 가능하다(비용별도).

한편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불교기초교리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불교영어강좌'를 개설했다.

'붓다의 음성-영어가 즐거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업은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불림 스님(진관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담당, 교리강의)이 강사로 틱낫한 스님의 저서인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교재로 수업한다.


지난 1월 열린 간화선 집중수행에서 수불 스님에게 간화선 수행 점검을 받는 수련자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이해하기 쉬운 영어교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쾌하게 익히며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템플스테이·문학·음악 만나니 "힐링되네"

대불청·불교문화사업단, 청년위한 '통통콘서트' 열어





대불청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한 '통통콘서트'는 20대 청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80명 관객을 수용하는 미니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콘서트' 하면 일반적으로 거대한 공연장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그 음악에 열광하는 많은 관객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 공연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삶의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한국 불교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문학과 음악이 만나 열리는 이색 공연이 시민과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가 주관하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주최하는 '쓰담쓰담 통하니 얼마나 통쾌한가 콘서트(이하 통통콘서트)'.

대불청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한 '통통콘서트'는 20대 청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80명 관객을 수용하는 미니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불청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템플스테이와 문학과 음악이 만났다. '이곳이 콘서트 장이라고?'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조용한 템플스테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학과 잔잔한 음악이 만났다"고 설명했다.

4월 25일에 열린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무소유' 법정 스님의 산문시가 무대에 올랐다. '무소유'를 노래로 옮긴 '무소유의 노래'를 비롯해 '홀로 사는 즐거움', '아름다운 마무리' 등 법정 스님의 글 등이 감미로운 기타선율과 함께 선보였다.

5월 30일 두 번째로 열린 통통콘서트에는 80여 관객이 전석을 채웠다. 이날은 널리 알려진 시인들의 시와 교보 문고 빌딩에 상설 전시돼 있는 '광화문 글판'에 관한 시에 김현성씨가 가락을 넣은 곡들이 선보였다. 또 이광석, 달로와, 정은주, 신희중 등이 출연하며, 김보경 북칼럼니스트가 특별손님으로 출연했다. 관객들은 '광화문 글판'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김보경 칼럼니스트의 시낭송과 책 이야기도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대불청은 "도시에 싱싱한 바람을 불어주는 광화문 글판의 글은 지나는 사람들의 짧은 시선만으로도 긴 여운을 준다"며 "시와 노래는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기억할 만큼 인상적이다. 마치 CM송처럼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불자 육성하기 위해 기획
'이등병의 편지' 김현성 참여
30·40대 비불자들도 즐겨
6월 27일 '윤동주 시' 테마 공연

20대를 위한 공연이라고 하지만 30~40대 다양한 연령층들도 참석해 공연을 즐겼다.

신모(48·여)씨는 "혜민 스님 강연 등을 접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콘서트가 있는 것을 보고 오게 됐다"며 "시에 멜로디를 넣어 들으니 시 내용이 더 깊게 와 닿았던 것 같다. 이런 공연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철학·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황진우(25·남)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공연이 열리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 시 내용에 대해 잘 몰랐는데 노래와 같이 부르니 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이런 공연은 불교색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기획한 김현성씨는 가수 겸 작곡가이면서 시인이다. 그는 매년 봉축위에서 발매하는 음반 '연등회의 노래' 7장을 기획하고 작사·작곡도 한다.

김현성 씨는 "불교를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화장치가 필요하다.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불교문화도 알리고 어떤 청년들이라도 찾아와 즐기고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편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영태 대불청 연수원장은 "만해 스님, 법정 스님, 고은 시인의 문학작품처럼 불교적이지만 대중적이면서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스며들게 할 것"이라며 "작고 소박한 공연이지만 관객과 진행자들이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면서 매월 공연을 열어갈 계획이다. 6월 27일에는 '청년시인 윤동주를 만나다'를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힐링 태극권으로 젊음을 되찾다

한마음선원, 8월 23일까지 '여름학기 문화강좌'

한마음선원 문화재단은 8월 23일까지 안양불교문화회관에서 '여름학기 문화강좌' 및 방과후 강좌를 연다.

문화강좌는 다도, 손뜨개, 사찰요리, 태극권, 한글교실, 선법가교실, 스케치, 생활요가, 시·수필, 꽃꽂이, 일본어회화 입문, 풍물교실(초·중급), 영어회화, 등이 마련됐다. 방과후 강좌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미술, 발레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강좌 중에서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태극권 수련 프로그램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5월 봄강좌를 연 '태극권 수련 프로그램'에는 30대 후반부터 60대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대학에서 태극권을 전공한 전문강사로부터 태극권 동작을 배웠다.

태극권은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노인들도 무리가 없이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이 수강생들의 반응이다. 가사노동으로 피로감이 쌓인 젊은 주부는 태극권을 시작하고서부터 피로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정도다.

봄학기부터 태극권 수련을 한 김종길 회원은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및 격무로 견비통(어깨통증)을 앓았으며,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다리가 불편했는데 3개월간 태극권을 수련한 결과 어깨와 허리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며 "태극권 수련자체가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중요시하는 동작이 많아 마음공부와도 연결이 돼 스트레스해소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된다"고 말했다. (031)471-3669

이나은 기자

동련·어청위, 제55차 전국어린이지도

6월 8~9일, 속리산 유스타운서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사단법인 동련은 '제55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6월 8~9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실시한다.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한 여름불교학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서 필요한 찬불가 및 율동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장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의가 마련된다.

6월 8일 첫째 날에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찬불가 율동 △미래 불교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포교 △테마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사례소개 및 프로그램 체험을 주제로 강의가 열리며, 9일에는 △인도 어린이 수행문화 따라하기 △연극 놀이 등이 진행된다. (051)864-4569

이나은 기자

매월 무료 한방진료… '벌써 일년'

한불련·조계사 의료전법팀, 조계사 대웅전서 기념법회 봉행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정지천) 한의사들과 '조계사 의료전법팀'이 무료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한의사불자연합회는 5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방진료 1주년 기념법회 '부처님 손은 약손'을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대웅전에 모신 삼존불은 석가모니불을 중앙으로 아미타불,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약사여래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의사 불자회 정지천 회장, 이수완 명예회장 등 의료 봉사에 힘쓰는 한의사들을 한 명씩 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문에 이어 이수완 명예회장은 '사상의학에 의한 마음치료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의료전법팀 황용자 불자는 "병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내 몸을 치유하듯 봉사하겠다"며 약사여래불을 명호 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조계사 안심당에서는 한의사 불자연합회원과 조계사 의료전법팀 봉사자를 볼 수 있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불자들이나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한방 진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한의사불자연합회 한의사들과 조계사 의료전법팀 자원봉사자들. 사진제공=조계사

한의사 불자연합회원들은 12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있으며, 의료전법팀원들은 안내 및 접수, 환약배분, 진료카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불자연합회는 침·한방파스 등을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기장군 불교연합회

회 장	정 오 (장안사 주지)
수석부회장	법 안 (안적사 주지)
부 회 장	보 혜 (청량사 주지)
감 사	혜 성 (해광사 주지)
총무국장	도 은 (장안사 총무)
재무국장	혜 명 (혜명사 주지)
포교국장	성 타 (동림사 주지)
복지국장	법 귀 (백련암 주지)
홍보국장	정 산 (덕주사 주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재순 (장안사)
수석부회장	조창국 (옥정사)
부회장	박애란 한정희
	김경옥 이해수
	최선애 강다영
	김춘애 성환필
	이영화 심승희
	이수복
감 사	송재일
사무총장	최임진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1
TEL 051)727-2392 / FAX 727-2394 사무총장 010-3704-1681

일자리 필요하다면 조계사로 오세요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 운영

#사례1 박모(여 · 39세)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조계사에 들러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 일자리 상담을 받은 뒤, 출판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합격해 다니고 있다.

#사례2 명예퇴직 후 동사무소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최모(남 · 55세)씨는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통해 S생명 법인영업직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사례3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가정주부 김모(여 · 59세) 씨는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상담 받은 뒤, 한정식 레스토랑에 취업해 주방보조일을 하면서 월120여 만 원을 받고 있다.

#사례4 칠순을 앞둔 추모(남 · 69세)씨는 경비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였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나이에 비해 젊고 성실해 보이는 추 씨를 구인업체에 적극 추천했고, 현재 추 씨는 주차관리업무를 하며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사례5 종로 인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 모(여 · 50)씨는 주방보조 인력을 구하던 중,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에서 인재 알선을 해준다는 홍보물을 보고 방문해 직원을 채용했다.



조계사가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개설하고 종로구청 산하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김가은 팀장(왼쪽)과 상담하고 있다.

종로구청과 협력해 일자리 제공
개소이후 39명 일자리 얻어
매일 5~6명 방문해 상담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사(주지 도문)가 나섰다. 구인 ·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계사는 2012년 10월 25일 종무소 2층에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개설하고 종로구청 산하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0월 개소이후 2013년 4월까지 106명이 구직신청을 하고 39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지역사찰 종무소 직원 및 공양주, 불교용품점 직원 등 불교와 관련된 일자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중학교 상담교사, 경비 · 주차관리인, 주방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았다. 지금도 매일 5~6명의 구직 · 구인희망자가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간다.

구직 · 구인신청은 간단하다. 일자리 또는 인력이 필요한 구직 · 구인 희망자는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를 방문해 상담봉사자들과 구직 · 구인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작성된 신청서를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제출한다. 이후 센터는 서류심사를 통해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에게 면접을 볼 수 있게 해 취업 · 채용을 돕는다.

마음의 위안도 함께 주는 곳

조계사가 도심포교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핵심사업인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포교 역할까지도 톡톡히 하고 있다. 절에 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던 사람들 중 용기를 내 일자리 나눔터를 찾는 것이다.

김가은 일자리나눔터 팀장은 "일자리 나눔터가 사찰 안에 있어서인지 내담자들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7명은 내담자가 원하는 직업과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종교단체에서 구직 · 구인을 알선하다보니 종로구청과 구직자들로부터 얻는 신뢰도가 높다"며 "중개 수수료도 없어 구인등록을 하러오는 업체 사장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을 희망한다고 모두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김가은 팀장은 "구직희망자와 상담하면서 성실성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참고한다. 특히 50~60대 구직자분들은 자신이 했던 일이나 직위만 생각하다보면 재취업할만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눈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02)768-854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JTS, 두유 3만개 전달

불교방송도 난치병어린이돕기 4300만원 전달

한국JTS(이사장 법륜)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두유 3만개를 지원했다.

법륜 스님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5월 30일 전법회관 6층에서 희망두유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JTS와 연계한 '희망두유 나눔' 캠페인으로, JTS는 5월 14일 전국 46곳 독거노인과 청소년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고칼슘 영양두유 3만개를 나눠줬다.

한국JTS는 국제기아, 질병,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희망 두유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5월 9일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에 8억 원 상당의 '희망 두유' 35만개를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46곳에 6600여 만 원 상당의 두유 3만개를 지원하게 됐다.

법륜 스님은 "우리단체의 설립목적과 같이 가난과 신분적 차별 때문에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인류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5월 초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며, 시설 규모 및 대상자에 따라 3만개의 영양두유를 전국에 지원했다.

한편 불교방송도 난치병어린이돕기 모연금 4300만원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 스님)에 전달했다. 5월 27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6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원경 스님, BBS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및 '거룩한 만남' 제작팀 등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김기진 JTS 공동대표, JTS 이사장 법륜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원경 스님, 박지나 JTS 공동대표.

불교방송 '거룩한만남'을 통해 ARS로 모연금을 마련한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은 "5회에 걸친 생방송을 통해 4300만원을 모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전달식까지 갖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이날 전달받은 불교방송 모금액과 서울조계사 및 전국 사찰에서 동참한 현장 모금액, 5월 한 달간 지속된 온라인 모금액을 합쳐 오는 7월경 난치병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중 난치병 환아 40여명을 선정하고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혜숙 · 이나은 기자

한국다문화센터, 후원회 결성

레인보우합창단 재원 마련 위해…이인제 의원 이사장 새로 맡아



한국다문화센터 후원회원과 레인보우합창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다문화센터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5월 2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8층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다문화센터가 운영 중인 '레인보우합창단'과 '서울시작다문화대안학교'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한국다문화센터 후원회가 결성됐다. 또한 레인보우합창단 이사장인 진영 복지부장관이 현직 장관으로 겸직할 수 없게 돼,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이 새로 맡게 됐다.

이날 한국다문화센터 후원의 밤에는 이인제 의원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한국다문화센터 상임고문인 보선 스님(前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대흥사 회주)과 이춘호 EBS이사장, 김영선 전의원, 이영희 한복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2008년 출범 이후 최초의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 활동을 비롯해 중도입국 다문화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서울시작다문화대안학교(중학교과정)'를 설립했으며, 서울시 · 현대정몽구재단과 함께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한국의 대표적 다문화지원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이나은 기자

광명고 파랑새둥지 봉사단 2주년 맞아

철산복지관, 광명고와 어르신 결연봉사 실시



'파랑새둥지' 봉사단이 3기 발대식을 가졌다. 광명고등학교 학생과 네가정은 한조가 돼 매월 1회 이상 독거 어르신을 찾아뵙고 봉사한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과 광명고가 협약해 2011년 조직된 가족봉사단 '파랑새둥지'가 2주년을 맞았다.

봉사단은 5월 25일 철산복지관 강당에서 3기 봉사단 34가정(68명)과 결연된 어르신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철산종합복지관 강영규 관장, 광명고등학교 서정렬 교장 등 봉사단 임원들이 참석했다.

파랑새둥지 봉사단은 학생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나눔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4가정이 1조가 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 대상자 중 광명고등학교 주변 독거 어르신 중심으로 결연해 매달 1회 이상씩 가정을 방문해 간식 만들어드리기, 집밖 나들이하기, 집안 청소하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년 동안 총 83가정(166명)의 봉사자는 현재까지 월 1회 봉사활동, 정기 간담회와 연말 송년잔치를 통해 결연된 어르신께 정서적 지지는 물론 건강한 신체활동을 제공해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파랑새둥지 봉사단은 최근 '2013년 광명시 제4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광명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공 고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그동안 불법홍보와 수행정진에 매진하시고 계시는 종도 여러분들의 사 · 암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 하옵기를 기원 드립니다.

종헌 제 19장, 종법 제48조, 제233조, 제234조에 의거 「현대불교 : 제 911호 공고 문서번호 : 제 12-04호 종단 효력 상실 및 총무원 폐쇄〈부산 동래구 세무소〉」에 대하여 사부대중의 발원으로 원만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사용하는 종단명 「대한불교원조계종」은

· 법 인 단 체 등 록 : 2009년 9월 4일 (사)한불총 7-2호
· 창 녕 군 청 등 록 : 38341-00666, 2010년 6월 15일
· 법 원 등 기 완 료 : 2010년 6월 3일
· 마산세무서 단체등록 : 2010년 6월 29일에 하였음

위 2009년 9월 4일 이후에 어느 기관에 등록된 유사 단체명도 본 종단과 무관하며 유사시 법적으로 대처 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창녕 군청 및 법원」에 등록된 종단명 「대한불교원조계종」은 사용하셔도 되고,

■ 「마산 세무서」에 등록된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조계종」 종단명도 위와 동일하므로 사용하셔도 무관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등 록 서 류 (유사 단체에 유의하시고 등록 합시다)

①등록원부 ②선서문 ③법당사진 ④주민등본 ⑤여권사진 4매 /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한불교원조계종 법인 대표 총무원장 적홍 만오 합장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여 제2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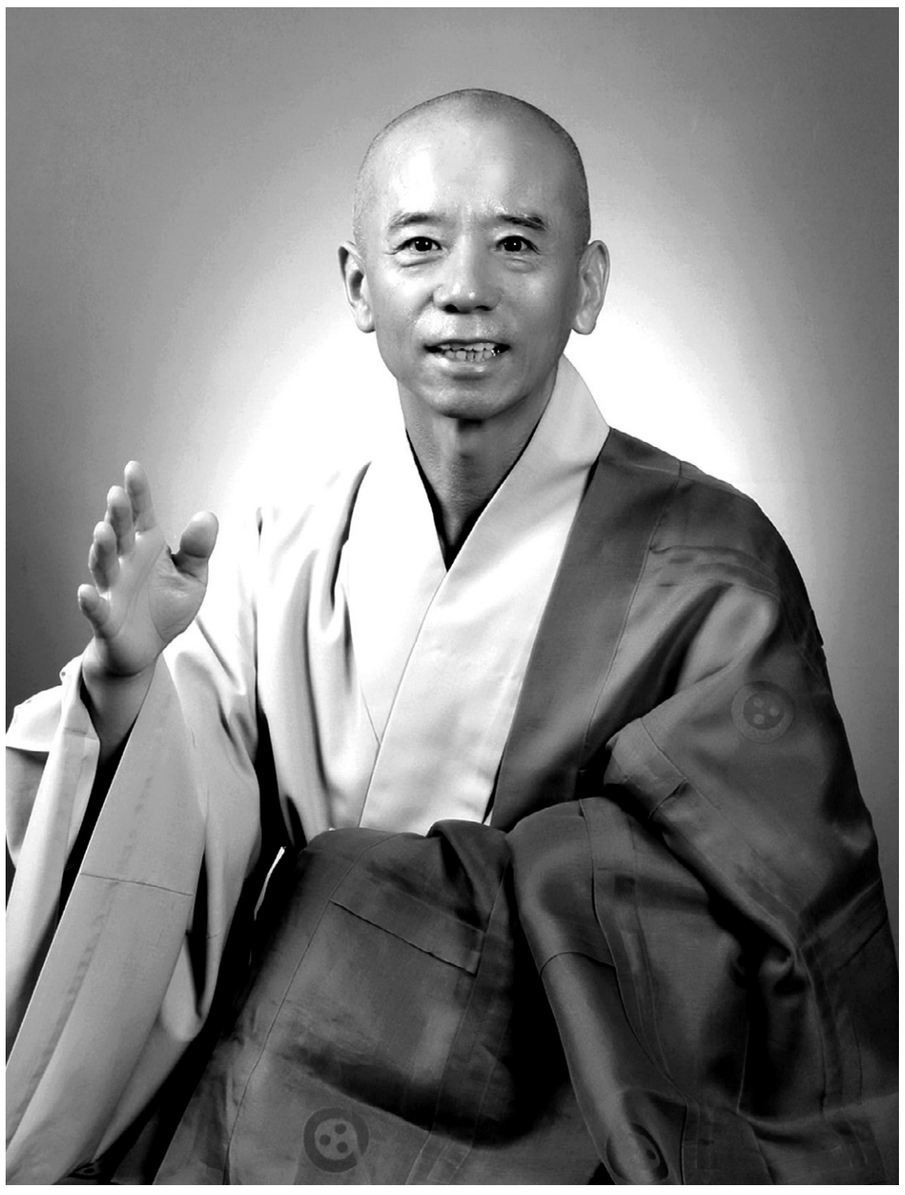
모집인원
• 선착순 : 30명

모집기간
• 수시모집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개 강 일
2013년 6월 8일(토)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佛紀 2557年(癸巳年) 臨濟禪院 夏安居 結制法門

是什麽
시 십 마

垂示云하되 休去歇去萬年去하니 靑天霹靂轉轟轟이요
수 시 운 휴 거 헐 거 만 년 거 청 천 벽 력 전 굉 굉
平地洪波起滔滔로다. 熾然作用得自在하니 寸草不生千萬里나
평 지 홍 파 기 도 도 치 연 작 용 득 자 재 촌 초 불 생 천 만 리
出門春色共依依로다.
출 문 춘 색 공 의 의

擧圓悟勤禪師問大衆하되 不是心이요 不是佛이요 不是物이니
거 원 오 근 선 사 문 대 중 불 시 심 불 시 불 불 시 물
是什麽오하니 拙이 云하되 且道하라 喚作什麽하야 卽契祖師意오
시 십 마 졸 운 차 도 환 작 십 마 즉 계 조 사 의
於此에 一等靈利漢이 拶破面門開突出하니 四海逆流淸風起로다.
어 차 일 등 영 리 한 찰 파 면 문 개 돌 출 사 해 역 류 청 풍 기
雖然不直半分錢이나 沙界七寶難可比로다.
수 연 불 치 반 분 전 사 계 칠 보 난 가 비
又拙頌云하되
우 졸 송 운

不是心兮不是佛하고
불 시 심 혜 불 시 불
不是物兮是什麽오
불 시 물 혜 시 십 마
空劫而前眞消息을
공 겁 이 전 진 소 식
井底泥牛弄月歌로다.
정 저 니 우 농 월 가

喝一喝
할 일 할

佛紀2557年 夏安居 結制日
불 기 년 하 안 거 결 제 일
臨濟禪院 拙衲 法玄
임 제 선 원 졸 납 법 현

이 무엇고?

수시하여 이르되
쉬어 가고 놓아 가서 만년을 가니 청천에서 천둥이 우르렁 거리며 구르고 평지에서 넓은 파도가 도도히 일어나도다.
치연히 작용하여 자재함을 얻으니 마디풀도 천만리에 나지 안했으나 문을 나서니 봄빛이 한가지로 무성하도다.

드노니
원오 극근 선사가 대중에게 묻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일러라, 무어라고 불러야 바로 조사의 뜻에 계합할 것인가?
졸납이 대신 말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일등의 영리한 놈이 얼굴을 찰싹 쳐서 열자 툭 튀어나오니 사해가 거꾸로 흐르고 맑은 바람이 일어나도다.
비록 그렇지만 반 푼의 값도 없으나 항하사 법계의 칠보로도 가히 견주기가 어렵도다.
또 졸납이 송하여 이르되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공겁이전의 참 소식을
우물 밑의 진흙소가 달을 가지고 노래하도다.
일할을 할하다.

불기 2557년 하안거 결제일
임제선원 졸납 법현

■ **임제선원장 현봉 법현(玄峯 法玄) 선사는…**

1952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 / 1987년 장성 백양사로 출가 / 서옹대종사 문하의 시몽화상을 은사로 득도 / 사미계를 받은 후 서옹대종사 시봉 / 1992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 서옹대종사께서 정법을 부촉하신 장실(丈室) 법제자 제산종성(濟山宗成) 선사의 법을 이음 / 경북 상주 임제선원에 주석 / 법문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제 창 提唱

心隨萬境轉심수만경전하니 轉處悉能幽전처실능유로다
隨流認得性수류인득성하니 無喜亦無憂무희역무우로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구르니
구르는 곳마다 깊고 미묘하도다.
흐름을 따라도(변함없이 밝고 고요한)
그 본성을 아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도다.

불조전등 22대 조사 마나라 존자 게송

일체 중생이 누구나 똑같이 참으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배로운 마음이 있지만 보고 듣고 하는 빛깔과 소리의 경계를 따라서 기쁘고 슬픈 마음만 낼 줄 알지 자기 마음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필 때 기쁨은 잠깐이요 추하게 시들어 질 때 슬픔과 근심은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경계를 따라 흐를 때 둥글고, 모나고, 곧고, 굽게 흐르면서도 그 어떤 모양도 아닌 물의 본성을 잃지 않듯이 날마다 경계를 따라 마음을 천만 가지로 쓸 때 자기 마음속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不是心불시심 不是佛불시불 不是物불시물 是什麽시십마〉" 화두 하나를 간직하여 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머지않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거울처럼 고요하고 밝게 비추는〈寂照雙流적조쌍류〉 자기 마음 본성을 보아서 기쁨과 근심으로 웃고 울고 하지 않는 大解脫대해탈.大自由대자유 大光明대광명 大生命대생명 大安樂대안락의 영원히 변함없는 본래의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두공부처럼 위대하고, 거룩하고, 쉽고, 지름길로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공부와 사업은 우주 간에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祖師조사 이르시되

要開萬世無窮業요개만세무궁업인데
只在堅持一寸心지재견지일촌심이라

반드시 만세토록 무궁한 업적을 이루고자한다면
다만 굳게 일촌심화두일념을 가지는데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화두에 졸납이 수시하여 말해보겠습니다.

休去歇去萬年去휴거헐거만년거하니
靑天霹靂轉轟轟청천벽력전굉굉이요
平地洪波起滔滔평지홍파기도도로다

쉬어 가고 놓아 가며 만년을 가니
청천에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우르렁거리고
평평한 대지에 드넓은 파도가 도도하도다.

石霜석상〈807~888 慶諸경저〉 七去法門칠거법문에 "쉬어가고〈休去휴거〉 놓아가고〈歇去헐거〉 한생각이 만년을 가고〈一念萬年去일념만년거〉 마른 나무와 찬 재와 같이 가고〈枯木寒灰去고목한회거〉" 등이 있습니다. 참선공부하는 마음은 일체의 번뇌망념이 다 쉬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마른 나무와 찬 재 같은데서 화두 한 생각이 만년을 가야 참으로의 공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심자가 공부가 익숙해지면 마음을 말리고 분별정념을 잊으며 마음으로 화두를 애써서 가지려 집착하지 않아도〈左右生處已熟좌우생처이숙 熟處已生숙처이생 十二時中십이시중 自然不着자연불착 枯心忘懷고심망회 將心管帶矣장심관대의...書狀答曾宗丞서장답증종승〉 자기 본래 청정한 마음만 智慧觀照지혜관조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 쉬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 생각이 만년을 가는데 쾌청한 청천에 천둥소리가 우르렁거린다는 것이며 평지에 넓은 파도가 도도히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저 六祖육조께서 臥輪禪師와륜선사를 비판하시되

와륜은 재주가 있어서 臥輪有伎倆와륜유기량하니
능히 백 가지 생각을 끊는도다. 能斷百思想능단백사상이라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對境心不起대경심불기하니
보리도가 날마다 길어나도다. 菩提日日長보리일일장이로다.

혜능은 아무 재주가 없어서 惠能無伎倆혜능무기량하야
백 가지 생각을 끊지 않도다. 不斷百思想부단백사상이라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對境心數起대경심삭기하니
보리도가 어찌 길어남이 있으리요. 菩提作麽長보리작마장이리요

하시니 여기서 臥輪禪師와륜선사는 자기의 眞如本性진여본성을 깨치지 못했기에 모든 생각을 끊어서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枯心忘懷고심망회하고 將心管帶장심관대하는 初心修行초심수행에 집착하고 있으나 六祖육조는 五祖오조께서 설하시는 金剛經금강경의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應無所住而生其心응무소주이생기심〉"는 말씀을 듣고서 言下언하에 大悟대오하여 일체만법이 자기 진여본성을 떠나 있지 않음을 아시고 마침내 五祖오조께 말씀하시되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오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생멸치 않사오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스스로 일체가 구족했으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으며
참으로 결정코 자성이 능히 만법을 생하나이다.

라고 하시니 五祖오조께서 혜능이 자기 진여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 바로 장부로서 천상과 인간의 스승인 부처라 이름하시고 삼경에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祖以袈裟遮圍 不令人見 爲說金剛經 至應無所住而生其心 能
조 이 가 사 차 위 불 령 인 견 위 설 금 강 경 지 응 무 소 주 이 생 기 심 능
言下大悟 一切萬法 不離自性 遂啓祖言 何期自性本自淸淨 何
언 하 대 오 일 체 만 법 불 리 자 성 수 계 조 언 하 기 자 성 본 자 청 정 하
期自性本不生滅 何期自性本自具足 何期自性本無動搖 何期自
기 자 성 본 불 생 멸 하 기 자 성 본 자 구 족 하 기 자 성 본 무 동 요 하 기 자
性能生萬法 祖知悟本性 卽名丈夫天人師佛 三更受法 人盡不
성 능 생 만 법 조 지 오 본 성 즉 명 장 부 천 인 사 불 삼 경 수 법 인 진 부
知便傳頓教 及衣鉢云 汝爲六代祖 善自護念 廣度有情 流布將
지 편 전 돈 교 급 의 발 운 여 위 육 대 조 선 자 호 념 광 도 유 정 유 포 장
來 無令斷絶.....壇經 悟法傳衣
래 무 령 단 절 단 경 오 법 전 의

※ 현재의 교계에서 유포된 모든 단경번역본에서 이상의 '何期自性云云하기자성운운' 의 다섯 구절을 거의 동일하게 誤譯오역하여 말하되 "어찌 자성이 본래.....함을 알았으며"라고 하는 것은 六祖육조가 言下언하에 眞如本性진여본성을 大悟대오하신 확신에 찬 소식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대표적 오역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大悟대오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시절을 잠꼬대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宗旨上종지상으로도 맞지 않지만 文理上문리상으로도 여기서 '何期하기' 의 '何하' 는 '어찌' 의 의문사가 아니고 '참으로' 의 감탄사요 '期기' 는 '결정코' 의 뜻으로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六祖壇經육조단경은 우리 曹溪宗조계종의 聖典성전으로서 宗旨上종지상으로나 文理上문리상으로 聖師성사의 뜻과는 南北남북이 相反상반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니 실로 仰天爆笑앙천폭소할 부끄러운 일로써 비판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熾然作用得自在치연작용득자재하니
寸草不生千萬里촌초불생천만리나
出門春色共依依출문춘색공의의로다.

치연히 작용하며 자재함을 얻으니
마디풀도 나지 않은 천만리에
문을 나서자 봄빛이 한가지로 무성하도다.

여기서는 앞에서 休去歇去휴거헐거와는 정반대로 치연히 작용하며 자유자재함을 얻었는데 어째서 한 생각도 나지 않은 천만 리에 문밖으로 나서니 봄빛이 한 가지로 무성하냐는 말입니다. 이상의 뜻을 바로 알면 저 六祖육조께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什麽物恁麽來십마물임마래〉" 묻자 懷讓禪師회양선사께서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設似一物卽不中설사일물즉부중〉"라고 답하신 뜻도 알 수 있고 여기서 圓悟禪師원오선사께서 보이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不是心불시심 不是佛불시불 不物是불시물 是什麽시십마〉" 화두의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大慧禪師대혜선사의 宗門武庫종문무고에는 다음과 같은 法門법문이 있습니다.

범현군의 호는 적수도인으로서 성도에 있으면서 불과 원오선사를 참학하였다. 불과선사는 범현군으로 하여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화두를 참구해 보도록 하였다. 범현군은 무어라 말할 수 없고 입을 열 수도 없었다. 오며 가며 살펴보며 참구하였으나 들어갈 곳이 없자 몹시 걱정스럽고 초조한 마음이 일어나서 불과선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 외에 어떤 방편이 있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없습니까?' 불과선사 이르되 '한 개의 방편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라. 여기에서 범현군 적수가 깨닫고 이르되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하였다.

范顯君號寂壽道人 在城都參佛果 果教渠看不是心不是佛不是
법 현 군 호 적 수 도 인 재 성 도 참 불 과 과 교 거 간 불 시 심 불 시 불 불 시
物是什麽 不得下語 不得開口 看來看去 無入頭便覺 悽惶乃問
물 시 십 마 부 득 하 어 부 득 개 구 간 래 간 거 무 입 두 편 각 처 황 내 문
佛果云 此外有何方便 令某甲會去 果云有箇方便 不是心不是
불 과 운 차 외 유 하 방 편 령 모 갑 회 거 과 운 유 개 방 편 불 시 심 불 시
佛不是物 壽於此有省 乃云元來得恁麽近...宗門武庫
불 불 시 물 수 어 차 유 성 내 운 원 래 득 임 마 근 종 문 무 고

자, 그러면 무어라고 해야 바로 조사의 뜻에 계합하겠습니까?〈且道喚作什麽차도환작십마 卽契祖師意즉계조사의〉

於此一等靈利漢어차일등영리한이 拶破面門開突出찰파면문개돌출하니
四海逆流淸風起사해역류청풍기로다 須然不直半分錢연불치반분전이나
沙界七寶難可比사계칠보난가비로다.

여기서 일등의 영특하고 날카로운 놈은
얼굴을 찰싹 치자 열려 툭 튀어나오니
사해가 거꾸로 흐르고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세상의 눈 먼 사람들은 반푼의 돈도 치지 않으나
실로 항하사 세계의 진귀한 칠보로도 그 물건과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中下중하의 근기를 위해서는 戒定慧계정혜와 六度萬行육도만행을 닦아서 성불하는 길을 누누이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이지 실법은 아님을 正眼祖師정안조사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마음 안에도 얻을 법이 없으니 무슨 물건을 구하는고? 마음 밖으로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으면 어긋나지 말지어다. 설사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생사업이요 그대가 육도만행을 다 닦는다 하나 내가 볼 때는 모두 업을 짓는 것이요,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면 즉시로 지옥 업을 짓는 것이요, 경을 보고 교를 봄도 역시 업을 지음이거니와 부처와 조사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 유루유위(有漏有爲:중생의 번뇌와 행위)와 무루무위(無漏無爲:번뇌가 없고 함이 없음)가 모두 청정한 업이 되느니라. 일반적으로 눈먼 대머리 중들이 배불리 밥을 먹고서 문득 좌선과 관법을 수행함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붙잡아 함부로 일어나지 않게 하며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구하니 이것은 외도의 법이니라.

조사 이르시되 '네가 만약 마음을 머물러서 조용함을 보고 마음을 들어서 밖으로 경계를 비추며, 마음을 가지고 안으로 생각을 맑게 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드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가 조작된 마음이니라.....무릇 대선지식은 비로서 감히 부처를 헐뜯고 조사를 헐뜯으며 천하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며 경율논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어린 아이 같은 모든 소승근기들을 꾸짖어 욕하고 마음에 거슬리고 마음에 맞는 역순 가운데서 참사람〈無位眞人위무진인〉을 찾느니라.

자고로 선배는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신하여 번갈아 쫓겨남을 당하게 되나니 이것이 귀한 사람인 줄을 알지어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여 옳다고 한다면 감히 무엇이 되겠는가?

心外無法內亦不可得 求什麽物 你諸方言道 有修有證 莫錯設
심 외 무 법 내 역 불 가 득 구 십 마 물 이 제 방 언 도 유 수 유 증 막 착 설
有修得者 皆是生死業 你言六度萬行齊修 我見皆是造業 求佛
유 수 득 자 개 시 생 사 업 이 언 육 도 만 행 제 수 아 견 개 시 조 업 구 불
求法 卽是造地獄業 求菩薩 亦是造業 看經看教 亦是造業 佛與
구 법 즉 시 조 지 옥 업 구 보 살 역 시 조 업 간 경 간 교 역 시 조 업 불 여
祖師 是無事人 所以有漏有爲 無漏無爲 爲淸淨業 有一般瞎禿
조 사 시 무 사 인 소 이 유 루 유 위 무 루 무 위 위 청 정 업 유 일 반 할 독
子飽喫飯了 便坐禪觀行 把着念漏 不令絆起 厭喧求靜 是外道
자 포 끽 반 료 편 좌 선 관 행 파 착 념 루 불 령 반 기 염 훤 구 정 시 외 도
法 祖師云 이若住心看靜 擧心外照 攝心內證 凝心入定 如是之
법 조 사 운 이 약 주 심 간 정 거 심 외 조 섭 심 내 증 응 심 입 정 여 시 지
流 皆是造作.....夫大善知識 始敢毁佛毁祖 是非天下 排斥三藏
류 개 시 조 작 부 대 선 지 식 시 감 훼 불 훼 조 시 비 천 하 배 척 삼 장
教 罵辱諸小兒 向逆順中現人.....自古先輩 到處人不信被遞出
교 매 욕 제 소 아 향 역 순 중 현 인 자 고 선 배 도 처 인 불 신 피 체 출
始知是貴 若到處人盡肯堪作什麽...臨濟禪師語錄
시 지 시 귀 약 도 처 인 진 긍 감 작 십 마 임 제 선 사 어 록

그러므로 일등의 영특하고 날카로운 상근기는 얼굴을 찰싹 치자 바로 열려서 그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니 임제스님께서도 經律論경율논 三藏삼장을 배우다가 이것이 달 가리키는 손가락과 그림의 떡처럼 그려서 표현한 말이지 마음의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서 참선을 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황벽스님으로부터 아프도록 삼십 방망이를 세 번 맞고서 그 뜻을 모르다가 마침내 대우스님 처소에 가서 호통을 맞고 아픈 그 마음의 실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귀를 맞거나 방망이로 맞거나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하고 괴로우면 괴롭다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하고 미우면 밉다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하고 옳으면 옳다하고 그르면 그르다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 튀어 나오는 것이지만 거기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산 넘어서 연기가 나자 거기에 불이 있는 줄 모르고서 다른 데로 불 찾으러 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실체를 볼 것 같으면 四大海해가 거꾸로 흐르는 천재지변의 대재앙 속에서 좋은 시절의 淸청風풍이 일어난다는 말의 소식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상천하에 다시 없이 기특한 마음이라도 세상에 내놓으면 막상 그 모양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서 눈 먼 다수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 푼어치 값도 쳐주지 않는 것이나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저 항하사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도 그 진귀한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졸납이 송하겠습니다.

不是心兮不是佛불시심혜불시불이요 不是物兮是什麽불시물혜시십마오
空劫而前眞消息공겁이전진소식을 井底泥牛弄月歌정저니우농월가로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공겁이전의 참 소식을 우물 밑의 진흙소가 달을 가지고 노래하도다.

저와 같이 진귀한 보배를 마음이라 말하나 실제로 마음도 아니요 부처라 말하나 실제로 부처도 아니요 물건이라 말하나 실제로 물건이 아니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만물과 우주가 생기기 전의 참소식으로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물 밑의 진흙소가 밝은 달을 가지고 노래한다.' 는 것이니 이 말을 바로 알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무엇고?' 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을 할하다.



성문 스님
동화사 주지

약사신앙이 어떻게 중생고뇌 해결했는지 밝히는데 기여할 것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승단 세속화로 기복불교 성행, 사찰 재원확보 수단 한계 넘어야



야오 총신
손얏센대 교수

중국 경우 현세이익 추구 대변 신앙, 약사정토신앙으로 발전



사무엘 모스
엠허스트 칼리지 교수

종교간 교류 속에 민족전통의 기원 · 기도 성향이 약사신앙으로 발전



맥스 모어만
버나드 칼리지 교수

일본에선 치유성격 부각, 목욕문화와도 긴밀히 연결돼 성행

"번뇌 망념 없애는 실천행이 약사신앙"

대구 동화사서 '동아시아 약사신앙학회' 개최

한국 약사신앙의 중심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최초로 동아시아 약사신앙을 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5월 29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美콜럼비아대 불교 · 동아시아종교센터와 국제학술세미나 '동아시아 약사신앙학회'를 공동기획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회식과 △제1부 민간신앙과 약사불 △제2부 치병과 의약과 △제3부 약사여래 도상의 변천 △제4부 역사 속에서의 약사신앙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역사적으로 약사여래신앙은 다양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며 "약사여래 신앙이 중생과 어떻게 소통하고 당면한 그들의 고뇌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美콜럼비아대 불교 · 동아시아종교센터 공동소장 유춘팡(Chun-fang Yu) 교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약사여래의 자비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약사신앙 연구가 불교연구 출범시키고 동화사와 콜럼비아대의 지속적인 연구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종명 "한, 약사 기복에 쏠려"

"갓바위 부처님을 약사불로 보는 견해는 190년대 기복에 의한 약사신앙의 결과다. 이는 현대 한국승단의 세속화 산물로 해석 가능하다."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동아시아 약사신앙학회'에서 주제발표 '현대 한국의 갓바위 약사불 신앙'에서 "약사불로서 갓바위는 1960년대 초 몇몇 스님들의 추정적 산물이었다"며 "갓바위 신도들의 목적은 기복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자들의 병 · 약에 대한 이해 부족, 스님들의 물질적 관심, 재가자들의 기복이 주 원인"이라며 스님들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다.

김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릴 것을 강조했지만 현재 한국 승단은 사찰 재원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기복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계는 기복종교로서 불교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가신자들로 하여금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버나드 포 교수는 "초기불교 위주 주장으로 불교 전개에 따른 기복신앙도 하나의 불교 형태로 모든 종교를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야오 총신 "中 약사숭배 등 현세 구제"

야오 총신 중국 손얏센 대 교수는 '중세 중국에서의 약사신앙 함의'에서 "중세 중국인들의 약사불의 현세 구제 역할을 중시했다"며 "약사신앙은 단순히 치유와 치병이 아닌 망자 천도와 서방정토 왕생의 염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오 총신 교수는 "중국 약사정토신앙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그 근본 원인이 현세 이익 추구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석 스루 포모나 대 교수는 '5~6세기 중국에서의 민간신앙'에서 "5세기 약사신앙의 유행은 도교의 치유수행 등과도 습합돼 나타난다"며 "이러한 신앙 보급에 황실이 후원하기도 하는 등 국가 기반 신앙으로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사무엘 모스 "日 약사신앙 정신치유 주목"

사무엘 모스 엠허스트 칼리지 교수는 '헤이안 · 신라 시대 약사불 입상을 통한 신토와 불교의 습합'에서 "8~9세기 일본인들은 신라의 군사적 위협에 늘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이를 위한 방어책으로 토착종교 중 육체적 · 정신적 질병 뿐만 아니라 약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하치만을 주로 믿게 된다. 이러한 하치만이 불교와 닿아 일본에서 약사여래신앙으로 본격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엘 모스 교수는 "이는 끊임없는 수용을 통한 종교의 변화를 의미한다. 신라 약사여래를 일본인들이 자신의 신앙 대상으로 삼은 것이 그 예다"고 말했다.

맥스 모어만 버나드칼리지 교수는 '북다와 목욕물, 일본의 온천과 약사신앙'에서 "8세기부터 일본 온천은 종교적 배경의 필수부분이 됐으며 12세기에는 약사여래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질병과 더러움은 곧 번뇌, 목욕을 통한 안락은 해탈로서 약사여래신앙이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 정화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갓바위 부처님, 미륵 · 약사신앙의 상징"

김상현 교수, 28일 선본사 학술대회서 강조

선본사와 갓바위 부처가 팔공산에 형성된 미륵 · 약사신앙의 변천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5월 28일 열린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학술대회에서 '통일신라시대 팔공산의 불교신앙'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팔공산에 형성된 불교 신앙에 대해 살폈다.

먼저 김 교수는 팔공산이 신라의 오악 중 부악으로 불렸던 것에 주목했다. 팔공산은 신라 왕실의 원찰 동화사가 있고, 화엄 십찰 중 하나인 미리사와 교종 사찰 부인사, 지장신앙 도량 지장사가 자리하는 등 다양한 불교신앙들이 존재하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팔공산의 불교성지로서의 천년 전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 부처)'이 모셔진 선본사는 우리나라 최고 기도처"라며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언제부터 예경의 대상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산정(山頂)부처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륵불과 약사불로 나뉘는 '관봉 석조여래좌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1930년대까지는 미륵불로 인식되다가 1960년대 이후 약사불로 명명되기 시작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1934년 편찬된 〈화성〉에 따르면 사람들이 '갓바위 부처'를 미륵불로 부르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1962년 동아일보 기사에 약사불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갓바위 부처'는 1930년대까지 미륵불로 불리다가 1960년대 약사불로 호칭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존명이 시대에 달라지는 것은 이 불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신앙심이 투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동수 외 6명 학자 갓바위 종합 고찰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팔공산 동록(東麓)의 지리환경과 관봉 석조여래좌상및 선본사의 입지특성(한동수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의 양식 특징과 조성배경(김춘실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팔공산 선본사 석조문화재에 대한 고찰(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 △조각승 청허와 경산 선본사의 목조아미타불좌상(송은식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선본사 관봉 석조여래좌상 및 삼층석탑에 대한 암질 분석(좌용주 경상대 지구과학과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신중일 기자

불교학지원사업회, 지원사업 공모

박사학위 논문 · 저술 번역 2개 분야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제10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관련 번역 지원 등 2개다.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은 학위취득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 논문 수정, 보완 후 응모도 가능하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번역 후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2명에겐 각각 5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또 불교관련 번역지원은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학자에겐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선정될 경우 본 법인에서 출판지원비를 보조해 도서출판 CIR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24~29일까지로 9월 중 심사결과가 개별 통지 된다. (011)9789-3083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중국 선종' 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6월 8일 오후 1시 동국대 문화관 2층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중국 선종의 분화와 그 사상'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위산과 앙산의 선사상 소명' △김호귀 동국대 연구교수의 '백파긍선의 조동오위 해석과 그 특징' △황금연 동국대 강사의 '운문록을 통해 본 운문의 선기와 접화'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송대의 시대정신과 선종 종파의 부침'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HK연구단, '글로컬리티' 발표회

6월 7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동국대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6월 7일 오전 10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층 불교학술원 강의실에서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고유성의 전개'라는 주제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호귀 HK연구교수의 '삼국시대 설화를 통해 본 신의의 유형과 그 불교적 기능' △정영식 HK연구교수의 '전란기에 있어서의 불교식 위령과 국가' △박광연 HK연구교수의 '동아시아의 왕즉불(王卽佛) 전통과 미륵불 궁예' △강호선 HK연구교수의 '조선 태조 4년 국행수륙재의 설행과 그 의미' △이자랑 HK연구교수의 '신라 사원노비의 발생과 사신(捨身)' △박서연 HK연구교수의 '화엄경문답에 나타난 의상의 화엄사상 연구' 등이 발표된다. (02)6713-5172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 이대로…', '불교평론' 53호 특집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최근 '불교평론' 여름호(통권 53호)를 펴냈다.

'불교의례 이대로 좋은가'를 특집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종교에서 의례의 의미와 기능(송현주) △불교의례의 발생과 동아시아적 전개(문을식) △한국불교의례의 형성과 특성(이성운) △의례 내용은 교리와 합치하는가(태경 스님) △불교의례 한글화 원칙과 지향점(이도흠) △근대불교 의례개혁론과 불교대중화(한상길) △불교의례의 문제와 개선방향(명법 스님) 등의 논문이 게재됐다.

또 논단에 △협동조합 운동과 불교(유정길) △인도불교 흥망의 교훈(조준호)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티벳장경硏, '찬드라 키르티' 세미나

티벳장경연구소(소장 윤영해)는 6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글로벌 에이스홀에서 '찬드라 키르티의 입중론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계학술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인도 불교논증연구소 갸초 스님의 '인도불교에서 입중론이 가지는 철학적 가치와 의의' △김현구 전남대 교수의 '찬드라 키르티의 유식 비판' △텐진 남카 티벳장경연구소 연구초빙교수의 '귀류논증파의 8가지 특징' 등이 발표된다. (054)770-2893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다문화가족 2세 위한 직업체험 눈길

아시아밝음공동체 5월 25일~6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이 실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 광주 길상사 주지)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산구경찰서, 동부소방서, 장성상무대 등 광주 중요 관공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꿈을 찾아가는 오색종이 탐험대'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2세들과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 각종 직업에 대한 체험과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와 이색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 후반기 잡월드, 다도체험관, 사진촬영, 마술수업 등 흥미롭고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밝음공동체 교육담당인 정은경 부장은 "이번 체험활동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인식시키고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미래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요관공서 등 전문직 설명회
잡월드 등 새 직업 체험 강의
4개국 이주민동화책 편찬 추진


경찰관 직업체험을 한 대자초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모습.

직업체험을 한 대자초교 4학년 김동훈 학생은 "경찰관들이 학교폭력예방과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다"며 "경찰의 고마움을 느꼈다. 경찰관의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밝음공동체는 오는 10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이상 4개국의 이주민 전래동화를 2중언어로 표기한 전래동화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한편, 체험행사는 광산구경찰서(25일), 임방울국악관(6월 1일), 동부소방서(6월 08일), 시청자미디어센터(6월 15일), 장성상무대(6월 22일)에서 각각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에 다녀오면 누구나 부처 된다

호남문화원, 6월 8일부터 아쇼카 순례단 운영

호남문화원은 6월 8일 공주 마곡사 및 청양 장곡사를 시작으로 매달 둘째주 토요일 불교성지를 찾아 떠나는 '아쇼카 순례단-해설이 있는 사찰순례'를 운영한다.

첫 순례는 이준엽 호남문화원 연구실장(사찰문화해설사)이 진행하며 참가비는 3만원으로 점심이 제공된다.

첫 순례지인 공주 마곡사는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곳으로 삼(麻)밭의 삼이 일어선 것처럼 골짜기(谷)를 가득 메웠다고 하여 이름지어졌다. 물과 산의 형세는 태극형이라고 하여 《택리지》·《정감록》 등의 여러 비기(祕記)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로 꼽고 있다. 또 청양 장곡사는 대웅전 두 곳인 국대 유일의 사찰이로 국보2점과 보물 4점을 간직한 고찰이다. (062)383-3538

노덕현 기자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열어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5월 25일 선운사 유스호스텔 경기장에서 사찰, 상가, 주민들 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운골 공동체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화합한마당에는 마을 사람들과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유스호스텔, 우체국 농협 사람들 200여 명이 모여 공동체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족구, 농구공 넣기, 제기차기, 윷놀이 놀이를 겸한 게임을 즐기며 공동체 구성원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선운사와 고창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선운골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향봉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법회

선(禪)·교(敎) 겸비하고 오직 수행정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진 향봉 향눌(香峰 香訥, 1901~1983)스님의 열반 30주년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상)는 5월 28일 경내 사자루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올곧은 정신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정진해 나아가자'고 결의했다.

추모법회에는 방장 보성 스님과 동당 법흥 스님을 비롯해 향봉 스님의 상좌스님들과 총림 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헌향, 대중삼배, 행장소개 및 추모입정, 헌공, 헌다, 헌화, 문도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도대표인 청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열반 30주기를 맞아 많은 대중들의 큰스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향봉 스님은 1940년 송광사에서 석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2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1953년 만월산 백운사에서 20여 년간 주석하며 후학들을 지도했다. 1954년에는 교단 정화로 정화불사가 시작되면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임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에는 출가본사인 송광사 임경당으로 주석처를 옮겼다. 스님은 1983년 5월31일 서울 법련사에서 세수 83세, 법랍 44세의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한편 송광사는 향봉대선사어록인 '운수산고'를 재발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청소년 잔치 한마당 성료

전북파라미타협회, 5월 25일 제17회 모악축제 성료



제17회 모악축제에서는 50여 중고교에서 500여 학생들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전북 청소년들의 잔치 한마당인 '제17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열렸다.

전북지역 대표 청소년 봉사단체인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5월 25일 김제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제17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모악축제는 대표적인 청소년 봉사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문예백일장,사생대회,전통음악,댄싱대회를 통하여 친화와 일체감, 사랑과 화해,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며 시민 의식과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모악축제에는 전북 지역 50여 중·고교 학생 500여명과 선생님들이 참여했다. 대회는 '탑', '들꽃', '가정', '5월' 등의 주제로 운문과 산문의 백일장, 한국화·서양화·만화부문으로 치러졌으며, 댄싱 음악 경연대회도 진행됐다.

금산사 부주지 성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주기 바란다"며 "청소년 모악축제를 맞아 글과 그림, 춤과 노래등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달라"고 당부했다.

경연을 마친 청소년들은 금산사 미륵전 등 국보와 보물이 산재한 금산사 일원에서 문화재 애호 활동을 펼쳤다. 이와함께 금산사 일대를 청소하며 자연보호 활동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보호 활동도 함께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심으로 아이들 창의성 키워요"

동련 광주지구, 5월 26일 연꽃문화제 개최

동련 광주지구(회장 정륜)는 5월 26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2013년 제6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작품활동 시간이 진행됐으며 참가한 아이들은 문화공연, 페이스페인팅, 리본만들기, 클레이 연필꽂이 만들기, 포크아트, 책갈피 만들기, 제기차기, 방송댄스, 국악, 종이접기 등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연꽃문화제는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련이 주관해 지역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984년부터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지구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 강원지구를 시작으로 부산지구(5월 11일), 울산지구(5월 17일), 밀양지구(5월 19일), 제주지구(5월 22일), 광주지구(5월 26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연꽃문화제를 통해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한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륜 스님은 이날 연꽃문화제의 주안점을 '창의성'이라고 강조하고, 심사의 규정을 구도와 짜임새, 독창성과 창의성, 성실한 표현, 정확한 맞춤법에 두었다고 밝혔다.



무각사 일주문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

이날 입상자에게는 대상(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 최우수상(광주시장상), 특별상(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상), 우수상(동련 광주회장상·광주시교육감상), 가작(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상·학정서예연구원장상), 한마음상(단체·자비신행회 이사장상) 등이 수여됐고 자전거, 디지털 카메라 등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주사 '목조삼세불좌상' 전북문화재 지정

군산 상주사 목조삼존불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21호로 지정됐다. 군산시는 5월 28일 군산 상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제22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상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은 대웅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7호)에 봉안돼 있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로 이뤄진 삼존불이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인균의 불상과 옷 주름의 표현방식이 비슷하고 전반적인 양식 특징으로 미뤄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주사는 606년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사찰로 고려 공민왕 11년(1362)에 나옹대사가 중창했다.

동제 전북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소리소문 없이 이웃돕기 30년

감동의 자비 나눔 모임 부산 보현회 '주목'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는 보현회는 그동안 이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다.

이웃집에 손자를 데리고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가 보이질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가니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 동네에 살던 젊은 주부 5명이 모여 쌀자루를 들고 탁발을 다녔다. 그렇게 모인 쌀로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완쾌가 됐다. 30여 년 전 일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만들어 진 것이 지금의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다.

부산 좌천동 가구골목 뒷길을 헤매다 염불 소리를 쫓아 보현회가 머문 보현정사를 찾았다. 봉사만큼이나 수행도 열심인 회원들, 그들의 정진이 한창이다.

올해는 보현회가 창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보현회의 나이만큼 젊은 아낙네들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했다. 늘어난 것은

어르신 수술비 지원 위한
탁발로 봉사 활동 시작
봉사자 300명 보살행 실천

세월뿐만이 아니다. 꼬깃꼬깃 모아 기꺼이 함께 마음을 합치고자 마음을 낸 순수 자원봉사자들만 어느덧 300명에 이른다. 봉사 회원이 늘어 지난 2012년 9월 현재의 법당으로 이전했다.

보현회 회원들은 굳이 자신들의 보살행을 알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배고픔, 아픔들을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측은지심은 가득하지만 얼굴 내미는 일에는 마음 들어설 곳이 없는 것이다.

보현회의 사업은 그 순박한 태생처럼 딱히 대상이 정해진 바가 없다.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상도와 전라도 어디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닌다. 또 스님들 대중공양에서부터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는 보현회는 일년 열두 달 그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다.

특히,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들의 선행은 더욱 빛난다. 하지만 그로인해 그들의 선행이 사각지대가 됐다. 몇 해 전, 이들의 선행에 감복한 복지관 실무자들의 권유로 법인설립을 알아보다 그만 단념하고 말았다. 오랜 기간 남 잘되는 일 해왔지만 사진자료 하나 변변치 못해 정식절차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30년 동안 사진 한 장 없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한 회원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만 열심이다 보니 선행을 알릴만한 자료는 남기지 못했어요"

심지어 올 해로 창립 30년을 맞이했지만 변변한 기념행사도 하나 치르지 못했다. 행사 치를 돈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돕겠다는 것이 보현회 봉사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보현회 창단 이후 여지껏 회장을 맡은 안성이 회장에게 독재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농담에 총무인 전영자 씨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회장하는데, 지금까지는 더 열심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한바탕 웃음이 쏟아졌다.

보현회는 앞으로도 소리소문 없이 봉사를 이어갈 것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우학 스님 무문관 '천일정진'

12명 스님들과 용맹정진 돌입

12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1000일 수행 결사를 시작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들은 5월 24일 부터 한국불교대학 경주 감포도량에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스님들은 앞으로 1000일 동안 각자 출입문을 완전히 폐쇄한 좁은 공간에서 하루 한끼 공양구로 들어오는 음식에만 의지한 채 묵언과 화두 정진을 계속하게 된다. 우학 스님은 "사찰 창건 21년 만에 한국불교대학을 한국의 대표적인 가람으로 키워왔지만 아직도 수행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과 함께 천일 수행 결사에 들어간다"고 길을 떠난 것으로 전한다.

우학 스님은 지난 21년간 지역아동센


무문관 천일 결사에 돌입한 우학 스님과 12명 스님들

터, 고아원, 학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장례식장, 납골당, 노인센터, NGO, 선방, 평생교육원, 국내외 여러 도량 등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며 성공적인 불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한국불교대학 신도들은 사경명상과 금강경 독송을 매일 하는 방법으로 우학 스님의 1000일 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생명나눔, 제6회 청소년 백일장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펼쳐온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부산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6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5월 26일 서면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총 6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당일 제시된 주제(고등부-여행, 그늘 / 중등부-기도, 가방)로 시, 산문 두 부문에서 기량을 펼치는 자리였다. 결과는 시부문 대


생명나눔 청소년 백일장 현장

상(부산광역시장상)에 황호준(경남고), 산문 대상(부산광역시장상)에 오승재(대동고) 등이 각각 수상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대구-스리랑카 직항 노선 개설 설명회

대한항공이 불교국가 스리랑카 직항 노선을 개설하면서 불자들의 성지순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 대구지점과 성지순례 전문여행사인 '둠비니 항공여행사'는 5월30일 대구지역 불교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 '스리랑카 직항노선'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항공 대구지점은 설명회에서 "스리랑카는 불교유적이 많지만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져 국내 수요가 적었다. 직항노선 개설로 성지순례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전 죽림정사 경로잔치

대전 죽림정사(주지 광진스님)는 창건 25주년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29일 지역의 어르신들을 사찰로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암 주지 덕산 스님, 법동종합사회복지관장 보안 스님, 박성효 국회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김금자 대덕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죽림정사는 매년 가정의 달 5월에 경로잔치를 베풀고 있다. 또 지역의 소외계층에 연간 20kg 600포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해 사찰 인근의 4개 동에 위치한 경로당에 쌀과 과일, 떡 등을 격월로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전통사찰 새 조형물 부조화 우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통사찰의 지정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녀야하고,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해야 하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통사찰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한국사찰이 지녀야 할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고문헌이나 발굴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교전래초기에 지어진 사찰들은 대체로 탑을 중심으로 금당과 강당이 축선상에 배치되고, 회랑이 중심공간을 위요하는 형식을 가진다.

우리나라 사찰이 다른 나라의 사찰과 다른 것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석탑과 석등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석탑과 석등은 재료적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만 그것이 놓이는 위치도 같지 않다. 사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에 위치하는 석탑과 석등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찰의 아이콘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국사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최근에 역사가 오래된 전통사찰에서 지난날 우리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상한 형태의 조형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개인적 공간에 그것이 배치된다면 별일이 아니겠지만, 사찰의 중심공간에 도입될 경우에는 오랜 세월 계승되어 온 한국사찰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룰 수 있고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에서는 새로운 조형물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형태로 창작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잘못 만들어진 조형물이 한국사찰의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헤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의 전통사찰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문환경이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통사찰이 변화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의 전통사찰이 한국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헤치는 불사는 막아야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오래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형물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충청남도 ㅅ사찰

봉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대법회 축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 6월 8일(토) 오전 10시

전국 전세계의 불자 여러분!
천불천탑도량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오는 6월 8일 국가 안녕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그동안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발원하며 일심으로 사경하셨던 법화경 사경을 머리에 이고 천불천탑을 돌며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합시다.
성스러운 이 대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계 일백만 법화행자 합장

행사일정표

6월 8일
오전 10:00 헌공 및 설법
오후 1:00 산사음악회
3:00 사경봉안식
8:00 철야정진법회(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천안역 셔틀버스 운행안내
· 전철 1호선 천안역 하차
→ 서부광장 주차장 출발(오전 8시 ~ 11시)
→ 구룡사 행사장 도착



로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출연〉
한 혜 숙(탤런트) 김 수 희(가수) 장 광 석(바리톤)
임 지 연(미스코리아) 조 영 주(소프라노) 김 나 비(살풀이춤)

장소 :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288-2
문의 : 02)928-1331(서울 종무소), 041)552-9666(천안 종무소) www.buphwajungsa.or.kr

찻잔 속에 담긴 나를 보고 올 수 있는 곳



2000년에 지어진 수종사 다실 삼정헌은 시 · 선 · 차가 하나되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수종사 전경


해탈문앞 세조가 심었다는 은행나무

차향이 있는 절 - 남양주 수종사(水鐘寺)

구름 따라 여기에 와 그윽한 곳 사랑하니 / 언덕에 끌린 정,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우습구나. / 곱디고운 초승달 맑게 갠 저녁에 떠오르고 / 엷은 안개 서린 언덕엔 석양 노을 비친다. / 뜻 높은 선비야 누가 오겠나 / 자리가 높아지고 좋을 땐 소원해지기 쉬운 것 / 강 가까이 숲이 깊어 찾는 이가 드무니 / 이 중에 좋은 벗, 반은 물고기와 새이라

다성(茶聖)이라고도 불리는 차의 거인 초의 선사(1786~1866)가 석옥 화상의 시에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 '수종사차석옥화상운' 12수중의 하나다. 시 속의 수종사는 두물머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기슭에 있다. 1830년 가을부터 초의 스님은 수종사에 머물렀고, 그 해 겨울에 위의 시를 썼다. 초의 스님이 지나치지 못하고 머문 것을 보면 수종사는 차향이 깃든 도량임을 짐작케 한다.

수종사 가는 길

큰 도로에서 수종사 밖에 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면 그 때부터 가파른 길이다. 5월의 숲이 그 가파른 길을 거뜬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버린 아이처럼, '봄비'라고 하기엔 너무 묵직해진 봄비가 숲을 적시고 있다. 약 1.7km 쯤 걸으면 일주문이다. 일주문까지는 차량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차량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숨이 턱 밑에 가득 찰 때쯤, 숲 너머에서 목탁소리와 예불 소리가 들려온다. 일주문에서 300m쯤 걸으면 미륵불상이 보이고, 200m 쯤 오르면 절 마당이 드러난다.

詩 · 禪 · 茶가 하나되는 도량

짐작대로 수종사는 차향이 깃들어 있는 도량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다. 차의 거인 초의 선사와 다산 정약용(1762~1836),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이곳에서 함께 차를 즐겼고, 그들처럼 차를 '누릴' 수 있는 삼정헌(三鼎軒)이란 다실이 있기 때문이다. 수종사는 조선 중후기에 차인들의 '터'였다. 초의 스님을 비롯해 다산, 추사, 추사의 아우 김명희, 정조의 부마 홍현주, 다산의 아들 학연 등 차를 좋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다. 이처럼 많은 차인들이 수종사를 찾았던 이유는 수종사의 석간수 때문이다. 물맛이 일품이다. 맛뿐만이 아니라 물 자체가 명품이다.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수종사를 찾았다고 한다. 단 한 평의 차밭도 없는 도량에 많은 차인들이 차를 들고 모여들었다. 그렇게 수종사는 차향이 이어져오는 도량이다. 일지암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초의 스님도 수종사를 지나치지 못했다.

다실 삼정헌은 지난 2000년에 지어졌다. 삼정헌은 시(詩), 선(禪), 차(茶)가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삼정헌은 차를 파는 곳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절에 딸린 찻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당이나 후원처럼 사부대중이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차를 체험하고 누리는 곳이다. 곧 수행의 공간이다. 묵언까지는 아니어도 말을 줄이고 낮춰야 하며, 차와 더불어 있는 동안이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수종사가 삼정헌이란 공간을 마련한 취지다. 삼정헌 벽에는 '자연방하(自然放下)'와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글이 걸려 있다.

수종사는 등산로의 산장 같은 도량이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운길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수종사를 거쳐 간다. 삼정헌은 늘 만원이다. 등산객이 많은 철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포천에서 왔다는 한 방문객은 다른 종교인이지만 수종사엔 삼정헌이 있어서 자주 온다고 했다. 특히 오늘같이 비라도 오는 날엔 삼정헌이 생각난다고 했다. 맑은 차 한 잔을 들어 올리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종교를 떠난 치유의 시간이라며 수종사를 알게 된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수종사는 다도반 수종다회도 운영하고 있다. 사찰예절과 다도예절을 배울 수 있다.

'차'는 음식인 동시에 '세계'다. 어디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찻잔을 들고 있는 시간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래서 '다도(茶道)'라고 하는 것 같다. 물안개 밑으로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찻잔 앞에 앉아볼 일이다. 차를 몰랐던 사람이든 알고 있는 사람이든 수종사에 가면 찻잔 앞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찻잔 속에 담긴 나를 보고 올 수 있다.

수종사는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439년(세종 21) 세워진 정의옹주의 부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59년 세조의 명으로 크게 중창되었다. 세조가 신병치료차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물머리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 운길산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숲을 따라가 보니 천년고찰의 사지 바위벽에 18나한상이 줄지어 앉아있고 그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냈다. 이에 세조는 지금의 자리에 절을 복원하게 하고 절 이름을 수종사라 했다. 해탈문 앞에는 그 때 세조가 심은 은행나무가 있다. 정약용의 〈유수종사기〉에는 "수종사는 천년의 향기를 품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온 누리에 울리며 역사 속으로 걸어온 셈이다. 수종사는 신라 때 지은 고사인데 절에는 샘이 있어 돌 틈으로 흘러나와 땅에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낸다."고 적혀 있다. 1939년 태욱이 중수하고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뒤 1974년 주지 장혜광 스님이 대웅보전 등을 복원했다. 1981년에 산신각, 종각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주변보기

〈사찰〉

▲**봉선사** / 진전읍 봉선사길 32
전화-031-527-1956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다. 969년 법인국사 탄문이 창건하여 운악사라 하였다. 그 후 1469년(예종 1) 정희왕후 윤씨가 광릉의 세조를 추모하여 89칸으로 중창하고 봉선사라고 하였다. 1551년(명종 6)에는, 교종의 수사찰로 지정되어 승과시를 치르기도 하고, 전국 승려와 신도에 대한 교학진흥의 중추적 기관 역할을 하였다.

▲**묘적사** / 와부읍 월문리 222
전화-031-577-1761

묘적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고려 때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세종 때 학열 스님이 중창했다. 일설에 따르면 국왕 직속의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유정이 승군을 훈련하는 장소로 썼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는 스님들이 무과 시험을 준비하는 훈련장으로 썼다.

〈가볼 만한 곳〉

• **다산유적지(다산 정약용 생가)** / 조안면 능내리 산 75-1 전화-031-590-2837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마을로 오랜 유배 생활 끝에 다산이 생을 마친 곳이다. 수종사에서 약 8km에 위치한 유적지에는 생가 여유당, 업적과 자취가 전시된 다산기념관과 다산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는 다산문화관이 있다.

• **남양주종합촬영소** / 조안면 북한강로 855번길 138 전화-031-579-0605

한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불리는 곳이다.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등 대표적인 한국영화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총 132만㎡ 부지 위에 10만㎡ 크기의 야외 세트를 갖추고 있으며 운당고택 및 한옥, 초가 세트, 실내촬영장까지 볼거리가 가득하다.

〈숙박〉

-축령산자연휴양림 /
수동면 외방2리 280번지 전화-031-592-0681
-스타힐리조트 /
화도읍 먹갓로 96 전화031-594-1211

〈식당〉

-운길산장 / 031-576-5952
가마솥 순두부, 백숙, 우렁쌈밥
-운길산 국수촌 / 031-577-0717
잔치국수, 비빔국수
-두물장어 / 031-576-8727
참숯불 장어구이, 곤드레밥 정식

(주)예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마하연 추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3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미얀마 불교 이야기
5. 영국식민지배 이전까지

민심 모으는 결집 전통 지금도 이어져

몽고군이 1310년 경 물러간 후 미얀마는 중북부 샨족(Shan)의 잉야(Innwa)왕조와 남부 버고 왕조의 두 개 왕조가 대립한다. 샨족은 현재도 미얀마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잉야 왕조는 수계작법을 확립한 버고 왕조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수용하고 보호와 진흥에 열심히 나섰다. 잉야왕조의 불교수용은 상좌불교가 미얀마 북부 산악지대까지 멀리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잉야 왕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미얀마인에 의한 불교 저작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것이다. 초기 불교 전통의 경전에 바탕한 이야기나 논서에 대한 주석서, 그리고 초기경전어인 빠알리어에 대한 문법서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논서에 대한 주석서로는 마하아리야왐사(Maharyavamsa) 스님에 의한 'Abhidhammatthavibhavaini'나 빠알리어에 관한 'Ganthabharana'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 시대의 많은 스님은 자타카, 즉 부처님의 생애나 본생담을 소재로 한 여러 작품들을 남기고 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기를 '불교가 미얀마화' 한 시기라 평가한다.

16세기에 이르면 샨족은 다시 버마족에 주도권을 내준다. 1510년에 버마족의 따웅우(Taung Oo) 왕조가 미얀마 대부분을 통일한다.

따웅우 왕조 당시 스리랑카로부터 장로스님이 건너오고 왕들은 많은 사찰을 건립하여 승원불교를 발전시켰다. 버잉나웅(Bayinnaung) 왕의 경우 잉와 왕조를 멸망시키고 인도의 마니뿌르, 중국의 운남성 그리고 태국 등지까지 정복활동을 펼쳤다. 버잉나웅 왕은 독실한 불교도로 정복지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도록 강요했다. 많은 불탑을 보수하고 불교경전을 일반에 보급하는데 노력했다. 또 스리랑카에 불교가 발전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샨족의 근거지인 산간벽지에도 전도사를 파견했다. 따웅우 왕조의 지원으로 많은 학승이 배출되고 빠알리어로 쓰인 많은 초기불교전적이 미얀마어로 번역됐다. 이 왕조는 약 200년간 지속됐는데 태국의 침입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의 식민서구 세력의 압박을 받아 멸망했다.


꽁빠웅 왕조 바돈 왕(1781-1790)이 1790년에서 1797년까지 만들다 미완성으로 끝난 민군대탑은 미얀마의 열강 침탈을 불러왔다. 바돈 왕은 왕권 강화와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불사를 시작했지만 혹독한 노동에 지친 일꾼 1000여 명이 영국군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도망치며 침공의 빌미가 된다.


제5결집의 결과물인 대리석판에 새긴 석경. 파손을 막기 위해 탑 속에 안치된 모습


석경이 있는 꾸도더(Kuthodaw) 파고다에서 경전을 보고 있는 여자의 평화로운 전경


꾸도더 파고다 앞에서 스리랑카 대표인 아상가 교수와 캄보디아 대표 교수와 함께한 조준호 교수〈사진 오른쪽〉

민심 결집 위한 제5차 결집

따웅우 왕조 시대에는 제5차 결집이 이뤄졌다. 미얀마에서 '제5차 결집'은 불기(佛紀) 2400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민돈(Mindon : 1853~1878) 왕이 만달레이에 2400명의 학승을 모아 결집을 개최했다.

이들 스님들은 1868년에서 1871년까지 약 3년 동안 불교에 정통한 학승들의 감독 아래 빠알리 삼장(三藏)을 독송하며 교정했다. 상좌불교에서 전통적으로 경전은 패엽(貝葉) 등에 새겨져 내려왔는데 필사해오는 과정에서 오자나 탈자 등이 있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은 교정 삼장은 총 729매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흰 대리석에 4년간 새겨졌다. 총 율장 11매, 경장 410매, 논장 208매였다.

현재에도 제5결집의 결과물인 대리석판에 새겨진 석경은 만달레이 구릉에 잘 봉안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각각의 석경은 파손을 막기 위해 탑 속에 안치되어 있다. 입구는 대단히 다채롭고 화려한 꾸도더(Kuthodaw) 파고다가 있다. 이 파고다는 '왕의 공덕'이라는 의미와 함께 입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The World's Biggest Book)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다.

미얀마는 이 전통에 의해 '제5차 결집' 이후 1954년부터 3년간 불기 2500년을 기념하는 '제6차 결집'을 개최한다.

'제6차 결집'의 삼장은 현재 책으로 출간돼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인도문자(Devanagari)로 빠알리(Pali) 삼장을 출간하는데 저본이 됐다. 현재 날란다 에디션(Nalanda Edition)이라 불리며 유통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인도불교사에 있어 '제4차 결집'은 C.E. 1~2 세기 경의 끼니쉬까왕 때의 결집으로 이야기되지만 빠알리어 경전은 아니었다. 때문에 상좌불교 전통에서는 B.C.E. 1세기 경 스리랑카의 알루 비하라에서 이루어진 결집을 '제4차 결집'으로 본다. 즉, 민돈 왕에 의해 이루어진 결집이 스리랑카에 이어 진행됐기에 제5차 결집으로 보는 것이다.

민돈왕의 제5차 결집은 미얀마가 자주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고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 시기는 강력한 무력을 바탕한 영국이 미얀마 중하부를 장악한 상태였다. 민돈왕은 미얀마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미얀마 수도를 잉와(Ava)에서 만달레이로 옮기고, 내륙의 중심부를 흐르는 에야와디 강의 항로를 정비하고 교통체계를 확대했다. 또 전국에 전화통신체계를 갖추고 서양기술을 빌려 채광과 벌채방법 등을 개선하는 등 산업화와 근대화에 최선을 다했다. 민돈왕은 영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한편으로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유럽세력과도 관계를 맺으며 미얀마를 지켜나갔다.

이와 함께 서구열강의 위협에 흐트러진 민심을 불법을 통해 수습하고자 했다. 이는 고려시대 몽고 침입 시 국난극복의 방법으로 대장경을 간행한 것으로 떠오르게 한다.

민돈왕은 독실한 불교인으로 평소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불교교단의 정화와 발전 그리고 포교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1858년에 타락한 승려들을 참회시키는 정화와 외세가 침투한 남부 미얀마로의 전법활동을 장려하고 불교 성전 시험을 대대적으로 여는 정책 등을 펼쳤다. 또한 이 시기에 미얀마의 2대 분파인 셰진파(Shwezin)파와 투담마파(Thudhamma)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개화 군주 민돈왕의 안타까운 최후

안타깝게도 민돈왕은 모든 방면에서 미얀마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항상 신변의 위협 속에 살다 병으로 최후를 맞았다. 개화군주(開化君主)로 민돈 왕의 치적은 여러 가지로 평가된다. 그는 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를 만났던 영국사절도 그를 칭송했을 정도로 인품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국내외 사정도 밝았고 국사를 처리하는데 정통했고 또한 종교적인 인품을 지녀 매우 젊잖고 친절하여 두루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죽고 난 후 왕위는 그의 아들인 띠보(Thibaw)가 물려받았지만 꽁바웅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영국은 미얀마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고자 전쟁의 구실을 만든 후 진격하여 곧바로 궁궐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냈다. 잘 훈련된 병력에 근대식 장비와 무기를 앞세운 영국군에 속수무책으로 함락되고 만다. 이 때가 1885년 11월 28일이다. 미얀마의 마지막 왕 띠보는 바로 인도로 끌려가 30년간 그곳에서 살다가 1916년에 죽었다. 지금도 미얀마 사람들은 영국군에 11월 말에 끌려간 날을 '빠도무 네이(Pardawmu Nay: 띠보 왕이 끌려간 날)'라 하여 슬픈 마음 마음으로 기념한다. 반면 인도 무갈 왕조의 마지막 왕은 인도에서 미얀마로 끌려와 생을 마감하였다. 지금도 그의 무덤은 양곤 시내 한복판에 남아 있다. 미얀마는 이렇게 영국 제국주의자와 벌인 이전의 1824년과 1852년의 두 차례의 전쟁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 침탈에 무너지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1753년 경 미얀마에는 꽁바웅 왕조 시대가 열린다. 이 왕조는 미얀마 역사상 세 번째 통일 왕조이자 마지막 왕조다. 꽁바웅 왕조를 끝으로 미얀마는 식민지 통치의 질곡에 놓이게 된다. 이 왕조 역시 이전의 왕조와 같이 불교진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일반 대중에게까지 불교가 널리, 깊이 보급됐다.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도 재건됐으며 불교전적을 미얀마어로 번역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활발히 일어난다. 특히 디가 니까야(D?gha Nik?ya) 등의 경장의 주석서가 이 시기에 번역된다.

이 시기 스님들이 마을에 들어갈 때 복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크게 인다. 양쪽 어깨를 모두 감싸는 통견(通肩)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偏袒)의 문제가 대립됐다.

결국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종교회의가 1788년에 개최되고, 두 파는 논쟁 끝에 통견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거리 탁발을 나가기 전 감독 스님이 한사람 한사람 통견하는 등 위의를 점검하고 있다.

꽁바웅 왕조 시대에는 사찰 내에서 불교 외에도 춤과 무용, 점성술, 안마술, 승마술, 무술 등도 가르쳤다. 특히 인도에서 많은 산스끄리뜨 문헌이 전해져 일반대중들도 사찰에 오면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스리랑카와의 불교 교류다.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왕명에 의해 상류계층 만이 구족계를 받는 출가가 허용됐다. 하지만 왕명에 반발해 출가를 하고 싶은 하층민들은 미얀마에서 구족계를 받아 돌아가고자 했다.

1800년 미얀마에 들어온 그들은 왕의 환대와 함께 구족계를 받게 된다. 이들 스리랑카 스님은 구족계를 받고 1802년 다섯 명의 미얀마 스님들과 함께 많은 빠알리 전적을 가지고 되돌아갔다. 특히 미얀마 교단이 스리랑카 교단의 대표인 승왕(僧王: sangharaja)에게 전하는 서신을 가지고 귀국했다.

이후 스리랑카에는 그들에 의해 새로운 상가가 생겼는데 이 상가가 바로 '아마라뿌라 상가(Amarapura Sangha)다. 현재까지 스리랑카 불교의 한 종파로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불교 교류가 가능한 것은 지난번에 다뤘듯 1192년 미얀마의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아 미얀마에 상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 상좌불교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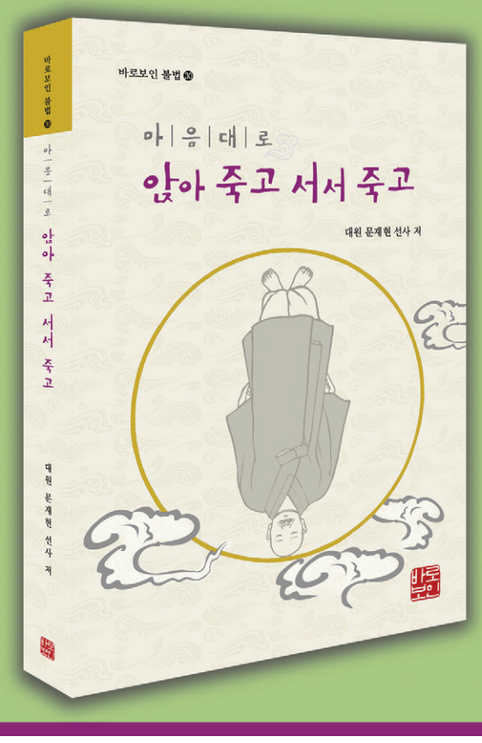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 010-9043-1016 바로보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 30종 / 59권



전질 구입시 20% 할인입니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1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웅변적 강의… "의역하면 불조 뜻 어긋나" 직역고집



方山老의 無影樹 〈15〉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월주 스님



월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영화사 회주, 금산사 조실

청담 스님 "탄허 종보적 존재"
동국대 강의 때 명사들 청강
틈만 나면 참선…모든 것 禪으로 귀결
교육에 지대한 관심 가져

-스님도 탄허 스님과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처음으로 뵈었는가요?

탄허 스님을 뵌 것은 통합종단 출범(1962) 이전, 선학원에서 뵈었고 조계사에서도 뵈었어요. 조계사에서 뵐 때에는 여름의 오후였는데, 조계사 주지인 양청우 스님을 비롯한 열 명의 스님과 법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실 때였지요. 그 무렵에도 스님은 대학자로 알려졌지요. 인상은 아주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 스님은 강원도 종무원장이셨어요. 그리고 종회의원이어서 종회가 열릴 때에는 서울에 오시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 내가 뵈었지요.

-1964년 1월, 월정사에 대처승들이 쳐들어와서 비구승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격돌한 이른바 월정사 정화 때에도 뵈었지요?

그랬지요. 그때 대처승들이 월정사로 수십 명이 쳐들어오고 집달리가 와서 집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월정사에 있었던 월탄 스님이 동국대로 와서 스님들이 월정사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동국대에서는 중견 승려 강습회가 열려서 청담 스님도 거기에 계셨고, 문성각(성준)하고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월정사를 갔더니만 밤 아홉 시 정도였고,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희찬 스님을 보니 대처승들과 싸워서 옷고름도 떨어지고 헝겊 끈을 둘둘 말아서 허리를 묶었더군요. 월정사 건물에는 차압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거의 집행당하고 방 한 곳만 남아 있었지요. 내가 희찬 스님에게 집달리가 붙인 차압 딱지를 떼어버리자고 하니까 스님은 벌벌 떨면서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좁은 방에 있으니 무척 갑갑했어요. 내가 희찬 스님의 상좌인가 말사에서 온 젊은 스님에게 귓속말로 문을 열어버리고 당신은 가버리라고 그랬지요. 희찬 스님이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내가 진두지휘를 해서 집행문과 차압 딱지는 그대로 두고, 큰방에서 지내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내려간 백여 명과 거기에 있던 대중 50명이 모두 방에서 강의를 듣고 그랬어요.

-그때에 탄허 스님이 강의하였지요?

탄허 스님은 대중들에게 영가집과 유불선의 비교, 선교의 차이 등을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청담 스님도 능엄경을 강의하였어요. 일타 스님은 잠깐 계율을 이야기하였지요. 탄허 스님은 큰 칠판에 모든 것을 외워서 가득 쓰고서는 그를 강의해 나갔지요. 청담 스님도 탄허 스님 강의를 들으시고 그랬지요. 탄허 스님은 청담 스님의 강의를 듣고서는 능엄경 강의를 높이 평가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청담 스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막상 청담 스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는 강의를 처음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청담 스님도 탄허 스님을 높이 평가했어요.

탄허 스님의 이름이야 많이 들었지만 본격적인 강의는 처음 들은 셈이었지요. 탄허 스님의 실력에 놀라시면서 종보적(宗寶的) 존재라고 하셨어요. 탄허 스님이 주로 강의를 하셨는데, 대중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니 신이 나게 하셨어요. 스님은 유불선을 종횡으로 말씀하시면서 공자, 맹자의 이야기를 섞어 가면서 큰 칠판에 가득 쓰여 있는 한문을 설명하셨지요. 나는 그 전에 청담 스님에게 신심명 · 금강경 · 능엄경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나 사변의 일과 정화운동에 나서는 바람에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였는데, 월정사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은 셈이지요. 그때 우리는 거의 보름 정도를 있었어요. 거기에서 강습한 스님들에게 수료증을 주고 그랬지요. 그리고 원주지원에다가 항고를 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어 놓았어요. 가처분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도 걸어 놓았지요. 그래서 원주지원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월정사 일을 다 해결해 놓고 나왔어요. 월정사 스님들이 살도록 하고 나왔지요.

-지금 말씀은 귀한 증언입니다. 그 이후에는 탄허 스님을 어디에서 만나 뵈었는가요?

탄허 스님이 1966년 경인가 그 무렵에 동국대 대학선원장이었어요. 그때 나는 금산사 주지였는데, 서울에 오면 대학선원에 가서 잤어요. 동국대 대학선원이 본래는 일본 절이었고, 그곳에는 탄허 스님도 머물렀지만 동국대 재단 사무국장을 하던 오법안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오면 거기서 자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지요. 그때에 탄허 스님이 대학선원에서 보조법어를 강의하셨는데, 나도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님이 그때에 동국대 중강당에서 〈금강경〉 강의를 근 한 달간 하셨어요. 나도 그 강의를 거의 들었는데 중강당의 3분지 2가 꽉 찼고, 대통령에 입후보한 오재경, 전진한 선생 등 명사들이 많이 들었어요. 또 관응 스님이 용주사 주지할 때 거기서 포교사 강습회를 열었는데, 그때에 운허 스님, 탄허 스님, 청담 스님, 관응 스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에도 내가 총반장이었지요. 거기에서도 거의 한 달간 강의를 들었어요. 탄허 스님은 해박하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공자, 맹자, 도교도 함께 이야기하시고 마의상법 관상학과 약 짓는 법 등도 보조적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스님은 단순히 경전 해석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보니 운허 스님은 경전 실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전통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다양한 경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조용하게 강의를 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유불선을 다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강의가 웅변적이지요. 탄허 스님은 설통(說通)이에요. 관응 스님도 유불선을 알고, 종교도 알아서 비교는 하지만 이 스님은 강사 성격보다는 포교사 기질이 있어요. 아는 것을 재미있게 가르쳐서, 포교사가 써 먹게 가르쳐 주었어요.

-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많이 배우셨군요?

그렇지요. 나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친 스님은 세 분이에요. 첫째는 우리 스님 금오 스님을 16년간 모시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청담 스님이지요. 청담 스님은 정화운동의 화신이고, 인욕보살이고, 종단정화에 큰 활동을 하셨지요. 그 다음이 탄허 스님이에요. 그리고 속인으로는 이종익 선생에게서 강의를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이기영 박사지요. 이기영 박사가 정화기념관에서 강의를 하면 늘 들었어요. 이기영 박사는 원효 강의를 할 때에 원효 기신론소의 요익중생(饒益衆生)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말에서 큰 자극을 받았지요. 내가 그후에 금산사 주지를 할 때 화엄불교대학을 운영하였는데, 그러면 그 분을 초청해서 특강으로 꼭 모셨어요.

-금오 스님의 비문을 탄허 스님이 쓰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세요.

우리 스님이 1968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비석을 세웠어요. 그 작업의 총책임자는 월산 스님이었고, 실무는 탄성 스님이 했어요. 우리 스님의 비석 만드는 것은 신도들의 시주를 받지 않고, 문도들이 있는 삼사(三寺)에서 돈을 내서 했지요. 탄성 스님이 날보고 탄허 스님과 친하다고 그러니,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원암에 계신 탄허 스님을 찾아가서 부탁했지요. 내가 스님에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국한문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그런 것은 저기 운허 스님에게 가서 부탁하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은 한문으로 된 것만 하신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냥 한문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래서 우리 스님의 비석과 부도를 세웠는데, 늦게 세웠지요. 그리고 그 후에 대원암에 가서 스님에게 휘호를 하나 써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판치생모(板齒生毛)를 써주셨어요. 그것은 전강스님의 화두였는데, 그 유묵은 금산사에 액자로 해서 걸어 두었어요.

-탄허 스님은 1983년에 입적하셨는데, 월정사에서 열린 영결식장에는 가셨나요?

나는 참석 못했어요. 나는 1980년에 총무원장을 하다가, 10 · 27 법난을 겪고 나서 총무원장을 그만두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스님의 부음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때 LA의 반야사 법회석상에서 내가 탄허 스님에 대한 추모담을 말하였고, 또 한 번은 절 밖의 식당에서 신도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탄허 스님은 수행을 많이 하신 훌륭한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추모 묵념을 올리고, 반야심경 한편으로 명복을 빌기도 했어요. 그런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부고를 한 광고에 내가 장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내가 평소에 스님을 존경했다고 해서, 내가 국내에 없지만 누가 넣자고 발의를 해서 넣었다고 그래요. 나는 희찬 스님이 그랬나 그러지요.

-탄허 스님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교재를 다 번역하였고, 월정사와 영은사에서 수도원을 열었지요?

그랬지요. 탄허 스님은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전을 직역으로 다 번역했지요. 그 분은 의역을 하지 않았어요. 의역을 하면 불조(佛祖)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 큰 죄를 진다고 하셨어요. 월정사에 세운 수도원에서 운학 스님이 배웠고, 그리고 소요 스님도 거기에 있었고, 송광사 출신인 한정섭도 거기에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한정섭의 그 시절 이름이 초연(超然)이라고 했지요. 영은사에서는 녹원 스님, 배도원 스님이 있었지요. 비구니인 자민 · 자호 스님도 거기에서 배웠어요. 스님이 수도원을 낸 것은 나도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탄허 스님이 수도원을 열어서 후학을 가르치려 한, 교육도량을 하시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지만, 중간에 그만두어서 효과는 없었어요. 다만 그 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하지요. 그 후에도 월정사에서 화엄산림을 겨울에 하고 그랬지요. 하여간 스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지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월주 스님은 탄허 스님을 어떻게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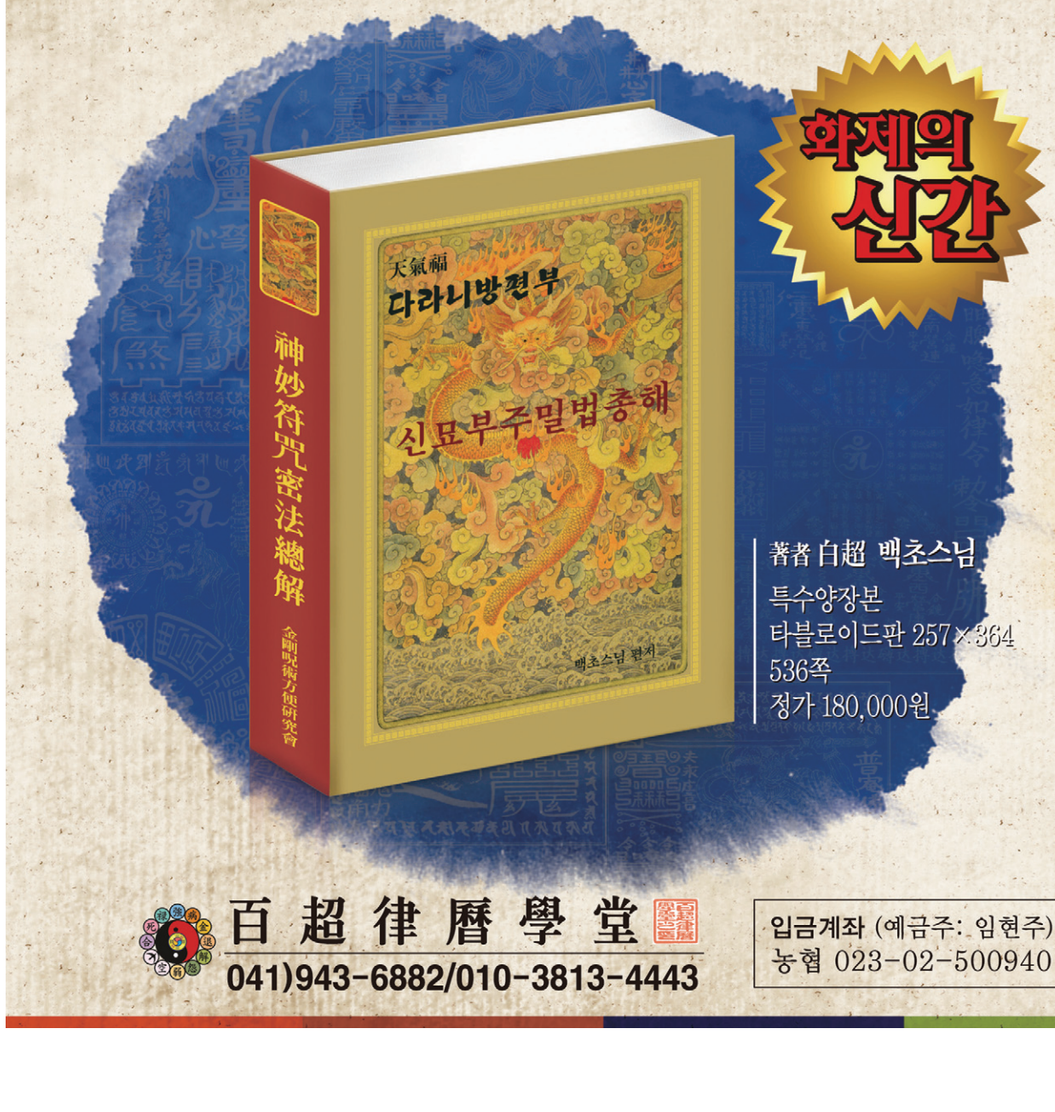
스님은 선교를 겸하신 분이에요. 대강사이시면서도 선을 하신 분이에요. 일타 스님이 그랬지요, 스님은 강의를 안 하는 쉬는 시간에도 딱! 참선을 하였다고 그래요. 스님은 경공부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스님은 본래 한문을 잘 하시고 유교공부를 하시다가 절로 오셨지요. 속가에서 유교를 공부하시다가 한암 스님에게 편지를 내서, 한암 스님의 해박한 지식에 감동을 해서 절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님은 공부를 하시다가 틈만 나면, 앉아 있어도 선에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때에는 기둥을 딱 부여잡고 그랬대요. 이것도 화두를 들고 당신 나름으로 선에 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을 유학자로만 알아요. 유교적인 것이 많다고 비하하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님의 강의를 안 들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스님은 아는 것이 월등하지요, 유교, 불교, 도교, 선리(禪理)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강의 도중에 불교 내전 말고도 공자, 맹자를 많이 말씀하시고 유불선의 비교를 많이 했어요. 강의를 하시다가 주역도 말하고, 조선 중엽의 지사(地師)인 남사고(南師古)도 말하고, 정역(正易)을 말한 김일부도 말하고, 토정 이지함도 말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았지요. 그러나 다른 스님들은 경과 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돌았지요. 한마디로 말해 탄허 스님은 선교를 겸한 분이에요. 유불선에 대해서 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강의 도중에 여러 말씀을 하셨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선(禪)으로 귀결되었어요. 스님은 강의를 할 때에 비교, 대비, 비대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용 못해요. 왜냐하면 경전과 선지만 알고, 아는 것도 단편적이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스님의 강의는 구수하고, 자신있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하셨어요. 스님이 큰 칠판에 한문을 가득하게 외워서 써 놓고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지요. 하여간 스님은 강의하시는 것이 선변(善辯)이고, 조리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선(禪)에다가 귀결시켰어요.

-탄허 스님의 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제시대에는 개운사의 대원강원을 열었던 박한영 스님이 장안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석학이라고 불리던 최남선, 신석초,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다 박한영을 찾아와서 배웠대요. 그래서 박한영의 해박한 지식에 압도를 당했다고 그래요. 천재라는 최남선이 찾아와서 원효의 기신론을 물었더니, 스님이 어느 책의 어떤 대목을 찾으면 나올 것이라고 말하여서 실제로 집에 가서 찾아보니 그 대목이 그대로 나왔다고 하지요. 박한영은 동양학의 천재라고 불리운 것이지요. 장안의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지요. 그후로는 이청담 스님이 장안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청담 스님도 선교를 겸하시고, 경전도 알고, 현대적 감각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2~3년을 있어서 일본책도 넉넉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한영 스님이 가신 후에는 청담 스님이 그런 역할을 하였지요. 성철 · 관응 스님도 대단하였지만 이 스님들은 산속에서만 있고, 서울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서울에 계신 청담 스님이 장안 지식인들을 상대해 주었지요.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청담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청담 스님이 돌아가시고, 탄허 스님이 서울에 머물게 되니까 장안의 지식인들이 전부 탄허 스님을 찾은 것이지요. 탄허 스님은 유불선과 주역, 미래 등에 대해서 달통하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운이 앞으로는 동양의 운이 될 것이고, 한중일 삼국 중에서 한국이 일등국이 된다고 말하고, 학자들은 종지를 갖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로는 박한영, 이청담 후에는 탄허 스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선우휘나 동아일보의 김중배가 스님을 찾아왔어요. 선우휘 선생과 대담한 것이 조선일보에 몇 차례나 크게 나오고 그랬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화제의 신간

새로운 비방법! 더욱 강력해진 방편술!
일체 마장을 소멸시키고, 고통받는 인간 만사를
단번에 풀어내는 방토법 대공개합니다.

天氣福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180,000원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百超律曆學堂
041)943-6882/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업에 의해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된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2〉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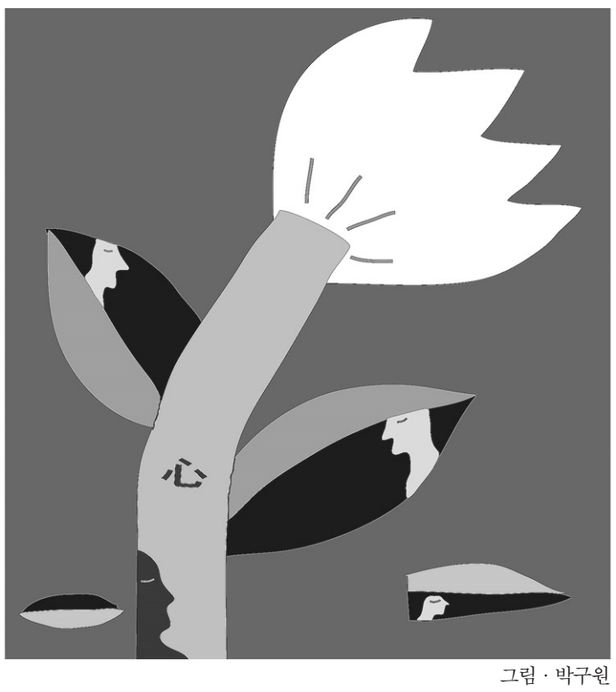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무시(無始)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아, 다른 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등각(正等覺)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성취해야 할 정등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그림자에 나가떨어지지 않는다. 일체 그림자를 만들기는 하지만, 본래 그 자리에는 한 그림자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즉(?)’이란 무슨 도리입니까?”

“너는 무슨 도리를 찾는 것이냐? 어떤 도리라도 있다면, 곧 본래의 마음과는 어긋난다.”

찾고 구하니까, 어긋나는 것이다. 내버려두면 사용해온 그대로 흘러갈 것인데, 무엇이 더 있다고 허망한 짓을 할까. 이런 법문도 배휴가 깨달았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무기(無記)에 떨어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지레를 한다. 배휴가 근본 실상을 봤다고 보기 때문에, 황벽 스님도 찾고 구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굳이 ‘즉’이라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네가 만약 범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에게 ‘즉’이라 말하겠는가? ‘즉’이 만약 ‘즉’이 아니라면,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다. 만일 마음과 ‘즉’을 모두 잊으면, 네가 더 이상 어디로 찾아 나서겠는가?”

처음부터 찾고 구하는 것이 없다면, ‘즉’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찾고 구하고 범 · 성을 나누는 상대에게 말로 설명하려고 빌린 표현이 ‘즉’인 것이다.

본래 성품자리 ‘범·성’ 없어
그 도리 깨달아야 속지 않아

‘이심전심’ 이란
말로 표현한 인연의 흐름
마음은 전해 줄 수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무엇으로 망념을 쫓나”
“없애려 하면 그 또한 망념
망념은 본래 뿌리없으나
분별때문에 생긴다”

‘범·성’에 집착 않는다면
망념은 자연히 사라져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라고 했지만, 마음은 전해 줄 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연의 흐름을 말로 표현한 것이 “주고받다”일 뿐이다.

배휴가 여쭈었다.
“망념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다면, 무엇으로써 망념을 쫓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다. 반면, 공부된 사람은 망념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자기 안에서 계속 그림자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지식에게 묻는 것이다.

“망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면 그것 또한 망념이 된다. 망념은 본래 뿌리가 없지만, 다만 분별 때문에 생긴다. 네가 다만 범 · 성의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사라지는데, 어찌 그것을 떨쳐 버리려 하는가? 털끝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내가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다.”

한 생각 일으킨 것이 천차만별의 모양을 만들어냈다. 상대적인 차별을 벗어던지고 양변을 버리면, 망념은 본래 없는 것이다. 버리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지만, 이미 분별해서 일어난 입장에서 ‘버린다’는 말을 빌려 쓰는 것이다. 두 팔을 버리고 부처를 이룬 이야기는 〈법화경〉의 ‘약왕보살본사품’에 나온다. 약왕보살의 전신은 일월정명덕 부처님께 두 팔을 태워 공양 올리면서 부처가 되리라 서원했다는 치열한 구도담이다.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받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마음으로 서로 전한다면, 어찌 마음 또한 없다고 하십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마음을 요달하면, 곧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것은 유 · 무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양을 드러내기도 하고, 싹 쓸어서 없애버리기도 했다.

“마음도 법도 없다면, 어찌하여 전한다고 하십니까?”
“너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얻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조사께서는, ‘마음의 성품을 깨달을 때, 불가사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끝내 무소득이니, 얻을 바가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다. 만약 이 일을 그대가 알게끔 일러준다 해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역대 조사들이 전해주고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인가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가 본 성품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힘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전해주고 받는 일에 어리석게 마음 쓰지 않는다. 시간에 맡기고 지내다보면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동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다. 스스로 찾아가도록 흐름에 맡기되, 그때그때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살면 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⑫



저는 이제 기꺼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관무량수경〉

시대와 신심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토신앙은 현대인들에게는 믿고 행하기 어려운 법문인 것만 같다. 정히 정토사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정토신앙에서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불러서, 혹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음으로써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야말로 행하기 쉬운 길(易行道)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난행도(難行道)로 인식되는 것일까? 현대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는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되어야 비로소 믿는다. 2 더하기 5는 7이다. 이런 수학은 그러한 합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될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분별이야말로 현대를 낳은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사후에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는, 이런 말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서 ‘그렇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극락에 가봐야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살아있으면서 사후의 극락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사후의 극락세계를 말하는 정토신앙이 난행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저 옛날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지옥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이토록 업이 많은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면서 벌벌 떨었다. 남쪽으로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관세음보살의 보타락가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곳에 가려고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갔다.

현대에 이르러, 결국 우리는 그러한 ‘신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분별’을 얻은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더 행복해진 것일까? 저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심, 그 마음을 나는 ‘중세의 마음’이라 불러본다. 그런 ‘중세의 마음’이 새삼 그립다. 그 속에서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맨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 ‘중세의 마음’이 현대인들의 갖가지 병들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닐까.

정토사상의 어머니

〈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을 정토삼부경이라 부른다. 성립사적으로 볼 때나, 사상적으로 볼 때 〈무량수경〉이 출발점이 된다. 〈아미타경〉은 〈무량수경〉을 요약한 것이라 말해서 좋으리라. 그럼 〈관무량수경〉은 어떤 성격의 경전일까?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포괄하고 요약하면서도, 그 경전들에서 말해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보충하는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락사상의 출생을 알게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정토신앙을 낳은 어머니는 무엇일까? 〈무량수경〉 하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현세의 고통이다. 이를 〈관무량수경〉에서는 극적인 이야기로 제시한다.

아사세는 아버지 빔비사라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패륜(悖倫)을 범하였다. 옥에 갇힌 남편을 위하여, 몸에 꿀을



그림 · 박구원

발라서 먹게 한 것이 위제희 부인이다. 아사세는 그러한 어머니의 행위에 분노하여, 어머니를 죽이려 하다가 “아버지를 죽인 왕들은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를 죽인 왕은 없다”는 충언을 듣고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둔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위제희 부인은, 왕궁의 감옥에 출현하신 부처님 앞에서 서원한다. “고뇌가 없는 곳으로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위제희 부인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극한적 고통 속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역시 그러한 고통이 없는 또 다른 이상세계를 그리워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비원(悲願)이 바로 정토신앙을 낳았다. 그러한 원망(願望)이 극락을 믿게 한다. 만에 하나, 정말 극락이 없다면, 극락을 만들어서라도 그 ‘섬’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이러한 고해에 태어나고 싶은 것일까? 극한의 고통은 극한의 기쁨을 꿈꾸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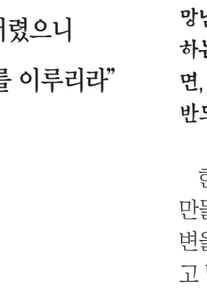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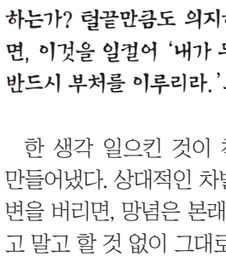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추사가 초의에 보낸 편지

“고통을 돌려 즐거움 삼으니…”

입과 코의 풍기와 화기로 고생
“고해는 업에서”… 인과 초월한 듯
두 벗의 자유로운 거량 ‘감동’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에 온 인편을 통해 추사는 초의가 보낸 묵은 편지를 받았다. 초의가 어떤 낭보를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벗에게 온 편지는 철이 지난 묵은 편지일지라도 추사의 답답한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시원하게”만들었던 듯하다. 〈완당전집〉 ‘여초의’ 21신에 수록된 이 편지는 실제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 알려지지 않다가 〈벽해타운첩〉이 발굴된 후, 그 시기가 소상하게 밝혀진 셈이다. 따라서 추사는 1843년 12월 쯤 초의의 편지를 받고, 다음 해인 1844년 1월 24일 초의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쓴 것.

마침 뭍으로 가는 인편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정감어린 답신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산중의 세월도 세속처럼 새해로 바뀌는가.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하여도 세월이 변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섣달에 보낸 묵은 편지를 받고, 오히려 위로되고 시원해졌습니다. 봄철 이후 스님의 수행도 길하고 이로우며 묵은 병도 쾌차해져서 가는 곳마다 가볍고 편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조급한 원숭이일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번뇌가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입과 코의 풍기와 화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이처럼 성하게 일어나니 고해(苦海)의 광경은 본래 자신의 업연 속에서 나오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고통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으니 그대처럼 작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래에 조금씩 수련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대가 만약 이 병이 있다면 그대들이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추사의 편지.

(善悅輩) 어떻게 짧은 시간에 안정시키겠는가. 하하, 마침 인편이 있어 대략 말씀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1844년 1월 24일 늑편(山中日月亦與世間回新歟 自有不變者存 又無論於時遷月化也 前臘獲見過時之書 尙以慰瀉 即問春後禪履吉利 夙恙夬和隨處輕安 躁猿不動無他煩惱 殊可念念 此狀口鼻風火不能降伏 如是熾作 苦海光景 本自是業緣中頭出頭沒 但不爲其纏繞 轉苦爲樂 不如師之小不忍 是近日稍得工煉處 師若有此病 善悅輩何以一刻耐定也 呵呵 適因略申 姑不戩 甲申 元月 二四日 泐便)

당시 정월 24일이면 막 경칩이 지났을 터. 봄기운이 완연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가 “묵은 병도 쾌차해져서”라고 한 것은 초의가 지난 해(1843) 제주에서 말을 타다가 다친 것을 염려한 것이다. 따라서 “가는 곳마다 가볍고 편안한지”를 물은 것이다. 이런 저런 공연한 걱정이야 “조급한 원숭이일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번뇌가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벗의 안부가 마음 쓰인 듯하다. 추사 또한 입과 코가 헤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처지였지만 세심한 마음씀씀이가 돋보인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조금씩 수련으로 단련된 추사의 심신은 “고해(苦海)의 광경은 본래 자신의 업연 속에서 나오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니 그는 해탈에 든 것인가. 더구나 업의 인연을 끊어 “고통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한 추사의 경지는 분명 인과를 초월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초의 주변사가 난마처럼 얽힌 실제의 사연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사 자신은 “그대처럼 작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 분명 이 말은 희언(戱言)이었겠지만 서로의 격려가 이처럼 빛난다. 실로 초의의 수행력으로 작은 것을 참지 못할 경계가 무엇이겠는가. 호학(好學)을 유영(遊泳)한 세속의 유자(儒者)도 이미 지천명(知天命: 50세)을 지나 이순(耳順:60세)의 초입에 다가섰다면 와유(臥遊)의 자유로움이나 유어예(遊於藝)를 넘나들 터. 두 벗의 거량(居量)이야,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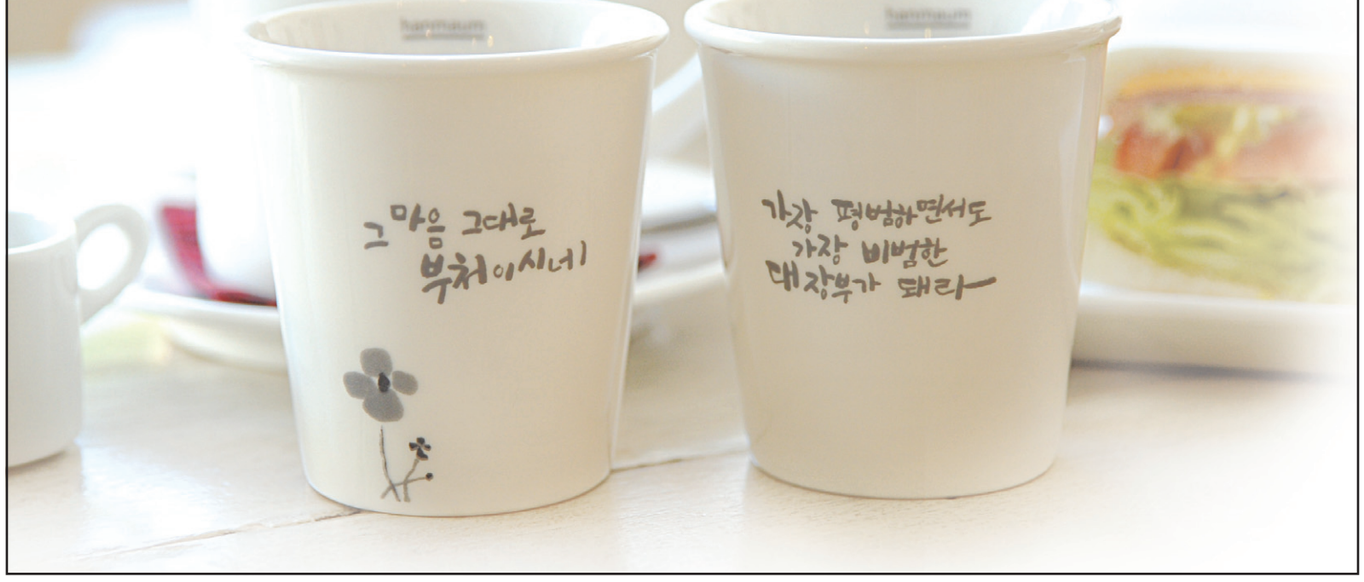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법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낱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법어내용 ◁
1. 마 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회 위한 승가변화 ‘부처불교’ 평생 숙제

현고 스님 (광주 원각사 회주)

22살의 전라도 청년은 불교를 전혀 몰랐다. 수학여행 외에는 사찰에 간 적이 없었고, 학창시절 교과서에 수록된 불교 철학과 역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전부였다. 당시의 청년에게는 불교는 변방의 어떤 것이었다.

대학 2학년을 휴학한 청년은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승보사찰 송광사 금강여관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청년은 식후 운동 삼아 산내 암자인 감로암을 찾았고, 그곳에서 구산 스님을 만났다.

청년은 돌연 호기심이 들었고 이내 구산 스님에게 당돌한 질문을 던졌다. “방대한 우주 가운데 사람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묵묵히 함께 걷기만 했다. 그러던 중 터진 일갈. “이놈아! 허공 안에 네 우주가 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왔던 세계관이 부서지는 충격이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 이틀 만에 짐을 싸 송광사로 갔다. 그리고 구산 스님을 은사로 무명초를 자르고 먹물옷을 입었다. 입신양명을 인생의 최대 목표 삼고 있던 청년은 한눈 팔지 않고 꼬박 43년을 출가의 길을 걸었다.

출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초여름의 문턱에서 만난 현고 스님(광주 원각사 회주,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은 구산 스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술회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자신의 출가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것은 그 만큼 출가가 삶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구산 스님의 일갈은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의 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출세지상주의, 1등주의에 빠진 내게 스님께서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주체적인 삶이 무엇이냐’고 스님께서는 내 안에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출가 이후 모든 과정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체제와의 충돌이었다. 당시 20대 햇중이었던 현고 스님에게 절집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였다.

“행자할 당시만 해도 사중 경제가 좋지 않아 기와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지붕이 매번 새는 더군요. 비가 새면 양동이를 대서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물이 튀어 사방에 곰팡이가 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근본을 다스리고 하셨는데 정작 가르침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다면 기와를 수리하던가 교체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양동이를 대는 것은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 않습니다. 스님들을 보니까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더군요.”

이런 가치충돌에서 오는 문제의식들은 스님의 출가 생활에서 가장 큰 고뇌였다. 출가 당시에도 기존에 지닌 시각과 가치관에 역전이 일어나 발심했듯, 스님이 사중 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문제의식은 ‘불교 개혁’이라는 화두로 바뀌었다.

‘불사의 달인’이 되기까지

‘불교 개혁’을 화두로 현고 스님이 두각을 보인 것은 사찰 불사다. 27살 당시부터 직접 포크레인을 운전해 골재를 채취하고 송광사 밑에 여관과 상가를 만들었다. 1976년부터는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며 사중 일들을 처리했다. 당시 승풍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달랐다. 시주물을 아끼고 검소하게 사는 게 스님의 역할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삼보정재를 바로 쓰는 것이라고 봤다. 버스, 택시, 자가용 별로 차비, 시간 등 비교표를 만들어서 어른 스님들께 보여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른 스님들 역시 “정서상 맞지 않지만, 이치에는 맞다”고 암묵적 허락을 내렸다.

스님의 추진력은 송광사 사중 불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976년부터 송광사 목욕탕, 종각 불사를 도왔고,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중창불사 도감을 맡아 송광사 대웅전 불사를 지휘해 여법하게 복원했다. 그 후로 스님을 손을 거친 사찰 전각만 180채에 이른다. 낙산사 복원 불사에도 참여해 화마로 사그라진 낙산사를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많은 불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스님의 답변은 분명했다. “한국불교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품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중창불사를 하면 원형을 훼손하며 왜곡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이유가 있겠지만 불사는 처음 지었던 감성과 미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조화가 되고 다양성도 생깁니다. 옛 시절 사찰 건축을 담당했던 장인들은 죽을 먹으며 무딘 연장을 가지고 불사를 해냈습니다. 그곳에는 그분들의 원력, 순수와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고려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찰 불사는 어디였을까? 스님은 자신이 도감을 맡았던 ‘낙산사 복원 불사’라고 밝혔다. 사실 낙산사 복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 기초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유구를 중심으로 김홍도의 ‘낙산사도’와 비교해 건물을 배치했다. 건물의 세부적 사항은 영동지방 국보 건축물들의 초를 모본으로 해서 복원했다. 모두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이뤄진 것들이다.

“한국 사찰은 소박하고 지형지세와 조화돼야 합니다. 산세가 유연하면 그와 어울리게 여성적 느낌을 살려야 하죠. 낙산사 주변 설악산은 남성적이지만 절이 위치해 있는 산과 관음도량이라는 이미지를 고려해, 전각들이 작고 부드럽고 여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불사도 연기법입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교 개혁 사례 템플스테이와 복지

불사를 통해 이루려 한 ‘불교 개혁’은 문화 분야에서도 이뤄졌다. 바로 템플스테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찰에서의 숙식을 통해 한국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이끌려 시작한 템플스테이를 전문 부서 설립 등의 외형을 키운 것이 현고 스님이다.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다. 적지 않은 스님들이 “스님들을 밥 장사 시킬 일 있느냐”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타당한 지적이였다. 콘텐츠가 없다면 기존 수련회와 다를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확고했다. 대한민국에서 전통문화의 원천소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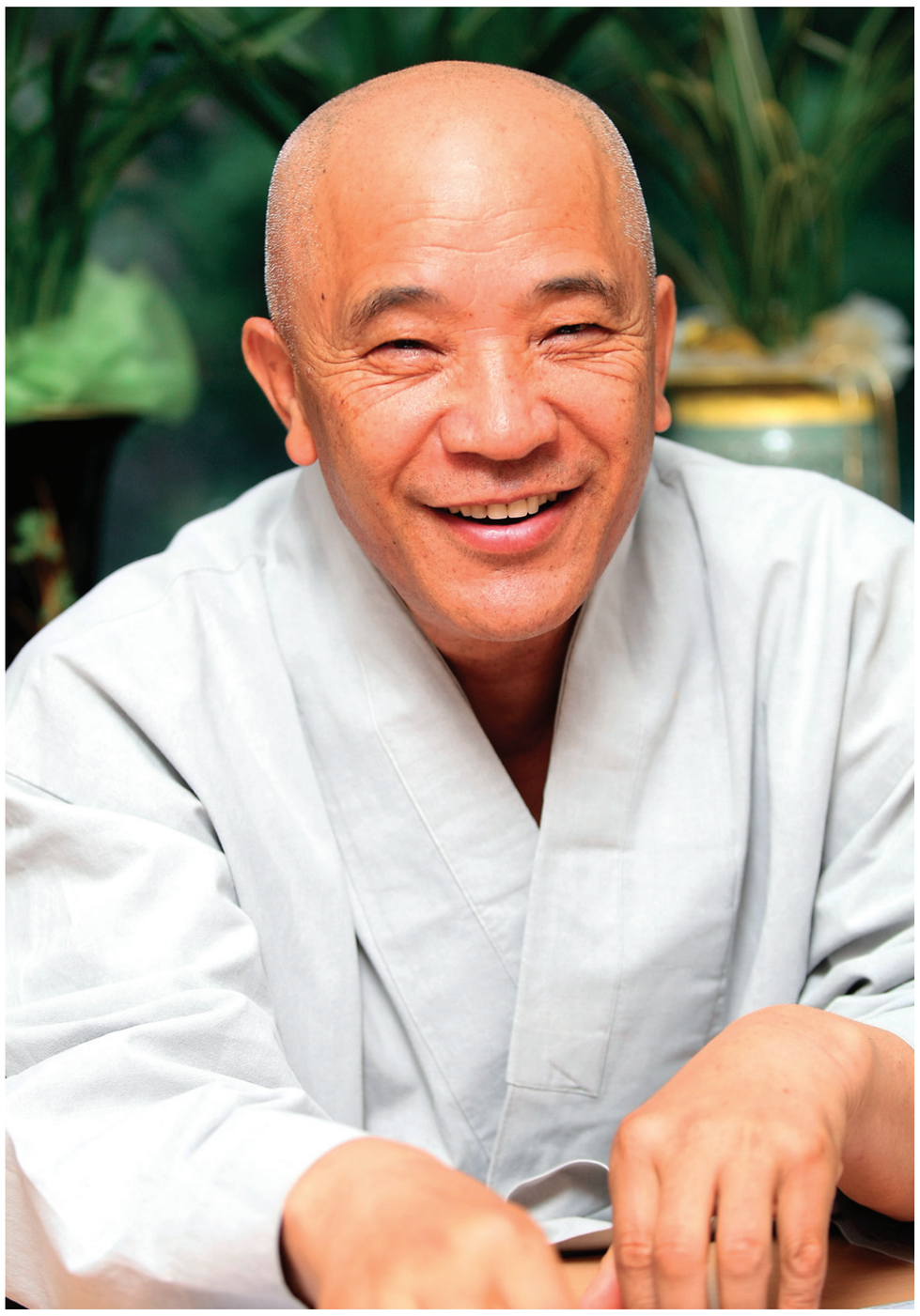
“낙산사 · 송광사 등 불사 통해
내 손으로 지은 전각만 180채”
한국 전통 아름다움 지킴 ‘발원’
전남문화재硏 설립해 콘텐츠 발굴

20대 故 구산 스님 만나
출가 인연… 가치관 변화

템플스테이 탄생 이끌며 문화불사
현재 전남 · 광주지역 복지 선도
대중참여 유도할 개혁사업 필요



올해 5월 6일 열린 송광실버하우스 환우 위문공연에서 현고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현고 스님은 … 1950년 태어난 현고 스님은 1971년 10월 15일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5년 4월 15일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1년 10월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수도암, 해인사 등에서 안거를 하며 마음자리를 닦았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중창불사 도감을 맡았으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송광사 주지를 지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기획실장, 종책특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 종단 주요직도 두루 역임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회장, 경실련 전남협의회 상임대표, 주암호보존협의회 대표이사 등 다양한 사회 실천 활동도 펼쳤다. 현재 광주 원각사 회주와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대표,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누가 뭐래도 '불교' 였고,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불교 문화를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스님역시 이에대한 중요성을 알고 2000년 전남문화재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운주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콘텐츠을 개발하기도했다.

"문화는 창조적 상상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정체성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템플스테이죠. 불교 개혁 사례 중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시행 10년을 지난 템플스테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웃종교인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템플스테이는 아쉬운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찰 불사와 문화를 거친 현고 스님의 불교 개혁은 최근에는 지역 복지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미 1993년 송광사 주지를 살면서 시작한 복지사업이지만 2005년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현재 광주 바라밀실버하우스, 순천 송광실버하우스, 화순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20개 기관을 법인을 통해 운영 중이다. 종사자 수도 240여 명에 달한다. 개신교세가 압도적인 호남에서 보기 드문 성과다.

"전 불교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자비' 라고 대답할 겁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자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도 좋은 일을 하고 스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 콧물을 닦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비의 구체적 실천은 복지입니다. 복지를 한다는 것은 자비가 있다는 말이고, 자비가 있다면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불교 개혁' 입니다."

조사불교 아닌 부처불교를 위해

스님은 인터뷰 내내 자신의 궤적 전부를 '불교 개혁' 에 포함시켰다. 태생이 게으른 자신은 불교를 만나 불행해졌지만, 행복한 불교를 위해 끼니를 거르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했다고 했다. 그만큼 스님은 아직도 '불교 개혁론' 을 갈망하고 있다.

"1600년 한국불교사를 보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성공한 사례는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정도일 것입니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재정립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대의 불교정화운동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불교에 대처승 종단이 더 많습니다. 50개 종단 중 청정비구승단을 표방한 건 조계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밖에 안됩니다. 계속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론과 논리만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생각하는 '불교 개혁' 은 무엇일까. 스님은 '구체적 실천성이 담보된 부처불교' 라고 단박에 대답했다.

"불교에는 일반 대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전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보여줘야 변화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불교의 이미지는 기복적, 미신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인격의 완성자로서의 부처를 심어준 것이 아니라 부처 귀신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절대신을 해체시켰지만 다시 절대신의 대리로 부처님이 앉혀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로 부처를 내려놓는 게 개혁입니다. 제 최종적 지향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불국토 건설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원형성을 찾아야 합니다. 조사불교가 아닌 부처불교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제 스님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그간의 사업들을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모두 '출가 수행자' 라는 자신의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도 '불교 자립' 에 대한 끊임없는 사업들을 이야기한다. 그만큼 '불교 개혁' 에 대한 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스님의 불사는 아직 '현재진행형' 이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총무원 총무부장 재직 시절 현고 스님. 사진왼쪽은 2005년 태풍 나비의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센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전법일기

도반 스님이 권유한 김장행사

자비의 김장나누기 ①

김장은 우리절의 연례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다. 참가 인원으로 본다면 부처님 오신날이나 봉축음악회가 있지만 투입되는 인력이나 일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러니 김장에 대하여 할 말이 좀 많겠는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싣는다.

내가 보성선원에 부임해 온 지 반년 쯤 지난 2008년 가을, 4촌 사형인 현명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제주시에 삼광사라는 절을 창건하여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스님이다.

"절 운영은 어떻소?"

"뭐, 별일 없이 세 때 기도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절에서는 5년 전부터 김장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도 한 번 해보지, 그래."

김장 나누기라면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명 스님의 말이 이어졌다.

"우리 삼광사에서는 300통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나눠주는데 그거 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니까 좋고, 우리절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좋고, 신도들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좋고, 무엇보다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당시는 우리절이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많은 김장을 담그는데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구요?"

"스님도 알다시피 우리 절집 불사라는 게 다 절로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시작만 하면 저절로 돼요. 내 말 믿고 한 번 시작해 봐. 대구는 신심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곳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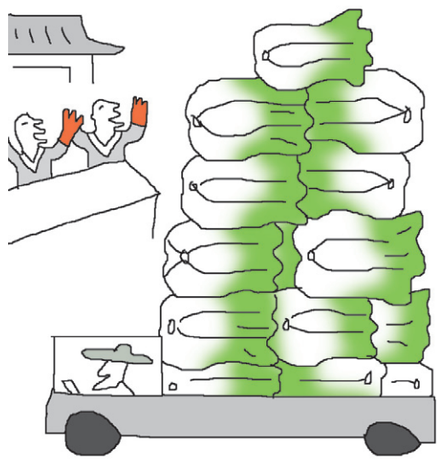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2008년 권유로 김장행사 열어
크고 작은 인연 모여 3100포기 김장

"배추랑, 무랑, 고추랑… 그것 말고도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충당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성선원 신도들은 스님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까? 여긴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김장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거짓말 아니니까 내 말 믿고 시작해 봐요."

현명 스님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신도 대표를 만나 김장 나누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도들은 일이 많을 것을 우려하면서도 내 말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참 착한 신도들이다.

문제는 배추였다. 신도들은 해남 배추가 가장 좋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건 겨울을 지나면 물러지는데 비해 해남 배추는 해를 넘겨도 여전히 아삭거린다고 하였다. 해남이라면 내가 5년이나 살았던 곳이 아닌가. 거기엔 아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스님 생활을 하다가 환속하여 배추 농사를 짓는 무여 거사가 있었다. 무여 거사에게 전화하여 취지를 설명했더니 좋은 일이라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해남에서 배추를 실어오겠다고 했더니 신도들은 자신들도 사겠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결국 3천 포기를 실어와서 일부를 팔고 나머지로 김장을 담가 이웃돕기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1천 포기를 실어오나 3천 포기를 실어오나 운송비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2008년 12월 3일, 배추를 실은 트럭이 큰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큰길로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배추 3천 1백 포기는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그 큰 트럭에 가득 실린 게 다 배추였다.



우여곡절 끝에 절 마당으로 옮겨진 배추는, 이름 그대로 산(山) 만했다. 우리절 김장 불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돈황 석굴, 디지털로 다시 태어난다

천 년 전 불심, 예심으로 빚어낸 돈황 석굴이 디지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AFP는 27일 "돈황 석굴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돈황 아카데미(Dunhuang Academy)가 지난 2000년부터 미미 게이츠(Mimi Gardner Gates)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돈황은 중국, 그리스와 로마, 이슬람 그리고 인도의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곳"이라고 강조한 미미 게이츠(前 시애틀 예술박물관장)는 "역사 · 미술학자들이 '역사가 이곳에 있고, 예술도 이곳에 있다(History is here, art is here)' 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곳이 돈황"이라며 "돈황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석굴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벽화들이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미미 게이츠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부친인 윌리암 게이츠(Willam H. Gates)와 1996년 결혼했다. 이는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참여한 배경이다.

AFP는 미미 게이츠의 말을 인용, "석굴 암벽은 다량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는데, 석굴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석굴 내부의 습도, 온도, 이산화탄소 등도 함께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석굴 암벽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석굴 암벽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내뱉는 순환 과정이 가속화 되면서 채색 벽화의 훼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에는 불교미술 · 조명 · 컴퓨터 · 영상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6개 팀이 석굴 전체를 컴퓨터 영상으로 옮기고 있다.

내부 벽화 관광객 증가로 몸살…훼손 위기

마이크로소프트사(社) 2000년부터 지원

간쑤 성(Gansu province) 지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돈황 석굴에는 80만 명이 다녀갔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하루 적정 방문자 수는 최대 3000명. 지난해 10월 공휴일에는 하루 18000명이 다녀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광객 수 제한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돈황 석굴 관광객은 내(중국) · 외국인으로 양분되는데, 관광객 수를 제한할 경우 내국인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아이들은 돈황을 통해 옛 지식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 네빌 아그뉴(Neville Agnew · 돈황 아카데미) 박사는 "그들이 성장해 돈황을 직접 방문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그 길이 좁아진다면, 그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돈황 석굴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에는 불교미술 · 조명 · 컴퓨터 · 영상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6개 팀이 석굴 전체를 컴퓨터 영상으로 옮기고 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석굴 내부는 부산하다.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한 클리닝(cleaning) 과정이 진행되면, 카메라 동선을 잡아주는 레일이 설치된다. 열 발생을 최소화 한 특수 조명이며, 이미지 보정 및 저장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도 설치된다. 1400년 전에 그려진 붓다, 보살 등이 밝고 선명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때부터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이 디지털로 환생하는 순간이다.

"1990년대 초 처음 거론 보존 프로젝트는 기술 한계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왕 쑤동(Wang Xudong) 총장은 "돈황 석굴의 벽화는 모두 합쳐 놓으면 4,5000㎡, 길게 나열하면 15㎞에 달하며, 이중에는 높이 3미터에 달하는 매머드 벽화도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보존 프로젝트는 앞으로 4년은 더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돈황 석굴 인접지역에서 돔 형태의 극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10개 석굴에 대한 영상이 돔 극장에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지도자들 퇴임후 불교에 심취

장쩌민, 좌선으로 위장병 치유…리우이환 "가족들이 불교 신자"


장쩌민(江澤民)
前 국가주석


리루이환(李瑞環)
前 정치국 상무위원


궈보슝(郭伯雄)
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퇴임 후 불교와 도교 등 종교에 몰입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중국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은 5월 30일 "현직에 있을 때 워낙 바빠 취미 활동과 여가를 즐기지 못했던 지도자들은 퇴임후에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개인으로 돌아가 종교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불교에 심취한 대표적인 지도자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다. 그는 재임때부터 명산의 고찰을 찾아다니며 고승들과 불법 및 좌선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방명록에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전 주석은 재임중 허베이성의 유명 사찰인 바이린찬스(栢林禪寺)를 방문해 당시 주지인 징후이(淨慧) 스님에게 좌선으로 위장병을 치유한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장쩌민 집권 시절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리루이환(李瑞環)은 최근 출간된 〈견해와 설법〉이라는 책에서 "2008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때 대만 불교계 지도자 성윈(星雲) 대사와 불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신자가 아니지만 어머니와 며느리 등 가족들이 불교 신자"라고 말했다.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불교에 관심이 크다. 그는 지난 4월 11일 숭산 소림사(少林寺)를 방문해 스융신(釋永信) 방장의 설법을 듣고 불교 유적을 둘러본후 소림 무공 시범을 참관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국 불교 쇠퇴는 사원역할 감소

〈종교와 윤리〉 지 토론 진단…승가교육 정비 · 수행 생활화

태국 불교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전체 인구의 95%가 불교도이며, 사방 곳곳에 사원이 들어서 있고, 정신적 지도자인 국왕 역시 독실한 불교도인 태국에 대해 이러한 의문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Religion & ETHICS(종교와 윤리)-Newsweekly〉 지가 24일 '태국불교의 쇠퇴(Decline of Buddhism in Thailand)' 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기사를 게재해, 주목된다.

존 버트(John Butt · Payap University) 교수, 프라 본추이(Phra Boonchuey) 스님, 럭키 세버슨(Lucky Severson · 언론인) 박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사원역할 감소 △물질주의 팽배 △단기출가 외면 등이 20년 사이 태국불교 쇠퇴의 원인으로 진단됐다.

"태국 사회에서 사원의 역할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한 버트 교수는 "과거 사원은 단지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을 올리는 곳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제 사원은 복을 빌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프라 본추이(Phra Boonchuey) 스님은 "태국은 현재 가족계획 정책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젊은 층 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단기출가 전통이 사라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프라 본추이 스님은 "자녀의 수가 줄어든 만큼, 그 자녀의 사회적인 출세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는 단기출가의 전통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럭키 세버슨 박사 역시 "과거에는 많은 소년들이 사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승려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태국의 무료공공 정책이 시행되면서 '탈(脫) 사원'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태국에 가족계획 등 무료공공정책이 시행되면서 탈(脫)사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태국의 승려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태국불교의 변화를 요구했다.

존 버트 교수는 승가 교육이 경전을 암송하는 암기식 위주에서 벗어나, 스님들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방법론(△승가교육 정비)을 찾기를 주문했다.

럭키 세버슨 박사는 "무아의 전통적인 가치가 개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이는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현대화(△수행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소비 문화"라고 지적한 프라 본추이 스님은 "태국불교계는 이에 대해 교리적인 응답을 시도(△교리 현대화)하고, 물질의 덫을 피하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부처님 오신날 '베삭데이' 선포

롭 포드 시장 선언문 발표, 양일 스님 명예회장으로

캐나타 토론토 시가 부처님 오신 날을 공인하고 매년 5월 25일을 베삭데이(Wesak Day, 부처님 오신날)로 선포했다. 캐나다에서 부처님 오신날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인 된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깊다.

온라인불교뉴스인 미주한국불교(koreanbuddhism.us)에 따르면 5월 21일(현지시각)토론토 롭 포드(Rob Ford) 시장은 최근 부처님 오신날을 공인하는 선포문을 발표했다.

캐나다 불자협의회 (Buddhist Council of Canada) 의 제안으로 심의를 거쳐 발표된 선언문에서 롭 포드 시장은 "1999년 UN 총회를 통해 공인된 베삭 데이는 불교인들로 하여금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선의와 헌신의 메시지를 증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불자협의회는 한국사찰인 대각사의 양일 스님이 명예회장으로 있다. 양일 스님은 30년 전 한국불교 불모지였던 토론에서 전법과 포교를 해왔으며 20여


롭 포드
캐나다 토론토 시장

명의 현지인 제자들을 양성하는 등 캐나다 한국불교의 원로로 존경받고 있다.

캐나다 불자협의회 회장인 수완다 수구나시리 교수는 "토론토 시에서 불교를 살아 있는 종교로써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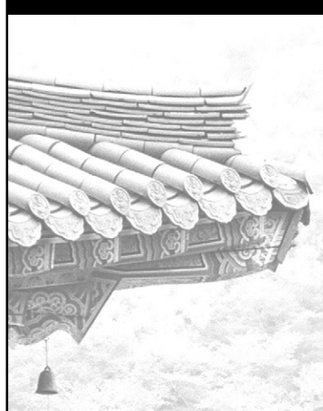
이번 선언과 함께 토론토시는 부처님 탄신일(베삭데이)을 시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

부처님 오신날 선포를 이끈 롭 포드(44) 시장은 2010년 시장에 당선, 커뮤니티 워커로서 구세군 등의 단체에서 다양한 봉사 경력을 쌓아왔으며 취임후 개인 차량세 철폐, 시장실 예산감축 등의 시민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나은 기자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영남범음범패
제2기학인모집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모집인원 : 수시모집
▶교육대상 :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불교회관)
▶문 의 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이런종단이 되고 싶습니다!
맑고 깨끗한 종단...
다 함께 수행하는 종단...
품위와 품격이 다른 종단...
너와내가 아닌 우리 하나되는 종단...
미래 불교에 선두에 설 수 있는 종단...
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禪大韓佛教 曹溪宗
종단 가입문의 (02) 959-1825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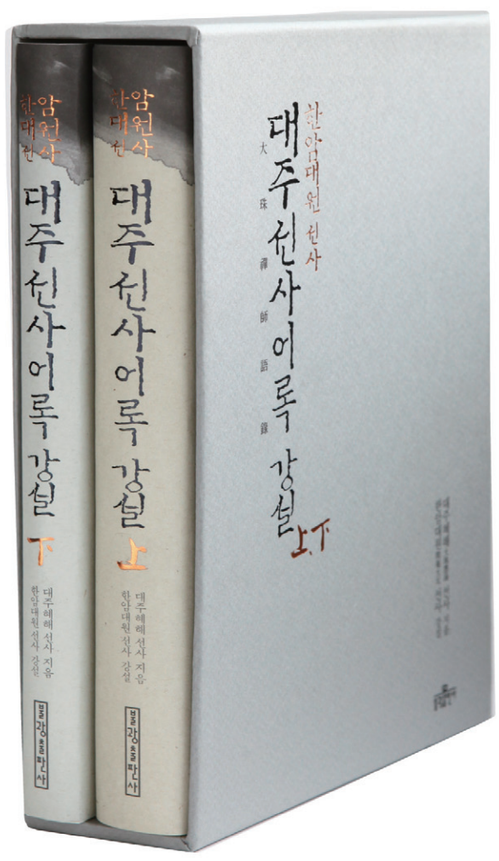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대주혜해 大珠慧海 선사 지음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강설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한암대원 선사
대주선사어록 강설 상·하
大珠禪師語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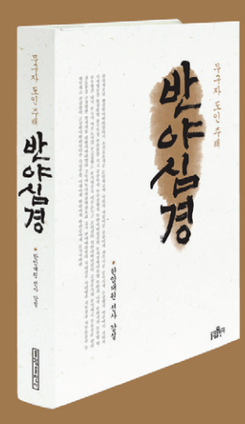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무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수행자들을 위한 지혜의 눈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1998년 11월 동안거부터 2000년 2월 동안거까지 한암대원 선사께서 진행하신 소참법문을 정리한 책이다. '반야심경'은 270자에 불과하지만, 반야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놀라운 경전이다. 이 책은 반야심경의 첫 머리인 '마하'로 시작하여 마지막 '모지사바하' 그리고 후송에 이르기까지 선 수행의 핵심을 '반야심경'과 무구자 도인의 주해에서 뽑아낸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선지식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한암대원 선사의 강설까지 덧붙였다. 무구자 도인의 주해는 속장경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또한 그 원문에 있는 오탈자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를 통해 상세히 밝혀 선수행의 요체에 다가서도록 이끌어준다.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한암대원 선사 강설
456면 | 2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삼귀의’ 빠알리어로 노래하다



정율 스님이 5집 ‘부처님께 귀의하는 노래’ 를 발표했다. 사진은 내지에 실린 기도하는 스님과 어린이들.

정율 스님 5집 앨범 발표

정율 스님이 5집 ‘부처님께 귀의하는 노래’ 를 발표했다. 삼귀의를 빠알리어로 표현한 이번 앨범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하고자 한다’ 는 삼귀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율 스님은 “우리나라 말로 익숙해져 있는 삼귀의를 빠알리어로 표현해 삼보께 귀의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 당시처럼 빠알리어로 찬팅을 하고 있다. 스님은 “각 나라마다 언어의 표현 방법이 다르고 2500년 전 당시와 지금의 사람들도 다르지만 삼보께 돌아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앨범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신심이 절로 솟아나 삼매속에 빠지듯 이 노래의 곡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사부대중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싶어 E&I 중창단과 함께 음반 작업을 했다. 스님은 “중창단과 함께 부르는 중저음의 곡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찬탄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음악을 듣고 잠시 부처님이 살아 계셨던 그 시대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면 어떨까? 정혜숙 기자

만봉 스님 유업 있는 불화박물관 개관

강원도 영월 위치…총공사비 84억원 투입

신원문화재단(이사장 이용국)이 건립한 만봉불화박물관이 5월 28일 개관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건립된 만봉불화박물관은 대지면적 7,687㎡에 연면적 1,853.95㎡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총공사비가 84억원 투입되었다. 신원문화재단은 “불화 단일 박물관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만봉불화박물관은 한국 전통불화의 맥을 계승하고 현대불화 발전에 힘쓰다 열반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만봉 스님의 유업을 잇고자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세미나실, 영상실 외에 7개 전시실에 만봉 스님 작품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불화 작품 20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개관식과 더불어 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높이 30m에 달하는 웅장한 만봉사 대법당과 무게 8톤에 달하는 만봉사 범종도 공개됐다.

만봉불화박물관 최복숙 관장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단순히 불화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불교미술 콘텐츠 프로그램 구축과 수행문화체험, 불화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만봉 스님의 유업을 잇는 만봉불화박물관이 5월 22일 개관했다. 사진은 내빈들의 테이프 컷팅 장면.



템스 제작자 부명 스님



템스는 6월 11일~8월 11일까지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지난해 '이뭐꼬'를 재구성했다. 사진은 출연 연기자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

6인 6색의 신명나는 두드림 ‘템스’ 공연

불교 사물놀이로 펼치는 넌버벌 퍼포먼스

두들겨라 행복이 찾아온다. 경쾌한 타악, 화려한 퍼포먼스로 신명나는 세상의 문을 열어줄 힐링 넌버벌 타악공연 템스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6월 11일~8월 11일까지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개성파 도둑 6명이 산사에서 펼치는 템플스테이를 배경으로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템스는 지난해 부명 스님이 제작했던 공연 ‘이뭐꼬’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넘버블 퍼포먼스라는 기본 콘셉과 사찰을 배경으로 했다는 공통점 등 몇가지 요소만 빼고 극의 상당부분이 바뀌었다고 한다.

“지난해 공연을 올리고 좀더 체계적인 공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공연이었고 혼자서 대본 쓰고 연출하고 제작하다 보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죠. 특히,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데리고 합숙훈련하면서 사물놀이를 지도해 공연을 올렸는데 만족할만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올해는 전문성을 강화해 전문 연기자와 감독을 섭외하는 등 좀더 단단한 극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지난 ‘이뭣꼬’ 공연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큰 가르침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공연 이후 많은 분들이 공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충고들을 바탕으로 공연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죠. 작년 작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님은 기독교의 마리아마리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불교계에도 불교를 대표하는 공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찰을 대표하는 사물의 소리를 대중에게 알려서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2012년 ‘이뭐꼬’ 재구성
8월 11일까지 조계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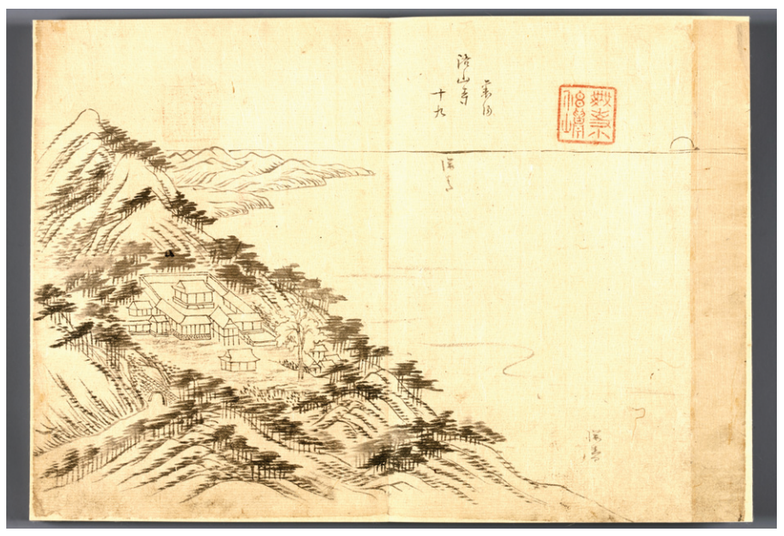
공용구 감독이 연출을 맡아 막을 올리는 템스는 권력, 식탐, 색욕, 미녀, 비관녀, 묵언수행자 이렇게 여섯 명의 캐릭터로 대표되는 주인공과 산사의 주지 스님이 등장한다. 사찰에 숨겨진 금동불상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절을 찾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법고 목어 운판 범종 목탁 죽비와 같은 법구뿐만 아니라 빗자루 놋그릇 등 사찰의 모든 생활도구가 악기가 되어 신명나는 공연을 펼친다.

부명 스님은 “산속에서만 머무르는 가르침, 사찰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로 불교가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다”며 의지를 전했다. (070)8827-010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낙산사가 빚어낸 예술魂의 자취

춘천박물관 ‘관동팔경II-양양 낙산사’ 전



춘천박물관은 6월 30일까지 낙산사와 공동으로 ‘관동팔경 II -양양 낙산사’ 특별전을 연다. 그림은 김홍도의 ‘낙산사도’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6월 30일까지 조계종 낙산사와 공동으로 ‘관동팔경Ⅱ-양양 낙산사’ 특별전을 연다. 강원문화의 원형과 특징을 밝히고자 시작된 관동팔경 특별전은 ‘강릉 경포대’에 이어 두 번째다.

절경을 자랑하는 관동팔경 낙산사에는 신라의 의상과 원효, 범일 스님의 설화가 전한다. 또한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태수의 딸과 사랑이 맺어질 수 있도록 간청하던 조신(調信) 스님 이야기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 〈꿈〉의 모티프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낙산사를 중심으로 시문, 기행문학, 기행사경도 등과 같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왕실과 관련된 유물 및 자료와 함께 관음신앙의 성지인 낙산사의 불교미술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했다.

주요작품으로는 김홍도의 ‘낙산사도’,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사리구, 성화 13년명 입안(立案), 겸재 정선의 낙산사도, 여성 탐승객 금원 김씨의 호동서락기, 고려 수월관음도 등이 소개된다.

특히, 단원 김홍도(1745-1806 이후)가 정조의 명으로 그렸다고 전하는 ‘낙산사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최근 낙산사 복원 때 이 작품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전한다.

여성 탐승객 금원 김씨의 ‘호동서락기’(조선 1850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는 14세 때 남장을 하고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이다. 그녀는 이후 최초로 여성시동인회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를 만들었다고 한다. 성화13년명 ‘입안立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품으로 조선 1477년(성종8) 강릉대도호부에서 낙산사와 상원사에 발급한 문서(立案)다. 예종의 원찰인 낙산사의 소속사찰 규모와 승려를 대대로 유지할 것을 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질푸른 동해를 배경으로 하는 천년 가람 낙산사는 이곳을 방문하는 시인묵객들에게 오랫동안 무한한 영감과 시심을 샘솟게 하는 창작의 원천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정취와 예술혼을 이번 전시에서 느껴볼 수 있길 바란다. (033) 260-1521

정혜숙 기자

창사 40주년 기념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중국산 재생초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산 최고급
양초이며 견고한 상자에 포장되어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수입양초는 박스에
Made in Korea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밀대 ▲돈타레 ▲원기둥

- 밀 대 (70개입) @90,000원 (3박스 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3박스 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3박스 이상)

▲한박스는 100.000원씩 판매 됩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인터넷전화.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법화경 · 금강경 등 금니사경
황금 길상도 스승과 제자 전시

주재호 · 이순자 금니사경전… 6월 12일부터

6월 12일~18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열릴 문정 주재호 · 혜화 이순자 전시회에도 〈법화경〉을 주제로 한 전시다. 〈법화경〉과 28품 변상도 외에〈약사경〉〈지장경〉〈금강경〉〈아미타경〉 등의 금니사경 작품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황금 길상도 60점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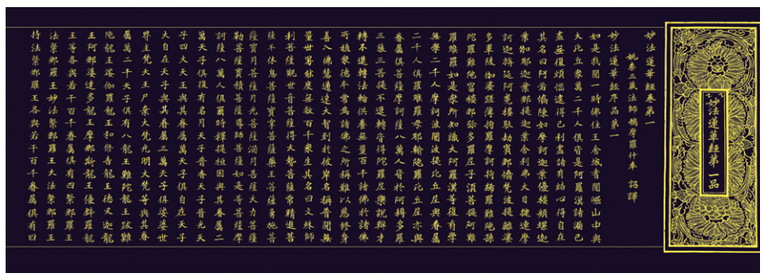
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 주재호, 이순자 작가가 하루 12시간의 작업 끝에 이뤄낸 결과다. 한 자씩 작업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순자 작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싶지만, 막상 하면 홀린 듯 또 하게 되더라"며 글자에 담긴 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화경〉은 7만자를 길이 140미터 장지에 8년을 걸려 완성했을 만큼 방대한 규모다. 주재호 작가는 "일본에서 이미 2년간의 전시(2011~2012, 총 6번)를 통해 현지인인들에게 칭송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될 법화경 2질 가운데 1질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외국에서 무명에 가까운 서예가가 이룬 성과치고 대단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번 전시를 기념해 법화경 서집과 법화경 교본도 함께 발간된다. 전시회기간 중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작품 중 반야심경을 법보시할 예정이다.

주재호 작가는 사경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으며 국전 심사위원, 대구시전 심사, 한국 교육미술협회 서예대전 심사를 맡았다. 이순자 작가는 직지 세계문자 서예대전 대상, 국제유교 서예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02)720-1161

배현진 수습기자



문정 주재호 · 혜화 이순자 작가의 전시회가 6월 12일~18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법화경 작품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신중-불교의 수호신들展

9월 8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중(神衆)-불교의 수호신들'을 9월 8일까지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연다. 조선 후기 신중도와 관련된 유물 27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는 모두 6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신중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석천도를 소개한다. 본래 벼락을 무기로 악마를 정복한 고대인도 신들의 제왕 인드라였던 제석천은 조선 불화에서는 여신이나 귀부인의 형상을 하고 장수와 복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어 천룡도의 주인공인 위태천, 창조신 브라흐마(Brahma)였던 범천, 시바(Shiva)신에서 유래한 예적금강, 사찰의 관문인 천왕문에서 절을 지키는 수문장인 사천왕을 소개하고 마지막 신중에게 비는 마음'에서 신중을 통해 민중이 무엇을 바랐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신중은 부처님이나 보살보다 위계가 낮은 불교의 수호신이다. 인도의 신화와 종교에서 유래했지만, 불교에서 이를 수용해 부처와 그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으로 삼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정혜숙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신중(神衆)-불교의 수호신들'에 전시중인 제석천도.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포수(귀신 문고리)→용 문고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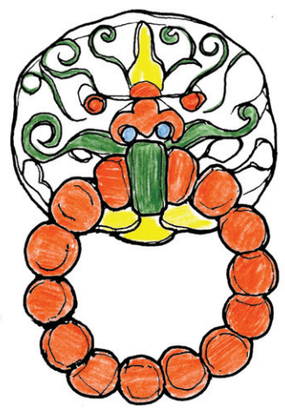
문고리는 '무량보주' 표현



그림①-1



그림①-2



그림①-3



그림①-4

문고리를 자세히 설명하니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문고리도 올바로 알아야 용의 본질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상들은 문고리조차도 영화(靈化)시켰는데 반드시 용과 관련되어 있다. 용의 본질을 간단히 한 마디로 전해 줄 수 없으며, 한 마디로 이해할 수도 없다. 수많은 용의 다양한 조형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용의 본질을 이루며 따라서 인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동양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용의 개념을 정립하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용을 모르면 동양미술의 연구가 불가능한데, 용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학자가 한 분도 없어서 동양미술의 연구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그림②-1



그림②-2



그림③

'용' 연구, 동양미술 이해의 기본

통일신라 초기685년에 세운 감은사의 탑에서 발견한 사리 장엄구의 외함(外函:바깥 상자)이 있다.(그림①-1) '불사리(佛舍利)'라는 존재는 석가여래와 같은 존재여서 그 석가여래의 불신(佛身)인 사리는 경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리 장엄구는 가장 정교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므로 나는 '고대 공예품의 꽃'이라 부른다.

금당의 불세계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사리장엄구이다. 가장 바깥부분을 장엄하는 상자에는 네 면에 사천왕상을 두드러진 판으로 만들어 고정시켰다. 사천왕은 그 안에 있는 불신인 사리를 수호하는 존재이며 솜씨가 뛰어나서 그 당시의 고승이면서 뛰어난 예술가인 양지(良志)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각 면의 사천왕 양측에 용의 얼굴이 있고 용의 입에서 고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주들로 연이어 있다.(그림①-2) 도대체 이 도상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것을 귀면이라고 불렀으며 문고리라고 막연히 불러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이 없으므로 문고리라고 말 할 수 없다. 이제 그 도상을 채색분석해 보면, 보주인 눈에서 긴 제1영기싹이 발산하고 있으며, 콧등에는 역시 보주가 있으며, 코 밑과 입 부분에서 역시 긴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그림①-3) 그러므로 보주들로 연이어 있는 고리 같은 것은 고리가 아니고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무량한 보주들을 나타낸 것이니, 보주들로 환(環)을 만든 것은 고리가 아니고 '무량보주'를 상징한다. 또 하나의 무량보주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의 입에서는 무량보주가 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 문고리가 아니다. 용을 연구하여 온지 10년이 되었는데 오늘 날에야 이 연재를 쓰면서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무량보주를 새삼 절실히 인식하였으니, 여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평생 걸리는 것처럼 용의 본질도 역시 그렇게 평생 걸릴 만큼 표현방법이 무한히 다양하고 상징하는 바가 크고도 크다. '네 면의 각각 두 용면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도상들'이 있으니 모두 용의 여덟 얼굴이 있는 셈이다. 그 용의 여덟 입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즉 사리함 가운데에 봉안되어 있는 사리로부터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문고리에 추상화 된 용의 모습

석가여래의 정수리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는 것은 이미 다른 글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다루지 않는다. 석가여래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발산하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사리함 안의 사리로부터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뿐인가. 사리 바깥 함 꼭대기에도 보주들이 연이는 고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역시 고리가 아니고 사리함 안의 사리에서 무량하게 발산하는 무량보주를 상징한다.(그림①-4)

또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월지 출토 용 고리가 있는데. 역시 용의 입에서 무량보주가 나오는 도상이지만, 사람들은 귀신의 얼굴에 고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니 그 올바른 상징을 알 수 없다. 사리함의 용 얼굴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며 채색분석해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그림②-1, ②-2)

월지 출토의 다른 문고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실제로 문고리를 이러한 도상으로 만든 예가 있지만, 결국은 문고리를 영화(靈化)시킨 것이다.(그림③) 이 투각 영기문을 자세히 보면 그 위 부분이 도 2의 용의 얼굴 위 부분과 같지 않은가. 믿기 어려울 터이지만 이 투각 영기문 역시 용을 추상화한 것이다. 그 주변 둥근 테에 무량한 보주들이 역시 투각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둥근 고리 같은 모양은 고리가 아니고 역시 무량보주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즉 무량한 보주들로 이루어진 무량보주를 단순한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선지식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



한마음과 대행선
혜선 지음
운주사 펴냄
2만8천원

"내가 보는 바로는 근래 한국 불교계에서 그야말로 틀에서 벗어난 이른바 출격의 여장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마음선원을 창설하여 독자적인 '한마음' 선사상을 널리 펴서 일세를 풍미하다가 일 년 전에 먼저 사바세계를 떠난 초대 한마음선원장 묘공(妙空) 대행(大行) 스님(사진 · 1927~2012)이다." 책은 21세기의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인 대행선사의 독창적인 선사상을 조명하고 그의 일평생 행적, 즉 전법 교화와 보살행을 정리한 책이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20세기 후반 한국불교에 신선한 자극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존 제도권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순탄하게 수행의 길을 걷지 않고, 그야말로 무사독오(無師獨悟)의 길을 걸어온 대행 스님이 일약 불교 포교의 돌풍을 일으켰다. 그것도 불교의 전통이 강한 영남권이나 사람이 물려 있는 서울에서가 아니라 불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의 성공이었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다. 생활불교, 현대불교, 세계불교의 기치를 내걸고 그야말로 불교 포교의 기린아가 된 대행 스님은 제도권의 시각으로 보자면 '무학(無學)' 이다.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특정한 수행 체계를 의지하거나 가르침 받을 스승도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널리 펴낸 선사상과 수행 체계,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이 따라 수행 정진하게 한 실천적 지도력은 현대에 맞는 새로운 이정표를 이루는 매우 탁월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자등명 법등명' 의 불교정신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대행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수행과 치열한 고행으로 대행 스님 선사상의 요체가 된 '한마음' 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체득하고 이를 대중 속에서 실천해 나갔다.

책은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연구 정리한 최초의 책이다. 지금까지 선사의 법어집은 다수 출간되었지만, 선사의 삶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독창적이면서 정법에 기초한
대행선사의 '한마음' 선 · 보살사상
제자가 학술적으로 최초 조명

고찰한 책은 없었다. 대행 스님의 제자인 저자 혜선(慧禪) 스님은 기존에 출간된 선사의 법어집과 각종 자료, 그동안 대행 스님을 모시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 등을 토대로 선사의 생애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선사가 주창하는 핵심사상과 그 사상의 배경,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의 의의, '대행선' 의 특징 등을 고찰했다. 또한 대행 스님이 대중 속에서 행한 많은 보살행에 대해 정리하고, 그 배경에 '한마음' 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대행선사의 사상이 독창적이면서도 정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책은 3부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대



행선사와 일심(一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1장에서 초기불교, 한역경전 및 〈대승기신론〉 그리고 천태종 · 화엄종 · 선종에서의 일심사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 전통 속에서 일심(한마음)사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대행 스님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스님의 행장기와 법어집 〈무(無)〉, 대담집 〈한마음〉, 〈한마음요전〉 등 저술과 법어집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제3장 '대행선사의 생애' 에서는 스님의 고단했던 가정사와 어린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했던 십수 년의 산중고행, 그 속에서 깨우친 진리 '한마음' , 마침내 대중 속으로 들어와 펼친 보살행과 포교행 등 선사의 생애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부 '한마음과 대행선' 제1장에서는 한마음의 선사상적 배경, 한마음의 본체와 즉용, 한마음과 조사선사상, 한마음과 불이(不二)사상, 한마음과 오공사상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마음사상은 선사의 핵심사상으로, 선사는 '한마음은 바로 만물이 비롯된 근원이요 돌아갈 고향' 이라고 말한다.

제2장에서는 대행선사의 수증관과 선수행 체계를 살피고 있는데, 수증관은 참선수행과 참나의 자각, 주인공의 관법, 세 번 죽는 수행, 안심법문과 조고각하의 수행으로, 선수행 체계는 본래의 주인공, 결정신의 수행, 방하착과 임운자재, 거듭나는 수행과 무상정등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선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참선수행을 강조하는데, 내면의 주인공을 무조건 믿으며 매사를 내면의 주인공에 맡기고,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제3장에서는 대행선의 특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인 세제선법의 전개,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신행일치의 선법, 그리고 쉬운 용어와 한글로 가르침을 펼쳐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선법의 대중화와 보편화, 그리고 현대화를 이야기 한다.

제3부 '대행선사와 보살행' 에서는 국내외 지원에서 포교 현황, 언론과 저서 등 매체를 통한 포교, 선법가를 통한 포교, 경전의 한글화, 제사와 천도재의 상차림의 간소화,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의 설립 등 불자들이 쉽고 편하게 다가가도록 한 선사의 포교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자는 본 연구가 대행선사의 방대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원력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선사의 한마음사상과 선수행 체계, 즉 '한마음과 대행선' 이 생활불교 · 현대불교 · 세계불교의 기치 아래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여 행복해지고 대자유인을 이루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출간의 의미를 새겼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행복해지고 싶다면…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정승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8백원



우리는 참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멀리 돌이켜 볼 것도 없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보기만 해도 풍족함과 편리함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해 더욱 풍족하고 편리해진 만큼, 우리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졌을까. 책은 자의든 타의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또는 바라는 강도가 셀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은 바라는 것을 줄이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책은 이런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책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달하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이 불교를 표방한 것이라고 해서, 불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르고 있는 종교가 있든 없든, 또 그 종교가 무엇이든, 행복이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말한다. 책의 주제가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다. 책의 요지는 무아를 깨닫고 무심과 하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그것을 얻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한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성취하고 나면, 기대했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 행복을 추구하고 그 결과에 실망하기를 되풀이한다. 이는 애초에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무지한 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탐욕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책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답을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서 찾아 나서겠지만, 그 답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이 발휘하는 독소적 기능을 세 가지로 간파했다. 이것을 삼독이라고 하는데, 그중 첫째가 바로 탐욕이고, 나머지 둘은 혐오와 무지이다. 행복의 허실을 결정하는 일차적 요소가 탐욕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둘도 불가피하게 함께 관여한다. 그래서 삼독의 강도와 행복의 질은 반비례하게 된다. 즉 삼독의 강도가 셀수록 행복의 질은 부실하게 되고, 그 강도가 약할수록 행복의 질은 견실하게 된다. 행복지수라는 것도 띠지고 보면 이러한 삼독의 작용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이다. **박재완 기자**



저자 · 정승석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2 ~ 5/2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민족사
	중도란 무엇인가	틱낫한	사군자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	설우	사유수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대렴이 전한 차씨 '강진 · 해남' 이 아니라 '지리산'

천년의 차향

최석환 지음 | 월간 차의 세계 펴냄 | 3만3천원



천년의 한국 차사(茶史)를 정리했다. 한국 차의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나가면서 한국 차의 기원과 제다의 새로운 사실들을 소개한다.

5천 년 전 신농씨가 차를 발견하고 육우가 〈다경(茶經)〉을 저술하면서 차와 사람은 만남을 이어왔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차가 4대 문화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차문화사는 신라의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들여온 것으로 시작된다. 책에서는 대렴이 당나라로부터 차씨를 가져오기 전 신라의 김지장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차씨를 가져가 중국에서 명차로 자리 잡은 구화불차의 내력을 밝히고 있고, 저자의 노력으로 중국 오백나한에 오른 사실이 밝혀진 무상 선사의 선차지법이 조주의 끽다거로 이어졌고 마침내 원오극근을 통해 다선일미가 일본에 전파된 내력을 소상히



심화령 앞에서 차를 올리는 지민 스님

밝히고 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차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갔을까. 사람들이 차를 앞에 놓고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는 종교, 서화, 문화와 어울리면서 수천 년 간 이어져 갔다.

박영보(1808~1872)의 〈남차병서〉에는 "신라 땅의 사신이 당나라에 들어가 만리 뱃길에 차씨를 지니고 푸른 바다를 건너왔다. 강진과 해남 땅은 푸젠의 나개와 한 가지인데 씨 한번 뿌린 뒤로 내버려 두었다. 봄싹과 가을 꽃을 돌보지 않아 푸른 산에서 자생하면서 일 천년이 지나갔다." 고 밝히고 있다. 이에 책은 "박영보가 대렴이 전한 차씨를 강진과 해남으로 기술한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흥덕왕 3년(828)에 대렴이 중국에서 사신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종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고 적고 있다." 고 적고 있다. 저자는 2001년 10월, 무상 선사가 중국 오백나한 중 455공존자로 모셔진 사실을 발견하고 쓰촨성 공죽사, 나한사, 항저우의 영은사에서 이를 확인함으로써 무상의 존재를 망각 속에서 발굴해 냈다. 또한 한국 차의 전래시기를 놓고 대렴보다 앞선 시기 신라 왕족 출신인 김지장 스님이 구화산 노호동에서 찾아낸 차나무에 대해 도판과 함께 제시하고 있고 우리 제다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구증구포설에 대해서 이유원의 〈임하필기〉의 근거로는 백양사 방장을 지낸 수산 스님의 육성 증언을 통해 7시간에 걸친 구증구포제다법을 복원해 냈다.

천 년의 차향에 담긴 한국 차문화를 밝히려는 작업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어왔다. 애당초 이 책은 2007년 출간된 〈차의 미〉후속편으로 천 년 간 이어진 한국 차문화의 진면목을 미학적 관점에서 담아내려는 시도로 출발했다. 책은 한국 차를 깨우면서 선종을 바탕으로 폭넓게 전개된 한국 차문화사를 정리해 낸 점에서 한국 차문화의 문화적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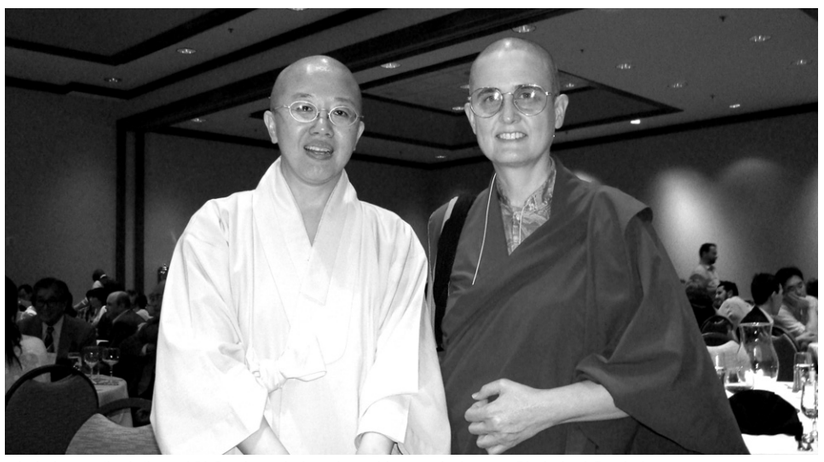


미국 풍토에 맞게 변해… 한국불교 역할은?



미국 부처님은 몇 살 입니까

명법 스님 지음
아름다운 인연 펴냄
1만8천원



워싱턴근교에 티베트 사찰을 만든 안니쿵가 스님(오른쪽)과 IABS 학회서 찍은 사진

"정보통신의 발달로 동시대적 환경에 노출된 동서양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물질문화, 인간소외, 지구환경의 오염 등 많은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 지혜를 기르고 힘을 모아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본지에 '불교와 미학'을 연재중인 저자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과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문학도다. 저자는 대학 시절 누군가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학도거나 경제학도거니 생각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병이 든 환자쯤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박사논문이 통과 된 후 지도교수의 권유로 2007년 겨울, 미국행을 결심한다.

그는 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을까? 스님은 책머리에서 "산문(山門)에 있던 세월 동안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도래했고, 세월 탓인지, 수행 덕분인지,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담대해져 있었다. 미국이면 어떠랴,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라면 그들에게 타자인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세계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자. 그것은 또한 다시 나를 비추는 거울일 테니 말이다."라고 소회를 밝힌다.

미국에서 승려이면서 방문학자라는 조금 특별한 신분은 저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학위과정도 아니고 한인 사찰에 매여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에 있을 때 〈미디어붓다〉에 기고한 〈서양문화에 나타난 불교 코드〉연재 글과 귀국 후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겨울까지 〈법보신문〉에 기고한 〈세계 속 한국불교〉 연재 글 중 일부를 추린 뒤 원래는 계획했으나 메모만 해 둔 글들을 바탕으로 새로 구성한 것이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 음식이 가득 담긴 짐을 끌고 우여곡절 끝에 스미스 칼리지가 위치한 미국의 노샘프턴에 도착한 이야기, 그곳서 지도교수인 피터 그레고리 교수 소개로 혜민 스님을 비롯해 여러 미국 불교학자들을 만난 이야기, 경전을 영역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이야기, 여러 수행 단체를 방문한 이야기 등을 현장감 넘치는 언어로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불교가 아시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국 풍토에 맞게 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출가승단의 부재이다. 사실 미국처럼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세속적 쾌락을 버리고 승가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수행에는 재가와 출가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 불법을 오래 전하려면 출가승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

현지에서 체험한 재미있는 정보도 알려준다. 미국선 대부분의 불교지도자들이 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승가'(Sangha)란 말이 스님이 아니라 일반 불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미국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도 피력한다. 안타깝게도 미국서 한국 불교는 중국과 일본 불교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불교 연구자가 없어 관련 영문서적도 출판되지 않고, 한국 불교가 알려지지 않으니 연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이 책은 미국불교에 대해 우리가 이제껏 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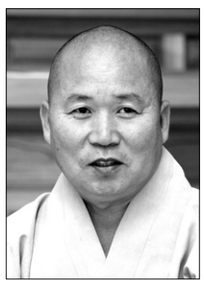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자는 "미국에서 일본 불교가 선점하고 있다가 최근 티베트, 동남아 불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동양에 대한 관심은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어떻게 알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 불교서 영감 받은 경우도 많으며 또 이런 걸 보면 현대문명의 문제를 불교적 측면에서 풀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팔만사천경서 가려뽑은 108개의 감로법문

살아있는 동안 꼭 읽어야 할 부처님말씀 108가지

선묵혜자 엮음 | 아침단청 펴냄 | 1만3500원





"모든 속박을 끊어 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부처님이 10년 동안 수행하고 제자들을 45년이나 가르친 후, 열반을 앞두고 있을때였다. 제자 중 마하가섭은 부처님께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영원히 우리들 곁에 있어 계속 법륜을 굴려 주옵소서." 하고 간청 했다.

"허허,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난 45년 동안 설법을 하였지만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없다. 이미 나의 설법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늘,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설법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을 꾸짖었다. 정말 파격적인 설법이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를 꺼내어서 다시 들려주었을 뿐, 그 이상의 설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시면 이제 누구에게 설법을 들어야 하옵니까?"

"허허, 45년 동안 그렇게 설법을 하였는데도 아직 모르겠는가. 그렇게 집착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나는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아무 것도 가르친 것이 없다. 있다 해도 마하반야바라밀이란 단지 그 이름뿐이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젠 누가 우리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대답했다.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계율을 등불 삼아 살면 된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은 무려 팔만 사천경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 불자들이 이것들을 다 읽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그 속에는 인간의 고뇌, 외로움, 분노, 행복 등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하다. 이 책은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08가지를 뽑은 책이다.

인간의 비극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데서 생긴다. 그 욕망은 우리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많은 설법을 통해 어리석은 우리를 '깨침'으로 인도하고 있다. 문장 문장마다 녹아 있는 주옥같은 교훈들은 우리들에게 진정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를 섬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책은 부처님이 걸어오신 생애와 부처님의 주옥같은 법문에 선묵혜자 스님이 해설을 곁들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책 한 권으로 부처님이 수행을 시작하고 열반하기까지의 모든 고행의 흔적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부처님 설법의 요체와 어렵게만 느껴지던 불교 지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사슴, 새, 코끼리, 토끼 등의 비유를 통해

경전속엔 주옥같은 교훈 듬뿍
혜자 스님 읽기 쉽게 경전 해설

들려주는 이야기는 많은 재미와 감동을 던져 준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감동으로 작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불교경전은 어렵다. 또한 선불교 사상마저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지식인 경허 스님이나 경봉 스님, 청담 스님의 선문(禪文)들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제대로 일반인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다. 또한 부처님의 경전들조차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일반 신도들이 읽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묵혜자 스님이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과거세이야기, 아함경, 법구경, 숫타니파타, 화엄경, 백유경, 법구경, 초기불전인 테라기타, 테라가타 등 거의 모든 경전을 참고로 하여 원문을 뽑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붙인 책이다. 일반 신도들이 보다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각인(刻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자는 "한편, 한편씩 실려 있는 경전의 주옥같은 내용들은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쳐 주는 감로수 같은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명상' 주제로 한 미얀마 기행집

행복을 위하여

심연홍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1천원



미얀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얼굴로 다가오는 나라이다. 아웅산수치 여사의 민주화 투쟁이, 혹자에게는 아직도 폐쇄적인 은둔의 나라로, 혹자에게는 미개발 저소득의 빈곤국가로, 혹자에게는 찬란한 불교유적과 수행자의 나라로 인식돼 있다.

덧붙여 저자는 최빈국에 속할 정도로 궁핍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최상위인 미얀마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기만 하다. 저자는 미얀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의 원천을 엿보고자 미얀마의 불교, 미얀마의 서민들, 미얀마의 문화를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 속에서 울리는 마음의 공명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형식과 성격, 주제는 제목과 부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미얀마 기행이라는 형식에, 우리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명상의 과정을 간결하면서도 감칠맛 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기행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행문과는 다르다. 1, 2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1부에서 '미얀마 체험'을, 2부에서는 미얀마 찬매명상센터에서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책장을 넘기면서 저자의 폭넓은 사유와 명상 속으로 함께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저자와 함께 미얀마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독자들은 마음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단순해지고, 아울러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세심한 심리묘사와 간결하고 흡입력 있는 문체가 특징이다. 즉 명상이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기행과 에세이의 형식을 통해 최대한 가볍게, 때로는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은 명상에 대해 부담 없이 다가가 그 참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책의 여기저기에 배치된 사진들 또한 우리 마음을 미얀마로, 미얀마인의 삶 속으로, 명상의 세계로 이끄는 일에 일조한다.

김주일 기자

감사한 마음 갖는 것, 일상의 감동 비결

why 하림

하림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3천원



전법도량 사찰인 부산 미타선원서 일찍부터 '행복선(禪)수행학교'를 열고 '생활 속의 선 수행'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주지 하림 스님은 몇 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에 신도들에게 책을 선물한다. 이번에도 사찰 회보에 쓴 '주지스님 에세이'와 틈틈이 적은 산문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그간의 책들 〈하림이예요〉 〈하림 스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 〈이게 아인디〉에서 이번 〈why 하림〉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글을 보면 주변 가까운 이들과 생활 깊숙이 어울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회보에 실린 에세이다 보니 신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딱히 신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스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대중들을 만난다. 미타선원이 위치한 부산 중구의 조기축구회 멤버로 활약하며 이웃과 어울린다. 도 근처 자갈치시장의 상인들, 용두산공원에 나오는 어르신 들과도 조곤조곤 얘기를 나눈다. 이 책에는 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 한마디들과 수행하면서 느끼는 일상의 감동들로 구성돼 있다.

책은 총 4장으로 나누어졌다. '행복으로 가는 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행복 속에 사는 사람'으로 매달의 이야기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장 나눔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책을 전체로 관통하는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감사합니다'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가 되겠다.

저자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감동, 반성 등을 그날그날 일기를 쓰는 듯 차분히 들려주고 있는데 내가 어제 겪었거나 오늘 느낄 만한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 쉽게 공감된다. 이 책이 불교도만을, 미타선원 신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일기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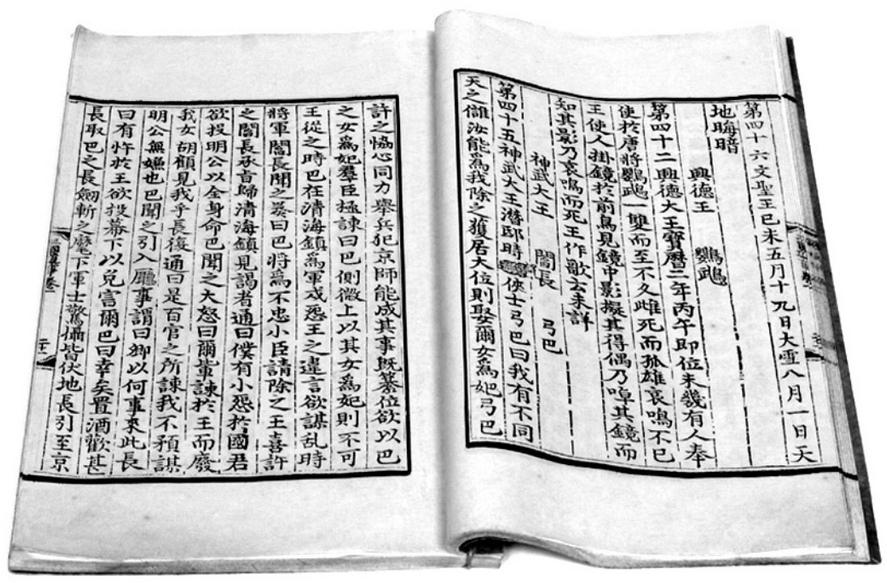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감통'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과론에 기반한 작용과 반작용 주목해야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 이중 감통편은 신앙의 감동으로 세상을 움직인 일화를 담고 있다.

불교만의 영험함을 풀어내
출재가 체험으로 세인 감동
다양한 사례로 사회 반영

선인 선과 인과법 따라
계급 초월 능력중시 강조
당시 신라사회 이상향 나타내

1. 감동과 신통

『삼국유사』 전 9편 중 제 7편에 자리한 「감통」편은 모두 10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앞의 「의해」편이 교학의 의미를 풀이한 고승들에 대해 언급이고, 「신주」편이 밀승(密僧)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감통」편은 '자신이 느껴서 마침내 타인까지 움직인' [感而遂通] 신앙의 사례들과 사회적인 메아리를 싣고 있다. '선도성모 수희불사'와 '욱면비 염불서승', '광덕 엄장', '경흥우성', '진신수공', '월명사 도솔가', '선율환생', '융천사 혜성가', '정수사 구빙녀' 등이 감통편의 조목이다. 불보살의 조상(造像), 예배(禮拜), 염불(念佛), 사리 봉안, 불경의 사경(寫經), 역경(譯經), 강경,(講經), 송경(誦經) 등과 같은 '액션' [感]에 대해 불보살의 형상이 나투거나 [見相], 소리가 들리거나[聞聲], 자신의 고통이 뽑혀지거나[拔苦], 행복이 늘어나거나[增福], 지혜가 키워져 열리는[增智開慧] '리액션' [應]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감응은 중생의 요청[感]에 의해 불보살이 영험을 작용하는[動, 應] 것을 가리킨다.

조목별 내용을 보면 '선도산 신모(神母, 娑蘇)의 도움으로 불사를 완성' 하고, 아간 집안의 여종인 욱면(郁面)이 미타사에서 염불하여 진신으로 왕생한다. 광덕(廣德)의 입적 뒤 그 아내와 통정하려는 엄장(嚴莊)에게 원효(元曉)에게 정관(淨觀) 수행을 배워 왕생하게 하고, 경흥(憬興)이 국로(國老)가 되어 말을 타고 출가하다가 남산 문수사의 문수상(文殊像)의 일깨움으로 말을 타지 않는다. 효소왕(孝昭王)이 행색이 남루한 승려에게 공양하였더니 그가 석가진신(釋迦眞身)이었고, 월명사(月明師)가 미륵의 도움을 받아 도솔가를 짓자 두 해의 이변이 사라졌다. 선율(善律)이 『대반야경』을 펴내지 못하고 죽게 되자 명부(冥府)의 관리가 완성하고 오라고 하여 10일만에 다시 살아나 15년 전 죽은 여인의 간청을 들어 점등(點燈)하여 명복을 빌자 여인은 고통을 벗어나고 선율은 경전을 완성하였고, 호랑이로 변신한 여인이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살생의 죄과를 참회하기 위해 김현(金現)에게 공을 세워주고 죽자 그는 그녀를 위하여 호원사(虎願사를 지어 추모하였다. 화랑들이 풍악산을 유람하다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여 유람을 그만 두자 융천(隆天)이 향가 「혜성가」를 지어 노래하자 괴변이 사라지고 일본군이 물러갔으며, 황룡사의 정수(正秀)법사는 엄동설한에 천엄사 앞을 지나다가 걸인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벗어 덮어 도와주었고 그로 인해 국사로 책봉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감'(感)의 작용과 '통'(通)의 반응이 상호간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떠한 일방의 작용으로만 감동의 바다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감동의 바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쌍방의 작용의 강도와 내용이 강력하고 간절해야 한다. '감이수통'은 『주역』(周易)「계사」(繫辭) 상(上)의 "생각이 없고[無思也], 행위가 없으며[無爲也], 고요하여서 움직이지 않다가[寂然不動] (스스로) 느껴서 마침내 천하의 연고에 통하기 때문이니[感而遂通天下之故] 천하의 지극한 신이 아니면[非天下之神] 그 누가 이와 더불어 할 수 있으랴[其孰能與於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용[感]의 주체는 승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편의 조목들을 보면 승려(광덕과 엄장, 경흥, 월명, 선율, 융천, 정수), 선도산 신모, 국왕(경덕왕), 일반 서민(김현), 노비(욱면) 모두가 주체가 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도선(道宣, 596~667)은 『속고승전』에 「감통」편을 편재하면서 감통의 의미를 수행의 힘이 높은 고승(高僧)이 초인적인 현상인 기미[微]를 알아느껴[感]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의 신앙체계에서 일어나는 헤아릴 수 없는[不思議] 영험을 '감통'(感通)이라고 풀이하여 이를 '감응'(感應)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반면 찬녕(贊寧, 918~999)은 『송고승전』「감통」편의 의미를 수행의 계위에서 최종 단계인 증과(證果)로 풀이하였다. 그는 "우리 교법 가운데에서 신해행증(信解行證)으로써 준거를 삼아보면 「역경」과 「전법」은 '믿음의 일으킴' [生信]에, 「의해」와 「습선」은 '이해의 자각' [悟解]에, 「명률」과 「호법」은 '실행의 닦음' [修行]에, 「신이」와 「감통」은 '깨침의 과위' [果證]에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도선은 감통 혹은 감응에 대한 인식이 남달라 출재가에게 삼보의 이로움을 널리 알려 미혹하고 깨달은 이 모두가 믿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지었으며, 만년에는 자신의 감통 체험과 세인들의 감통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도선율사감응록』(道宣律師感應錄)을 지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불교사를 감통사관(感通史觀) 혹은 감응사관(感應史觀)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2. 주체와 사례의 다양성

일연은 중국 양당송(梁唐宋) 삼대(三代) 고승전의 편재를 의식하면서 『삼국유사』를 편찬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자유롭고 독자적인 체재로 구성하였다. 그는 「감통」편을 편재하면서 도선의 감응사관 혹은 감통사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승려 중심의 체재로 이루어진 삼대 고승전과 달리 작용[感]의 주체와 반응[動]의 사례가 훨씬 더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작용의 주체가 이동하고 반응의 사례가 증폭되기도 한다. 먼저 일반인들이 주체인 경우를 살펴보자. 즉 '선도성모 수희불사' 조에서는 안흥사에 머물던 지혜(智惠) 비구니가 불사에 착수하지만 점차 그의 불사에 감응한 선도산 신모(娑蘇)로 감통의 주체가 이동하고 있다. '욱면비 염불서승' 조에서는 귀진(貴珍) 아간이 선사(善士) 수십 인과 서방왕생을 기약하며 염불 수행을 발의하지만 이들보다 그의 집 여종인 욱면이 먼저 왕생하게 된다. '진신수공' 조에서는 효소왕(孝昭王)이 몸소 남루한 옷을 입은 승려에게 공양을 하며 '누구에게도 국왕이 직접 불공하는 재에 참석했다고 하지 말라' 고 하자 도리어 비구는 '폐하도 진신석가에게 공양했다고 얘기하지 말라' 고 함으로써 주체가 진신석가의 화현인 비구로 이동하게 된다.

'김현감호' 조에서는 흥륜사의 탑돌이에 나선 청년 김현(金現)이 처녀로 변한 호랑이를 만나 정을 나누고 인간과 동물의 소통의 길을 열고 있다. 하지만 하늘의 처벌을 두려워한 오빠들이 달아나자 호녀(虎女)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며 이는 낭군의 경사요, 호랑의 부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 등 다섯 가지의 이익이 있게 된다며 자신을 죽인 뒤 저를 위하여 절을 세우고 불도를 강론하여 좋은 과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고뇌하던 김현은 호랑이를 잡아 벼슬에 오른 뒤 그녀를 위하여 호원사(虎願寺)를 세우고 『범망경』을 강론하여 호랑이의 저승길[冥遊] 을 인도함으로써 호랑이가 제 몸을 희생하여 자기를 성공하게 한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설화는 당시 신라인들의 생명관과 신앙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승려들이 주체가 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광덕 엄장' 조에서는 도반이었던 광덕이 먼저 왕생하자 남은 엄장이 광덕의 처와 부부가 되어 동침을 청하자 관음(觀音)의 응신(應身)인 아내가 욕망을 절제하고 수행을 권유한다. 관음의 응신으로 화현한 광덕의 처는 향가 「원왕생가」를 지어 법장보살이 48대 서원을 이루고 아미타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되묻고 있다. 이 조목의 주체는 광덕과 엄장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그들의 아내로 주체가 이동하고 있다. '월명사 도솔가' 조에서는 4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자 월명이 부름을 받고 미륵보살에게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을 드렸더니 해의 변괴가 사라졌다. 월명은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하여 향가를 지어 재를 올리자 홀연히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종이돈을 날려 올라가 서쪽으로 사라지게 한 효험이 있었다.

3. 향가의 주력성과 감통의 인과

'융천사 혜성가 진평왕대' 조에서는 신라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자 낭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 때 융천사가 향가를 지어 부르자 혜성의 변괴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고 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화랑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노닐게 하였다. 「감통」편에는 『삼국유사』에 실린 14편의 향가 중 모두 4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편에 실린 「도솔가」와 「제망매가」, 「원왕생가」, 「혜성가」는 모두 '주력' (呪力) 혹은 '주술' (呪術)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솔가」는 두 해를 물리치고,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감응케 하고 있으며, 「원왕생가」는 엄장의 정욕을 물리치고 정진하게 하며, 「혜성가」는 혜성의 변괴를 물리치게 하고 있다. 향가는 신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친근한 노래였다는 점에서 '감통' 혹은 '감응'과 긴밀하게 상응하고 있다.

'경흥우성' 조에서는 '국가의 원로'이자 '나라의 스승'인 '국사'(國師) 즉 '국로'(國老)였던 경흥이 늘 흰 말을 타고 출근하자 행색이 초라한 거사로 화현한 문수보살이 나타나 깨우침을 주자 이후부터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신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최고위층 승려들의 사치에 대한 질책이 반영된 것이다.

'선율환생' 조에서는 『대반야경』을 펴내기를 발원한 선율의 일화가 전해진다. 선율이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저승으로 잡혀갔으나 저승의 관리로부터 돌아가 그 일을 마치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온다. 선율은 죽은 지 15년이 된 여인의 청원에 의해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베를 팔아 불경을 반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여인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한다.

'정수사 구빙녀' 조에서는 눈이 많이 쌓인 어느 겨울날 한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어 죽어가자 정수법사가 여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벌거벗은 채로 절로 달려가 거적으로 몸을 덮고 밤을 세운 일화가 전해진다. 정수법사는 한밤중에 하늘에서 대궐 뜰에 소리쳐 외치기를 '황룡사의 승려 정수를 마땅히 왕사로 봉해야 할 것이다' 고 하자 왕은 그를 맞이하여 국사(國師)로 책봉하였다. 이들 이야기는 모두 선인(善因)에 따른 선과(善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통」편에는 불교의 인과론에 기반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용이 있어야 반응이 있듯이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몸으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고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주며,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지 말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며, 이간질을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말을 하며, 허황된 말을 하지 말고 진솔한 말을 하며, 욕지거리를 하지 말고 고운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는 탐내지 말고 만족을 알고, 성내지 말고 온화하며, 어리석지 말고 슬기로워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열 가지 좋은 행위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삼국유사』「감통」 편의 '감응'은 이러한 불교의 인과론에 의한 작용과 반응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 왕실 주변의 귀족불교 혹은 왕실불교와 달리 서민불교 또는 대중불교의 지향이 담겨 있다. 배타적 권위로 휘두르는 불교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로 맺어가는 불교, 골품이나 계급이라는 껍데기를 우선시 하는 불교가 아니라 능력과 인품이라는 알맹이를 주요시 하는 불교, 완장과 권력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 불교가 아니라 겸허와 하심으로 온몸을 던지는 불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는 사회, 자기가 이룬 만큼 자기가 얻는 사회에서 진실한 믿음과 치열한 구도가 이루어지는 신라사회를 꿈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습합, 지체와 격식을 뛰어 넘은 삶의 체득, 중생을 제도하는 이름없는 승려의 보살행, 변고와 간난을 물리치는 향가를 지은 이들을 통해 신라사회가 꿈꾸었던 이상향을 담아내고 있다.

고려의 일연은 신라사회의 이러한 '감동'과 '신통'을 『삼국유사』 속에서 재현하면서 고려사회 속에 신라사회의 감통을 재현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리상호,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 1999).
권상로,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6; 1996).
이범교, 『산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6).
정병삼, 「『삼국유사 신주편과 감통편의 이해」, 『감통과 신통을 보여준 신라인』(신라문화선양회,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6월 7일 (금) 오후 2시
• 대 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려고 하지만 잘 맞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잘 맞히는 이는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가 있느니라.

– 불반니원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지리산 청학동 (미륵암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팔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선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개인지도
○ 교육 후 바로 상담 책임지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010-2586-793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조계종 소백산 내원암 지장보궁에
40~50대 중반 운전할 수 있는
보살님 시봉자 속히 구함
(*스님 옷 관리와 법당채 관리소임).
그리고 50세가 넘은 보살님
스님 될 사람을 찾고 있음.
평생 보장함 상좌로 수계함.
경북 예천 054)653-1180
내 원 암 010-6353-11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11-3764-3661

조그마한 절 입니다
절 운영 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강동)
011-534-3345

향 기 도 의 묘 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세)
011-9514-3721

공양주 + 원주소임
가족같은 보살님 원합니다
(강원도 설악산 작은암자,
무경험자도 됨)
기도하고 수행하실 분
환영합니다
033)463-3150
보수금 절충

지방사찰 종무소 종무원 모십니다
054)534-633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 형 문 화 재 범 음 범 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달마일장금(경) 강의 (스님만 / 공양. 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4일(1일 8시간 / 총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철학원 원장 011-838-1134
■ 장소 :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339번지 (여여암) (055)744-5300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 안 손으로 짚어 1분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첫날 오후2시~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21세기를 위한 생활불교 강좌
■ 대 상 : 스님, 법사,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 기 간 : 1년 (3개월 단위 매 학기 수료증 수여)
■ 월회비 : 5만원
■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까지
불교의식에 필요한 사물 다루는 법을 쉽게 알려 드립니다.
(목탁, 태징, 북, 법고, 작법 등)
문의사항은 수복원으로 연락바랍니다. 02)532-0529 수복원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6월 6일 현충일 참배 안내
6월 6일 현충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참배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해
영가천도, 지장경을 유족들에게
보시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꿈바위에서는 30년 이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꿈바위불교 교육원 대전,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풍수지리 명사 (샛별을 보고 득력)
명당은 땅팔자, 사람팔자가 많아야 발복이 됩니다. 기도는 본인하고
맞는 기도, 기도체도 본인과 맞아야 소원 성취가 빠릅니다.
명당에 묘자리를 잡아두면 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사주팔자가
좋아도 묘터나 집터가 안 좋으면 건강, 사업, 출세도 안 좋습니다.
작명(상호, 이름), 천도재 대가, 명당 다량보유(와우형, 연소형, 매화낙지형),
명당을 잡아 준 사람은 좋은 꿈을 꿉니다.
소백산 스님 018-413-3377

불자정보 943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 교 원 안 내
•위치: 부산시 온천동
•평수 75평
•상가건물 5층 중 3층(E/L 있음)
•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관리비없음)
•시설비 3500만원
•최신시설 즉시법회 가능
010-6857-3579

포교원(급)안내
•위치: 부산 수영구 망리동 부근
•4층 건물중 3층, 옥상 사용 가능
•시장 2분거리
•법당 조성 장엄, 개원 2개월 됨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위치가 좋음
010-7459-2977

전원토굴. 기도처안내
•위치 : 경북울진 불영계곡 국도변위치
•대지 230평, 건평 73평, 2채, 황토벽돌사용시공
•방9개, 거실, 주방, 방마다 욕실, 주방설치
•난방 심야전기보일러난방. 시세반값가격
•가액: 1억 7천만원(은행융자 6천만원포함)
•전세 월세도 가능 방문시 가액절충
010-8676-1848
010-5342-479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거제 고현동
•평수 60평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냉장고 3, 에어컨2, 집기 등등
010-4343-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상 담 원 안 내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약 400M 주택 밀집가. 약10평
•1층 : 철학 및 상담 사무실1
•방1, 주방1, 수리 깨끗
•스님 급환으로 인해 급 양도
•보증금 400만원 / 월 25만원, 또는 300/30
•시설비 절충가, 간판 새로 시설
010-6223-8297
010-2499-007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위치 좋은 명당
•동사무소 앞, 공원 앞 시장입구
•평수 : 법당 방2, 주방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1000만원
010-3572-8426

토굴터 된장효소 할수 있는 집
•위치 : 영천시내에서 10분 내
•대형 차 진입가능
•전망 좋은 곳
•505평, 9천만원
010-3505-6505

사 찰 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인고면
수성리 702번지
•전 744평
•평당 7만원
•산골짜기 절터
•1급수 물이 흐름
•사정상 급 양동
010-3166-8870

토 굴 안 내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평수 : 약 78평
•슬라브 2채, 화장실2,
방3, 현대식주방
•모든시설완비, 2층 기초 공사 완료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산밑 조용함
010-3477-6638

암 자 안 내
빠알간 앵두에게
몽땅 2억
010-8861-1785

암 자 안 내
•위치: 경북 의성군
•옆산 옆 하천
•넓은 초옥
•수많은 정원수, 각종 유실수
•30년된 암자, 편안한 노후 생활
•3,320평, 평당 8만원
010-8826-837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군포시 군포역 앞
•평수 75평
•상가건물 2층
•보증금 2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최고시설, 즉시법회가능
010-8945-9433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에서 50분거리
•경춘고속도로 경유지점
•청평댐 상류 홍천강변
•대지 200평, 종교부지 382평 총 582평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슬레트 구건물 18평
•가액: 3억 3천만원
010-2665-9978
031)732-8887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북 포항시 신흥동 시내
•평수 31평, 상가건물
•2층 단독계단, 3층 방
•가액: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위치 최상, 시설완벽, 철학가능
010-8675-3836
스님직접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법당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700만원(불상별도)
010-5630-1223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평수 70평
•2층건물
•1층 요사채(방4개) , 2층 법당
•가액: 2억 5천만원
010-8550-7019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 울주군 웅촌
기와집 2동
•대지 120평, 법당 20평
•산신각 6평
•주방, 공양간, 친견실, 스님방 35평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855-7205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신흥역 지하철 1번출구 바로 앞
•4층건물의 3층, 시설완비
•평수 30평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마원
•시설비 500만원
010-2665-9978
031)732-88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 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 재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친구를 사귈 적에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내가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친구간의 의리가 상하게 된다.
순수한 생각으로 오래도록 교우하라.
– 보왕삼매론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400
  공양간 說法殿有
- 가액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3억3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 120(목조)
- 부지 : 920평
- 가액 : 25억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산신각외 약사전
- 요사 50평
- 임대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소재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3층:석가래,단청,산신각)
- 요사 : 40평(2층)
- 종무실, 주지실 : 40평(1층)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 관광명소인 버닷가에 위치한 기도, 정진할 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목조, 3포 7포,단청)
- 요사 : 80평 (2층) • 기타 : 산신각, 석불, 석등 연못 등
- 가액 : 4억 4천만원
- 특징 : 불사금 20억원이 투입된 기암괴석과 산세가 어우러진 기도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48-0455/ 서울 010-5828-0455

포교원(급)안내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 거실, 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 시설비는 이사비용정도

010-2542-22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어모면 대덕리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부근
- 시설 잘되어 있는 전통형사찰
- 대웅전(90㎡), 지장전, 삼성각, 전통목조
- 토지(대+전) 5,000㎡
- 양도가액: 8억 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공주 시내 바로 옆
- 평수 72평
- 법당 따로 (약 9평)
- 방3, 거실, 화장실 2개
- 텃밭도 따로 있음
- 가액: 9천만원(가격 조절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41)841-57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암 자 안 내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 법당 25평, 방 小 8, 中1, 大1
- 산신각, 연못, 분수대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429-507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처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스님 직접

010-8828-1188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9억

(서울 – 안양 – 의왕)

010-5466-33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가격 답사후 절충) 시설완벽

010-4747-8796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 – 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010-8900-4874

토 굴 안 내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대둔산
- 임법당 40평, 창고 10평
- 기도도량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절충가능)
- 주소에 산자가 세번 겹쳐 명산이고 명당터라 태봉골이라 칭함
- 국도변 대전에서 20분

010-9562-5515
041)752-0884

포교원안내

- 위치: 창원시 어창구 도계동 407-13
- 3층의 2층. 완전수리
- 평수 45평, 방2개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완비
- 시설비 500만원(절충가능)

055)238-9150
010-7156-05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송파구 문정동
- 문정역에서 3분거리
- 4층건물 2층, 45평, 법당, 방3
- 주방, 에어컨 2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145만원
- 몸만 오실분
- 시설비 방문후 절충

02)4430-108번

포교원안내

- 부산 영도 남항시장 옆 대로변
- 총 38평 법당 사무실 주방및 거실, 욕실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소불 108불, 에어컨 2대, 인테리어 새로 단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천만원(법사,보살님도 가능)

010-4880-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문산 IC 근교
- 부지 4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60평
- 사찰앞으로 강물이 흐르고 뒤는 야산으로 경관이 아주 좋음 (마을 안에 있음)
- 가액: 은행융자 6천만원 안고
- 가액: 1억 9천만원

010-4068-1533

신 축 주 택 지

- 위치 :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 산 14,000평 관리 농림
- 수도, 전기, 포장도접 12평 기초공사
- 허가득, 바로 건축 가능
- 조용한곳 , 혐오시설없음
- 급양도가 6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청주시내
- 3층건물 3층, 100평, 창고
- 최고시설, 심야전기
- 법당 50평 삼존불, 나한전, 탱화
- 주방, 큰방3개, 사무실, 샤워실
- 요사채 따로 25평, 큰방 2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전세 5000만원, 시설비 상담
- 집기류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5883-225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4178-27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재
- 총1200평(대지200,전1000)
- 요사채30평(방3,거실,창고, 화장실)
- 법당은 허가득함, • 콘테이너 창고 2동
-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약수로사용함,
- 아득한 절터로 소문
- 가액: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40-2755
010-4811-03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평수 50평, 2층건물중 2층
- 가액: 2천 만원
- 삼존불, 관음불, 소불, 각단탱화
- 방1개, 화장실3개, 시설물, 비품만 양도 가능
- 최고시설, 비품완비, 즉시법회가능

010-2842-6532

사찰및납골당부지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대둔산
- 18000평 관리 및 농림지역 평당 8만원(절충가능)
- 팬션수련원 적합, 국도변 남향 대전에서 20분
- 주변: 대둔산 공원, 휴양림, 짚핑스카이, 권율장군사적지, 칠백의총, 에딘버러CC, 대둔산운주CC, 인삼약초시장

주인010-5424-8070
대전안영IC 접근용이
(주소지에 '산' 자가 3번겹쳐 명산명당터라 태봉골이라 부름)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건평 70평 (인법당)
- 뒤에 산, 교통편리
- 전철 온천 인접
- 텃밭, 주차완비
- 가액: 5억(조정가능) 전세2억

010-6559-0913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전세 5천만원
- 양도 : 2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립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처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스님 직접

010-8828-1188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포교원안내

- 부산 영도 남항시장 옆 대로변
- 총 38평 법당 사무실 주방및 거실, 욕실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소불 108불, 에어컨 2대, 인테리어 새로 단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천만원(법사,보살님도 가능)

010-4880-15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평수 50평, 2층건물중 2층
- 가액: 2천 만원
- 삼존불, 관음불, 소불, 각단탱화
- 방1개, 화장실3개, 시설물, 비품만 양도 가능
- 최고시설, 비품완비, 즉시법회가능

010-2842-6532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 미륵사지옆
- 평수 : 약200평,전망좋음
- 삼존불, 후불탱화, 각종시설
- 주지실,상담실,차실,콘테이너2개
- 5층석탑,미륵불,주차장,교통편리
- 몸만오시면됨,즉시법회가능
- 가액: 5300만원(조정됨)

010-9288-6889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포교원
- 보증금 1000만/월세40만
- 인법당:20평
- 3층건물에3층전철출구근처
- 시설비 협의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0평
- 양도 : 7억 5천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7천만원

010-8933-9937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재
- 총1200평(대지200,전1000)
- 요사채30평(방3,거실,창고, 화장실)
- 법당은 허가득함, • 콘테이너 창고 2동
-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약수로사용함,
- 아득한 절터로 소문
- 가액: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40-2755
010-4811-030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사과밭 2700여평, 나무 7년생
- 법당 19평, 기타 9평, 대지 180평
- 건물 3동, 철구조물 판넬, 창고, 외부화장실
- 가액 : 평당 13만원
- 금액이 맞는분만 전화요망

010-4726-649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총평수 413평
- 대웅전, 목조기와 25평
- 요사채 25평, 컨테이너 1동
- 아미타삼존불, 약사, 지장, 산신, 용왕
- 산세 좋고 계곡물 사시사철 흐름
- 대출 8천만원 안고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10-8794-1257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지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대지 100평, 건물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1칸 (종무소겸)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183-06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경찰서 뒤
- 3층 중 1층 포교원
- 총평수 40평, 법당 약 20평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조절가능)
- 주차 2대 가능

010-9376-724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시설 A급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동구 동호동 30평
- 법당, 거실 방3, 주방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 보증금 2백만원 월 13만원
- 시설비 1560백
- 보살님 법사님 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7-297-4097
010-6297-40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지례면
- 마을안
- 법당 11평, 요사채 24평
- 땅 130평
- 가액: 5천만원

010-2101-25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송파구청앞
- 올수리
- 시설비 없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50만원
- 전용 45평, 4층
- 건물주가 직접 세 놓음

010-3772-7514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건천읍 건천 IC 7분
- 대지 730평, 법당1동 요사채 2동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상담후 꼭 필요하신분께 절충가능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 5분거리)
- 대지 600평, 요사채 24평
- 법당 18평, 기타 30평
- 산신각 3평, 주차편리 15M도접
- 양도가: 6억 5천만 조절가 (임대가능 보5000만, 월 120만)
- 사찰시설비품 일체 잘 가추어 져 있음. 내부 인테리어 특

010-5667-545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경찰서 뒤
- 3층 중 1층 포교원
- 총평수 40평, 법당 약 20평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조절가능)
- 주차 2대 가능

010-9376-724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 거실, 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 시설비는 이사비용정도

010-2542-22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사찰 안

동서양 다양한 禪의 길 자세히 배울 수 있어요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0〉 동산불교대학 선 · 명상학과


동산불교대 선 · 명상 학과는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명상을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2005년도부터 명상을 시작했어요.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느꼈고 더 깊은 수행을 만나고싶어 미얀마 파욱센터에서 4개월간 수행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죠. 명상은 정말 깨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느꼈지만 특별히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동산불교대 선 · 명상학과에 입학하고 나서는 명상도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체계적인 이론을 배우다 보니 명상이 더 가슴에 와닿고 또 그동안 막혔던 수행 과정의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상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동산불교 선명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미진씨(51)의 이야기다. 그녀는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난 뒤 ‘실상’이라는 단어를 안고 명상에 입문했고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명상을 해온 수행자다. 그리고 선 · 명상학과에 입학해 체계적인 이론공부와 수행실습으로 명상을 새롭게 돌아본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 · 명상학과를 개설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동산불교대를 5월 30일 찾았다. 동산불교대 선 · 명상학과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선 · 명상의 세계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와 근기를 기르게 해준다. 선 · 명상학과의 특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혹은 묵조선과 간화선 이렇게 동서양의 명상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데에 있다. 이 모든 수행법들이 부처님 당시의 선에서 모두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고 그 원류를 밝히고 개인에게 맞는 길을 찾아주고자 하는 데에 개설 목적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학기 수업은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 선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2학기 티베트 명상, 3학기 조사선, 4학기 염불선을 진행해 불교의 다양한 선의 원류와 이론을 밝히고 부처님 당시 선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한 학기당 5개월 과정이며 총 4학기로 구성돼 있다.

1학기 강의를 맡은 김형준 교수는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선 · 명상이 동서양 구분이 있거나 특별히 새로운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선 · 명상은 부처님 당시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동서양의 선 · 명상법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두 부처님 당시의 것에서 왔습니다. 간화선도 동양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간화선도 초기불교의 요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동서양의 선명상은 하나로 통합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이론이 중요합니다”
초기불교에서 조사 · 염불선까지
다양한 선의 이론과 실제 지도

선명상학과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명상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자신들의 수행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박선민(46) 씨는 “기초교리를 배우고 선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면서 명상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청정도론〉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해주시니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김정현(55) 씨는 멀리 안산에서 종로까지 강의를 들으러 올만큼 열심이다. “포교사와 법사 과정 등을 마치고 포교 일선에 나서면서 명상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명상공부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대중들에게 명상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은 앞으로 남은 3학기 과정 운영 후에 대학원과정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동산불교대 임선학 사무처장은 “명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것이 선 · 명상학과의 목표다. 수강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습으로 선 · 명상을 경험한 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깊이 있는 수행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명상의 구체적 방법 〈청정도론〉에 다 있습니다”

동산불교대 김형준 교수



“선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경전에는 수행의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선의 심리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유익한 점을 조직적으로 배울 수 있죠”

동산불교대 김형준 교수는 〈청정도론〉을 통해 명상의 이론과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 청정도론을 바탕으로 선의 구체적 단계를 이론으로 배우고 필요에 따라 실습 명상을 해보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교수는 논리적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에게 무조건 앉아 있으라고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아무런 지식 없이 선을 행하는 시대는 지났죠. 내 심리를 확인하고 선심리를 알아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청정도론〉은 자신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고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와 이익 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김형준 교수는 결국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다보면 저절로 장애요소는 제거하게 되고 깨달음으로 이르는 유익한 방법을 찾아 진정한 즐거움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한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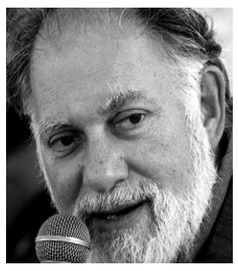
〈8〉 미국 뉴욕선원 & 젠 피스메이커 오더

빈민 돕는 빵집 ‘수행장’… 질병 · 폭력 등 사회현상 ‘화두’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선원(Zen Center in New York)은 젠 피스메이커 오더(Zen Peacemaker Order, ZPO)라는 종파에서 세운 선원이다. 이곳은 선방에 앉아 명상과 수행을 하기 보다는 참여불교운동을 지향한다. 베이커리를 운영해 빈민을 돕고, 길거리 참선을 하는가 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 수감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죽은 자를 위한 제례를 올린다.

이 세 가지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ZPO는 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조동종 스님이 된 버나드 글래스맨(Bernard Glassman, 1939~) 스님이 기획한 것이다.

1939년 뉴욕 브룩클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버나드 글래스맨은 1968년 로스앤젤레스 선원에서 마에즈미 노사에게 선을 배우기 시작한다. 당시 스님은 UCLA에서 응용 수학 박사학위를 딴 재원으로 미국 유수의 국방산업체인 맥도널 더글러스에서 화성 스페이스셔틀 프로젝트 팀장을 지냈다. 이런 그가 1970년 사미계를 받고 1976년 뉴욕선원을 열고 젠피스메이커오더라는 종파를 설립했다.


젠 피스메이커 오더를 세운 버나드 글래스맨 스님(사진 위)은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e Bakery)를 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선(禪) 수행’을 슬로건으로 마약과 술에 중독된 빈민들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그레이스톤 제과점 홈페이지.



美 조동종 버나드 글래스맨 설립
길거리 참선하며 ‘참여불교’ 지향
아우슈비츠 수용소서 묵언명상

빈민고용 베이커리 연매출 600만 달러

2년 후 버나드 글래스맨은 미국 뉴욕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용커스(Yonkers)에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e Bakery)를 연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선(禪) 수행’을 슬로건으로 마약과 술에 중독된 빈민들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사업을 펼쳤다.

버나드 글래스맨은 제과점을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 보지 않고 일을 통해 수행하는 수행장으로 만들었다.

새벽 4시 45분에 새벽 참선을 시작으로 규칙적 제빵 작업 스케줄, 마약을 끊어야만 살 수 있는 무료 아파트, 젊은 엄마들이 일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유아원 등을 세워 넘어진 자, 실의에 빠진 자들의 삶 곳곳에 이들을 지켜주는 버팀목을 세웠다.

이윤보다 수행을 먼저 생각했기에 그레이스톤 제과점은 개점 후 4년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제과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이지만, 제품은 고급스럽다. 처음에는 소매로 시작했지만 현재 고급 도소매 베이커리로 성장, 600만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고 7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백악관에도 그레이스톤의 쿠키가 배달될 정도다.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모금 파티에도 그레이스톤의 쿠키와 브라우니가 함께 한다.

이런 그레이스톤 제과점의 성공스토리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의 모범사례로 선정됐으며, 하버드 · 예일 · 프린스턴 · 스탠포드 등 미국 주요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수업 주제로 활용하고 있다.

빈민 · 노숙인 도우려면 직접 경험해야

1980년대가 되면서 40대가 된 버나드 글래스맨은 수염을 기르고 일주일 씩 ‘길거리 참선(street retreat)’을 이끈다. 자신이 도우려는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 그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며 고통을 체험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대로 보기(bearing witness)’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직접 보겠다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염주를 만들어 빈민을 돕기 위한 활동금을 모금하며 수련을 한다.

‘그대로 보기’ 수련회는 1996년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옮겨져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아우슈비츠에서 비르케나우까지 도착해 묵언 속에 원형으로 둘러 앉아 명상을 한다. 이 수련회에는 불교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들과 재가자들이 참여하는데, 종교대표들은 죽은 자를 위해 제례를 올린다.

참가자의 수기에 따르면 “그곳에서 수백만의 영혼을 느꼈고, 그들에게서 잊히지 않고 기억되고 싶은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고 한다.

버나드 글래스맨은 은사 스님에게서 교육받은 화두선과 사회운동과 봉사에서 오는 것이 모두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젠 피스메이커 오더가 하는 일은 사회가 돌 보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 그 상황을 ‘화두’로 삼고 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숙자, 빈곤, 질병, 폭력,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면 올바른 행동이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해결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없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전체 몸과 마음에 귀기울이면 사랑과 자비심이 발동한다. 이는 눈앞에 비틀거리는 사람이나 계단에서 떨어진 어린아이를 돕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다. 우리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행동으로 대하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행동이다.” 이나은 기자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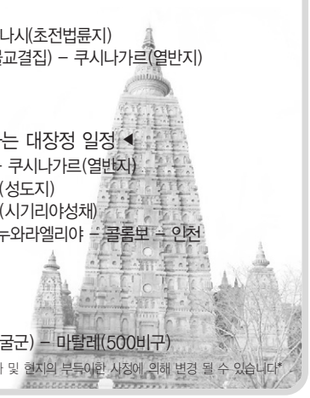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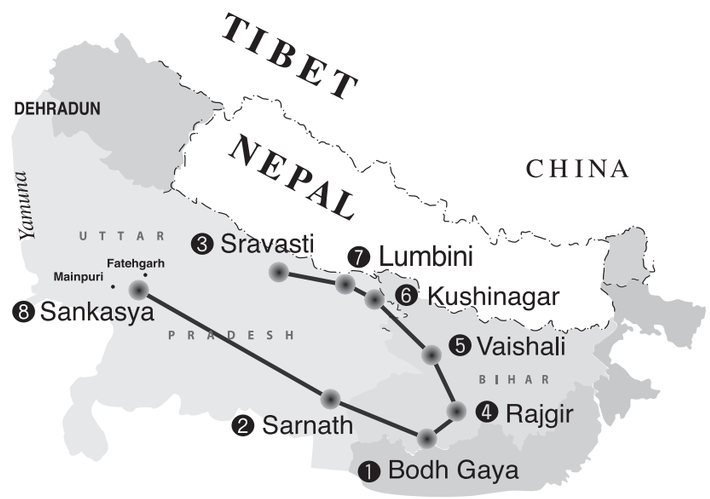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4.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7일 (대한항공)
▶ 부처님의 나라, ‘실론섬’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미힌탈레(마하세야 다고바 – 부처모발)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마탈레(500비구)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음욕은 번뇌의 뿌리"…발길제는 아라한과 증득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23)

백정 어머니의 주술에 걸린 아난

아난이 길을 가는 중에 목이 말랐다. 마침 발길제라고 하는 전다라(백정) 여인이 물을 긷고 있어, 아난은 다가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여인은 아난에게 말했다.

"저는 마등가 종족으로 백정 발길제입니다."

아난이 말했다.

"나는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요. 그저 물 한 모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오."

여인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석가의 종족이시며, 바사닉왕 조차도 공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리 부인의 스승이신데, 이렇게 천한 신분의 제가 감히 물을 가져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난이 말했다.

"나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물만 주시면 됩니다."

그제야 여인은 먼저 물을 한 움큼 움켜쥐고 아난의 발에 뿌리고 다시 물을 움켜쥐어 아난의 손에 뿌렸다. 그러자 여인에게는 음욕이 일었다. 아난은 물을 마신 뒤 바로 떠났다. 발길제는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난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말했다.

"그는 석씨 종족으로서 성스러운 귀족이다. 하늘과 사람이 모두 높이 받드는 분인데, 우리 같이 천한 집안이 어떻게 혼사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면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말했다.

"마등가신께서 말씀하신 부적과 주문이 있다. 해와 달을 옮겨와 땅에다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주문으로써 제석과 범천을 아래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거늘, 하물며 사문 하나쯤 얻지 못하겠는가?"

딸은 이내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치장를 했다. 하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불을 펼쳐 놓고 아난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소똥을 땅에 바르고 오색 줄로써 실을 매었다. 또 네 개의 병에다 물을 가득 담고, 네 개의 주발에다 미숫가루 물을 가득 부었다. 네 자루의 큰 칼을 소 똥 위에다 세우고, 끝이 사각으로 된 화살 네 개에다 팔명등을 켰다. 그리고 네 개의 죽은 사람 해골을 가져다 갖가지 향을 그 위에다 바르고, 꽃을 땅바닥에 깔고 착위두소향을 사르면서 세 바퀴를 돌았다. 그리고는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마등가의 주술을 외웠다. 이때에 아난은 기원의 숲에 있었는데 기분이 문득 황홀해지면서 주술에 얽히고 말았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 줄에 걸리듯 주술을 따라 전다라의 집에 이르렀다. 발길제가 밖으로 나와 아난을 안아다 평상 위에 앉혀 두었다. 아난이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어둡기만 한 것이 마치 해와 달이 모두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난은 힘이 세어 10대 역사들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날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아난은 거룩한 도의 힘으로 주술을 깨고 정신을 간신히 되찾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세존께서는 어찌 나를 가엾게 여겨 주지 않으실까?'

이때 부처님께서 바로 아시고 게송을 외우셨다.

'부처(佛)는 세간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부처보다 뛰어난 이 없도다. /부처는 인천(人天)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법의 왕이요 위없는 복밭이다.

법(法)은 세간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법보다 뛰어난 것 없도다. / 법은 인천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모든 얽힌 맺음을 끊고 영원히 수는 복밭이다.

승(僧)은 세간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승보다 뛰어난 이 없도다. / 승은 인천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아름다운 복이며 위없는 복밭이다.'

아난은 이 진실한 부처님 게송의 힘으로 전다라의 집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게송을 다 외우시자, 전다라의 집안에서는 세워두었던 주문의 도구인 칼과 화살이 꺾이고 병과 주발이 깨지며 등불이 꺼지고 해골이 박살났다. 흑풍이 일어나 사방이 보이지 않게 되더니 전다라의 주술도 힘을 잃고 말았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이는 분명 부처님의 신력일 것이다."

아난은 기원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발길제는 아난을 따라 기원 앞에 와서는 나란히 서서 말했다.

"아난은 나의 남편입니다. 아난은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발길제가 아난의 뒤를 바짝 따르며 잠시 동안도 떠나려 하지 않았으므로, 아난이 자세히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법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허깨비 같은 미혹은 본 적이 없다. 이 여인은 음욕으로 생각이 완전히 묶여 있다."

아난이 새벽에 가사를 하고 발우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는데, 발길제가 그의 뒤를 따르면서 장자들에게 말했다.

"아난은 나의 남편입니다. 아난은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아난이 돌아와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발길제와 이야기를 나누되 누이 대하듯 하거라. 왜냐하면 발길제는 마땅히 비구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길제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 오직 원하오니 저의 남편을 돌려주십시오."

"만약 아난이 필요하다면 나의 법 중에서 비구니가 되어라. 그러면 아난을 주리라."

발길제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하니 그의 부모는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발길제와 그의 부모가 함께 부처님께 돌아오자 세존께서 그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수없이 많은 방편으로 모든 법의 이치를 보여 주셨으니 음욕이 부정하다는 이치와 모든 번뇌의 뿌리는 계속해서 자란다는 이치와 출가의 이치와 열반에 이르는 도의 이치를 설하셨다. 그리고 4성제를 말씀하시자 발길제는 거룩한 진리에 눈을 떴다. 그리하여 그녀의 부모는 아나함의 도를 얻었고, 딸은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그리고 발길제는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뉘우치고 비구니가 되어서 세존께 의지하기를 청했다. 부처님께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에게 계를 주게 하라."

여인을 데리고 가자 대애도가 아난에게 물었다.

"세존께서 전다라 여인도 도를 닦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대애도가 이내 머리를 깎아 주고 계를 주니, 아라한의 도를 얻을 수 있었다. (〈계인인경〉 제3권에 나오며, 〈마등가녀경〉에도 나온다.



삽화 · 강병호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㉓



젊은 날 출가의 꿈은 접었지만

영화 '길 위에서' 보고 출가발심 추억

대마도의 덕혜옹주 기념비

얼마 전 여중 동창회에서 대마도에 여행을 갔다.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그곳에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쇼핑하기 위해 가는 코스라고 했다. 한 번 다녀왔던 사람은 볼거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한 것 아닐까. 생각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그곳에도 꽃이 피고 나무가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튿날 처음으로 간 곳이 李씨 王家의 덕혜옹주 결혼 기념비가 있는 곳이었다. 비문에는 "조선국 제26대 고종의 왕녀 덕혜옹주는 1931년5월 종무지공과 결혼하여 동년 11월에는 대마도를 방문했다. 옛 대마도주종가 당주가 조선의 왕녀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내도 하였으므로 열열한 환영을 받았다."고 써있었다. 그리고 이 비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여 대마도 거주 한국인들이 건립했고, 한편 청수산성에서는 대마도 도민들이 경축하여 세우고 심었던 기념비와 철죽이 지금도 잘남아 있다고 적혀있다.

결혼생활은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딸 정혜를 낳아 서로 신의와 애정이 깊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가 갈등이 심하여 두 분은 1955년에 이혼하였다고 한다. 무지공은 1985년에, 덕혜옹주는 1961년 귀국 후 1989년에 별세 하였다고 적혀있다. 역사에 묻혀 있던 이 기념비를 재건하여 두 분의 힘들었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양국민의 화해와 영원한 평화를 희망한다는 글로서 비문은 끝는다.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가에 눈물이 스몄다. 얼마나 고국이 그립고 삶이 힘들었을까. 한 많은 옹주님의 삶이 너무 가슴 아팠다. 한국의 왕녀, 우리들의 조상이지 않은가. 우리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피는 물보다 진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며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에서 내 부모형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삶에 어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돌아오는 길에는 파도가 높아서 모두 멀미로 고생을 했다. 그 어느 여행보다 '한국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민족애를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영화 '길 위에서'를 보고

아주 오랜만에 신심 돈독하신 배기수 거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영화 '길 위에서'를 상영하니 보러 가자고 했다. 우리 내외와 친구 몇몇은 만나서 극장으로 갔다.

은해사 백흥암에서 4계절을 영상으로 담은 아름다운 풍경과 스님들의 일상을 소개한 영화였다. 그 어느 한 장면도 일부러 영화처럼 꾸민 것이 아닌 다큐였다. 스님들의 일상에 애환과 고뇌 그리고 애잔한 슬픔도 있었다. 나도 그 옛날 처녀시절에 출가의 뜻을 품고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가 도중에서 잡혀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전국의 큰스님들이 다 알아주는 신심이 지극한 분이셨고 스님들께 쓴 소리도 농담도 잘 통하셨던 분이셨는데도 딸의 출가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 절에 다니게 된 그때는 새벽마다 집 앞의 부산 대각사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때 "풋 보살아 절에 가자."며 지금의 도반들이 나를 깨웠다. 그러다 천수경도 반야심경도 금방 외워 아버지 앞에서 자랑했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걱정하셨던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나이든 처녀가 비구승의 절에 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오늘부터 절에 가지말고 집에서 경이나 읽어라."고 하셨다.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절에 다니지 않았을 때이긴 했어도 처음엔 아버지도 나를 대견해 하셨었다. 청담 스님께서 대각사에 오셔서 법문을 하실 때는 손수 경옥고약을 만들어 내게 들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 여식 입니다."라며 소개해 주시기까지 했었는데, 너무 열심인 내가 나중엔 도리어 아버지를 걱정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몰래 대각사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루 두 번씩 백일을 마음먹고 백팔 배를 하러 다녔고, 그 틈에 부산불교 청년회에도 가입하여 법문도 열심히 들으러 다녔다. 그리고 진주 응석사에서 100일 기도와 강화 보문사에서 두 달간 기도도 다녔다. 어느 날 모두 아시게 된 아버지는 깊은 걱정에 드셨다. 그토록 걱정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의 불심만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출가의 꿈은 접었지만 불자로서의 삶은 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원성 보살이 있을 수 있었다.

영화를 보면서 나의 옛날이 생각났다. 수 십 년 전의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기분이 묘했다. 영화를 보면서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인연들이 함께 살고 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로 이름 지어진 후 스승은 이런 말을 했다. "제자가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잠이 오질 않으니 참 묘한 인연임을 알게 된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만행의 시간과 공유의 즐거움, 또 유쾌한 장난으로 행복한 시간들이 출가에 대한 생각 또 한 번 하게 했다. 백흥암 절 문이 닫히고 영화는 끝났다.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비구니 스님들이 신도들과 둘러 서 있다. 화면에서 본 스님이었다. 스님 눈가에도 눈물이 묻어있었다. 나는 "스님 성불 하세요." 합장으로 인사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기자1(외국인 남): 만남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기자1(외국인 남): 제 이름은 폴머스고요, 이 사람 이름은 헬렌 돌코프라고 합니다. 큰스님께서 여기 오늘 미국에 오신 목적하고요, 한국의 선을, 선 사상을 미국에 가져오는 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큰스님: 지금 물질계나 정신계를 따지고 볼 때 이 꽃나무만 생각들 하지 뿌리는 생각들을 안 해. 그래서 사람은 동시에 물질계와 정신계가 같이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그렇질 못하고 이 물질계만 가지고 전 세계가 문제를 삼으니까 어른도 애도, 지금 자라나는 애들도 전부 물질계로만 찾지 정신계는 생각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기자1(외국인 남): 요 근래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10일 동안 숭산 스님 쪽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외국에서 오신 스님들하고 거기 한국인 스님들한테 선이 지금 한국에서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선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스님들은 선이나 불교나 이 마음공부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공업화가 되면서 점점 더 관심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고 그랬는데 스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스님: 선이라는 것은,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우리 생활도, 이게 불(佛)이라는 거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이거든. 그런데다가 삶,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사는 것이 똑같이 교(敎)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앉으나 서나 누워서 자거나 일을 하거나 이것이 전부 네 가지가 동시에 공해서 참선이 돼요.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나 인간이 살면서 이 진리가 돌아가는 거나 똑같이 맞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안된다,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기자1(외국인 남): 스님의 생(生)은 알려진 대로 굉장히 고행도 많이 하시고 그 삶을 항복을 받으셨고 그런 걸 저도 느끼고 봤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자라실 때 전통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걸 접하시기 전에 얼마큼 진리를 탐구하시고 아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라시는 과정에서 체험했던 경험담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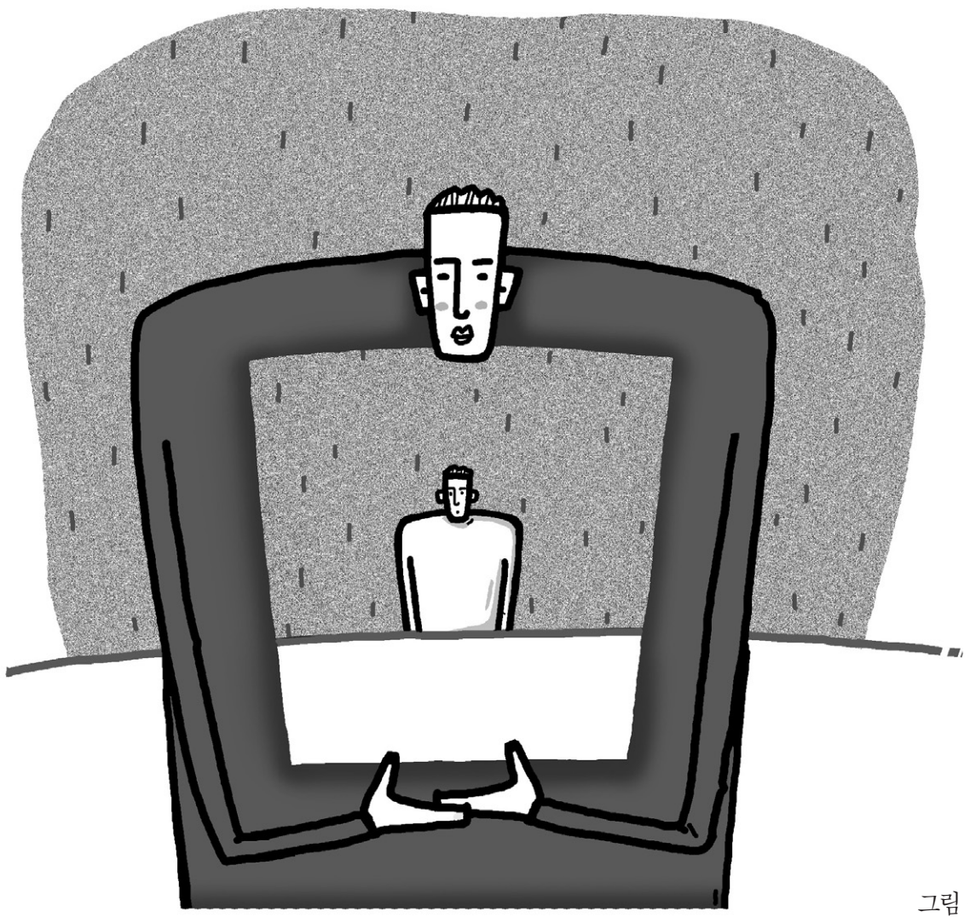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경험담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부 이 불가에서는 행선 일하는 거, 또 누워서 자는 거 와선, 서서 다니는 거 입선, 또는 앉아 있는 거 좌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기 자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알아라.' 이런 말이죠. 얼른 쉽게 말해서 저 나무들이 살고 있는데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된다.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남의 이름이나 형상을 믿어서는 절대로, 그건 도깨비장난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진리요, 그것이 바로 참선이요,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이 정수의 컴퓨터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모두 현실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업이다, 고다 이러고선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입력이 그렇게 되니까 현실로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라 온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건 벌써 과거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여기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나올 때에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 우리가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말하는 것도, 만남도, 움죽거리는 것도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듯이 그게 진짜 결정적인 점이고 아주 참선의 근본이죠.

기자2(외국인 여): 스님, 서양에서요, 요새 다 '자기 뿌리를 믿어라.' 그러니까요, 스승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 활용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 참나를 찾는데 자기 스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물질적인 자기, 또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자기, 그게 둘이 아니어서 항상 과거에도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진화시켰고 형성시켰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자기를 또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형성시킨 거거든. 그랬으니까 자기 보배이자 자기 근본이자 생명의 근본 자체지. 그러니까 그것이 스승이자 자기 몸은,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이나 다름없는 일이지마는 동시에 몸도 소중하고 그 근본도 소중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스승은 제각기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죠.

기자2(외국인 여): 그러면 바깥에요, 큰스님이 스승으로 계시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셔서 이렇게 법을 설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잖습니까? 그러니까….

큰스님: 그런데 나는 일생의 몸도 똑같고 마음도 같고 생명도 같아요, 모두가.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즉 쉽게 간략하게 말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근본과 이 마음의 근본이 항상 둘이 아니게끔, 체가 없으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만나면 그냥 이쪽 전깃줄과 이쪽 전깃줄이 마주쳐서 불이 들어오듯 하는 것이 바로 근본의 영령의 세계지. 그래서 나는 길잡이로서 얘기해 줄 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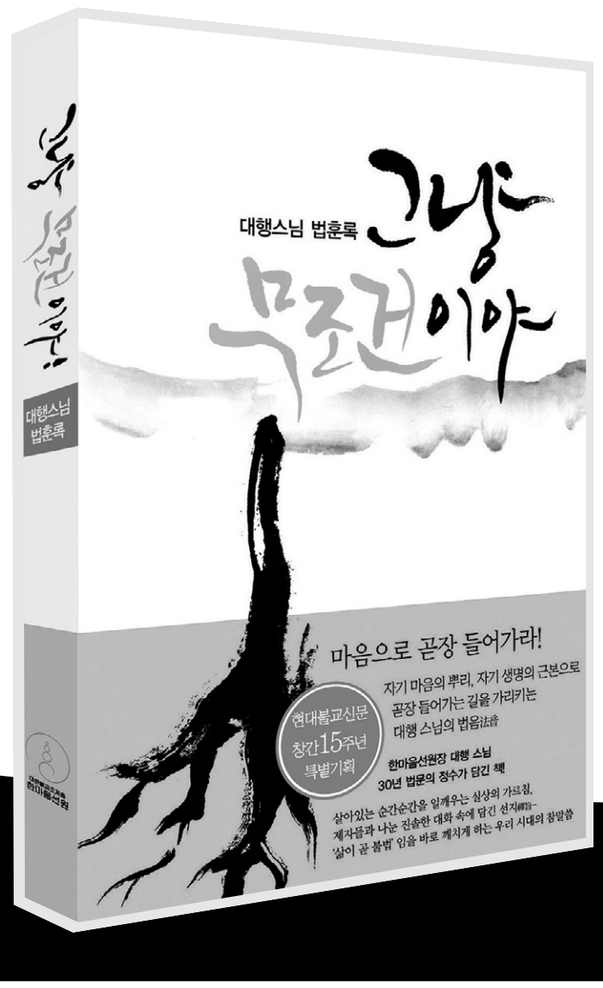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기자2(외국인 여): 스님, 서양 사람들은 불교나 이런 데는 초보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접해 보신 후에 서양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큰스님: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삼분의 이가 아주 정신이 제대로 됐다고 난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이 본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이 들어서, 이쪽이 이렇다 하고 저쪽이 저렇다 하고 자꾸 방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주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이름이나 형상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 나무들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자기 뿌리로 인해서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듯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죠. 왜냐? 원자가 하얀 공이라면, 공심이라면, 공생이라면 나쁜 것도 거기 들어가면 전부 백이 돼 버려. 하나가 돼 버려. 좋은 것도 거기 들어가면 백이 돼 버리고. 모두가 이렇게 되니까 공생 공심 또는 공용 공체 공식 하고 모두가 사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악도 선도 공에다 넣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 29면에서 계속

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나쁘다 좋다, 이 선(禪)에는 그런 것을 허용치 않아요. 악도 선도 다 공에다 넣으면, 이 허공과 같이 공에다 넣으면 그냥 없어지니까. 즉 말하자면 영이 수만 개라도 이 가슴에 넣으면 두드러지지도 않고 여기서 많이 꺼내서 생산처에 이른다 하더라도 줄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무나 광대무변한 거죠. 인간의 마음은 광대무변해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또 자유로이 마음을 써라 그러는데도 마음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쓰지 못해요. 살아오던 관습과 습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 길잡이한테 배워서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될 테니까 길잡이를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또 삐뚤게 나가죠. 그러면 자기 아닌 어떤 타의에서 자기를, 영혼을 구하자고 들이덤비게 되죠. 그럼 안 되죠.

통역: 삼분의 이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큰스님: 하여튼, 한국말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너무도 아주 그냥 감동이 될 텐데….

기자2(외국인 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하도 새로워서 그러는데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선에는 동서가 없고 마음이라는 건 알아들었습니다.

큰스님: 여기 처음에 오니까요, 노인들이 일을 했든지 일을 안 했든지 연세가 많으면 그, 먹고사는 거 뭐지?

통역: 월페어리어라고 합니다. 복지기금.

큰스님: 복지기금을 주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때로는 정확해. 왈가왈부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해요. 삼분의 일이 물질계라면 삼분의 이가 정신계로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소리에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스스로서 그 법을 지키는구나, 진리를. 스스로서 정신계의 진리를 지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인제 앞으로 법문을 영어로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 책을 또 드리고, 여기 스님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조금조금 하는 대로 아마 드릴 거예요.

불교라는 거는 이렇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일체 만물만생 생명의 근본이 불이거든요. 그리고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삶이 바로 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한 단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거지 어느 한군데 불교가 국한돼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기자2(외국인 여): 그러면 인제 수행 쪽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라 그러면요, 자기 뿌리를 알라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큰스님: 저 나무들이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싹이 살고 있죠. 만약에 뿌리가 잘라져서 없어진다면 싹은 그냥 죽어요. 그렇듯이 그 말하고 움죽거리게 하고 그러는, 바로 자기 이끌어 가는 자기 영혼의 근본, 그 자체가 있죠. 그게 없다면 자기가 형성되지도 못했고 자기가 지금 움죽거리고 살고 있지도 못하죠.

그리고 또 묘한 게 지구에 일체 만물이 살고 있듯이 이 몸 한 개체에 일체 생명들 천차만별의 모습, 의식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한 개체가 지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한 생명이 그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면 죽고, 이 몸 안에서도 생명이 바깥으로 벗어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리가 그대로 돼 있는 것을 말하지 누가 딴 신이 나를 도와주고 신이 있어서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난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그대로 영원하게 세세생생을 자유권을 얻고 이거를 모르면 자유권을 상실한다 이런 말이죠.

기자2(외국인 여): 절에 가면 스님들이 주로 백팔 배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는 근본이 있으니까 근본에다가 모든 걸 몰락 놓고 믿고, 거기 다 연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절하는 거하고요, 앉아서 참선하는 거하고요, 그런 거를 여기 선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큰스님: 일부러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앉아 있고 싶고 그럴 땐 앉아 있고, 서서 어디 가야겠다 그러면 서서 가고, 잠자고 싶다 그러면 잠자고, 그렇게 그냥 똥 누고 싶다 그러면 똥 누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삶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먹어 주고 살아 주는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주는 것도 없고, 또는 대신 아파 주는 것도 없고, 대신 죽어 주는 것도 없어요. 단, 내 힘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게 법이에요, 그냥. 그게 공법이에요.

이 사람 몸 하나에 모든 모습과 생명 의식들이 하나 잔뜩 들어 있어요. 잔뜩 들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인공!' 하면 자기 뿌리를 말할 수도 있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장! 너만이 이 배를 다 끌고 다닐 수 있어. 너만이 지켜 줄 수 있어. 너만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아프면 의사가 돼 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거기다가 관하면 뭐든 거기서 다 나와요. 이거는 실천이면서도 진리고 진리면서도 삶에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자체예요.

지금 어느 스님이 참선은 이렇게 한다,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방편으로 쓰는 것뿐이지 그렇게 배운다면 자기를 깨치기는 몇백 년 가도 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치고 안 깨치는 건 마음 한번 먹기에 달렸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만 알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관하면 어디를 통하느냐? 대뇌를 통하고 사대로 통하고, 이건 심성의학도 되고 심성과학도 되고 심성천체물리학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들어가면 벌써 사대로 통신이 되고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입력이 되면 입력된 대로 나오게 돼 있고, 전자에 입력된 건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 악한 게 있다. 나는 전자에 악하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업이, 죄가 많겠지.' 하는 것도 이 요량에 달려 있어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나올 때에 '바로 그것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할 때,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바로 그냥 새로 내가 입력한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 입력한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불성 자체 근본만 있는 줄 안다면, 정신계의 자기가 있는 줄 안다면 여여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는 자유자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것은 참, 껄껄 웃고 정말 즐길 수 있고 영원한 그 자유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기자1(외국인 남): 큰스님의 가르침이 한국에서 어떻게 퍼졌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 오셔서 만날 법문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거기 외국 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큰스님: 그 사람네들은 자기 몸을 벌써 자재할 수 있어요. 그 왜, 내가 질문하면 대답해 준게 있지?

통역: 예.

큰스님: 자기가 그냥 자기 얘기 한 책도 있고.

통역: 예, 예.

큰스님: 그거를 영어로다가 해서 주도록 해요.

통역: 예.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자기네들 가정을, 자기 가정과 자기 몸, 자기 사회 이런 걸 다 자재하고 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배우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아주 생무지로 또 와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수효로 따진다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겠지. 지금 지원이 한 25개 되나, 전부?

기자1(외국인 남): 그리고 한국이든 여기든 왜 서양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점점 더 많이 다가오고 배우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큰스님: 옛날부터 '한국 불교가 이렇다.'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한데 합쳐서 생명들을 '불'이라고 하고 또는 사는 거를, 움죽거리고 사는 걸 '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버스라면 그 버스 안에서 걸상 하나 가지고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는 거나 같다. 어디로 버스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건 공기주머니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배우려면 종교를 배우지 말고 진리를 배우세요.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 그대로, 우리가 어디서 왔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어디로 또 가는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진화되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야 삶의 보람을 느끼죠. 괜히 불교를 믿는다 하고 그냥 한국 불교는 어떻고, 외국 불교는 어떻고…. 불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한 지구 안에, 그 한 공기주머니 안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종교가 네 종교 내 종교가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님께서도 이게 한국 불교다 무슨 외국 불교다, 이 불교다, 선불교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기서 자꾸 보조를 해 드려. 이걸 써서 자꾸 보조를 해 드리고, 이 한국말로 된 거를 외국어로다가 다 해서 자꾸 드려. 그래서 진짜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 봐서, 남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것은 말이 안돼. 자기가 실천을 할 때에 이게 '아하! 이런 거구나.' 하고 맛을 알아야지. 안 그래요?

통역: 그렇지 않아도 스님이 길게 말씀하셔서요, 말씀한 부분을 오늘 다 한글로 풀어서요, 번역을 그대로 해서 다 보내 주기로 했어요. 허허허.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큰스님: 그저 될 수 있으면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전 세계가 이 정신계를 완벽하게 자기가 숭상하고 간다면, 즉 말하자면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간다면, 진짜로 세계는 평화가 오고 불 세례도 안 나고 물 세례도 안 나고, 허허허, 마음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진짜 천국이 되죠. 아이, 생각을 해 봐요. 모두 각자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상대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주처는 자기부터, 자기한테서부터 있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1(외국인 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 불가에서 절하는 건요, 자기 이 물질적인 육체가 자기 정신적인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절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겸손하고 항상 둥글게 하고 남을 섭섭하게 안 하고 남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통역: 스님, 저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더 계속해서 주겠습니다.

큰스님: 그래, 계속해서 자꾸 뒷받침을 해 드려. 그래야 이분도 '전 세계가, 아하, 전 우주가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통역: 하하하. 예.

기자1(외국인 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위 법문은 1998년 6월 19일 국외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누가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주는 사람 없어요.
> 누가 대신 먹어주고 살아주는 사람도 없고, 잠을 자주는 것도 없고
> 또는 대신 아파주는 것도 없고, 대신 죽어주는 것도 없어요.
> 단, 내 힘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게 법이에요, 그냥.
> 그게 공법이에요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 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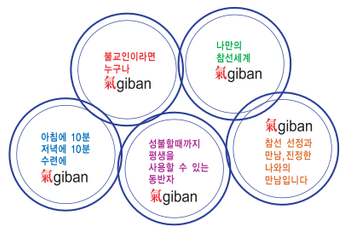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경복궁 야간 개장, 어둠이 삼킨 시민의식



서동석
민중불교동지모임 대표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운 이성계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정도전이 작성한 교서를 발표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 임금을 세운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을 길러 서로 살게 하고, 백성을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군도(君道)에는 득실이 있고 인심에는 복종과 배반함이 있으니 천명(天命)이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은 여기에 달려 있다. 이것은 변함없는 이치이다.'

조선 건국의 중심 세력들은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던 한양, 바로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정하기로 했다. 1394년 10월28일, 619년 전의 일이다. 북악을 주산으로 하고 그 아래 왕조의 정궁(正宮)을 건립하는 설계도 삼봉 정도전의 구상이다.

유교의 통치이념은 새로운 수도건설에도 반영되었다. 남쪽을 바라보는 정궁, 경복궁의 앞길에는 각종 관청(六曹)이 들어섰고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세웠다. 도성을 드나드는 각 대문 역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따랐다. 경복궁이라 지은 이도 삼봉이었다. '군자 만년 큰 복을 누리리라'는 바람을 담고 있었다. 맹자가 이르신 '어진 정치'의 중심에 경복궁을 지었지만, 글쎄 삼봉은 미처 그 뜻을 펴지 못한 채 피바람에 희생된다.

경복궁은 이성계가 들어가 산 지 채 3년도 못 가서 그의 아들들 간에 벌어지는 '골육상쟁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공간이 된다. 이른바, '왕자의 난'이 그것이다. 삼봉도 그때 참살 당했다.

경복궁의 피비린내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 단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왕이 된 수양대군은 자신을 반대하는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을 처단하고, 이어 이들과 관련되었거나 관련자로 의심받은 자 등 800여 명을 죽였다.

피로 얼룩진 조선의 정궁은 조선 건국 518년만에 일본 식민통치의 중앙관청인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는 참상도 맞았다. 한국 역사의 500년의 질곡이 고스란히 담긴 유서 깊은 곳이다.

정부가 이런 경복궁을 야간 개장했다. 연중 단 며칠만 허용되는 귀중한 행운을 잡기 위해 인파가 한번에 대거 몰리면서 초반 관람인원을 제한해야할 정도로 고궁 야간개장은 이제 서울 시민에게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이벤트로 자리잡았다.

이에 야간개장 기간을 연장하자는 여론도 높고 문화재청 역시 연장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복궁을 일시적이지만 밤에도 개방하여 많은 인파가 몰렸다.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진 고궁을 감상하려는 인파를 탓할 바 아니겠지만, 경복궁 마당에 어린 역사를 알면 그 마당에서 함부로 웃고 떠들지 못할 터이다. 게다가 자리를 깔고 음주를 즐긴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시민의식은 자취를 감췄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 주변에는 각종 군것질 거리에서 술까지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관람객들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음식을 조리하는데 액화석유가스(LPG)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시 문화재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일회용 그릇이나 쓰레기들이 문화재 주변을 더럽히고 있다.

화엄경에 이르길,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슬기로운 사람이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가 배우면 윤회를 이룬다.

이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적게 배운 탓이니, 모름지기 많은 배워 싫증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고궁의 밤풍경에 빠져 그곳에 서린 선얼들을 잊지 않으려면 많이 배우는데 싫증 내지 말아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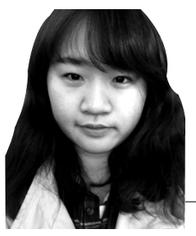
정부와 관계 당국 역시도 경복궁의 야간개장 연장을 고심하기 앞서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들의 안전대책을 먼저 고심해야할 부분이다.

발언대

'미국의 참여 불교' 강의를 듣고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불교계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GEP) 과정을 개설했다. 프로젝트 참가자 30여 명은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불교문화와 세계 이슈에 대한 강연을 듣게된다. 5월 25일 첫날에는 박포리 부교수(美 아리조나 주립대)가 '미국의 참여불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머리로 아는 불교 지양…직접 수행할 것"



서혜인
24 · 성신여대 국문과

무교였던 나는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작품에 나오는 사찰에 대한 표현과 불교적인 내용이 담긴 시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던 중 혜민 스님 트위터에서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GEP) 홍보를 보고, 2011년 5월 GEP 2기 과정에 참여했다.

GEP 2기 과정을 수료한 나는 2013년 1월에 인도 바이샬리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곳에서 통역 및 자원봉사를 했다.

이때 많은 비구니 스님과 세계 각국의 스님을 만나면서 더욱 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이번에 열린 GEP프로젝트에 또 참가하게 됐다.

서양에서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예전까지는 몰랐었으나, 박포리 교수가 서양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재밌게 설명해줬다. 동양인으로서 서양에서 불교를 외래문물로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배우게 되니 신기했고, 우리나라 불교와 비교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수행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서양에서는 재가불교가 성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서양인들이 명상과 수행을 시작으로 불교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 나도 불교를 머리로 알기보다 직접 수행을 해봐야겠다 생각했다. 이밖에 대만의 한 비구니 스님이 창설한 단체인 자제공덕회가 세계 속 대만불교, 대만인들의 파워를 상징하는 단체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불교와 영어공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흥미진진한 주제들을 배우게 돼서 기대가 된다.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님의 '글로벌 이슈와 불교(전쟁과 평화)', 김애주 교수(동국대 영문과)의 '서구 속의 불교와 한국불교의 리더십(서구의 불교 전파에 대한 고찰과 한국불교 젊은이를 위한 전략)'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세계 불교 흐름 배우는 좋은 기회"



종민 스님
26 · 동국대 불교학과

2011년 9월에 출가한 나는 영108회 원이었던 시절,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GEP)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GEP과정이 영어로 진행돼 영어를 할 수 있는 나로서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기에 호기심을 갖게 돼 과정을 등록했다.

5월 25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는 박포리 부교수(미국 아리조나 주립대)가 '미국의 참여불교'를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는 미국불교의 중요한 전개과정과 현재 미국불교의 특징과 수행, 생생한 미국 불교이야기가 주 내용이었다.

수업을 통해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의 불교 흐름의 일면을 배울 수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출가해 한국불교가 전부인줄 알았지만, 박포리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불교는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등 불교의 추세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정보 습득차원에서도 좋은 강연이었지만 나중에 더 성장해서 한국 불교계 내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불교를 이끌어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현재 한국불교는 승가위주의 불교다. 조심스레 추측하건데 미래에는 재가자가 주축이 돼 불교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유는 승단위주의 불교계라 하면, 스님들이 이 불교계를 하나하나 다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소린데 실질적으로 승단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강의를 통해 요즘의 불자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 강력한 흐름 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미래비전과 한국불교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 유익했다.

社說

불교 근대 문헌 영역사업 환영

근대는 현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한국불교 역시 근대는 현재의 정체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 시기에 대한 조명과 연구는 미흡하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월 28일 공포된 규정에 따르면 영역 편찬위는 총무원장 직속 기관으로 교육원이 업무을 담당하며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 문헌의 영역과 번역 대상 문헌 조사, 번역 출판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도 함께 참여해 전문적인 번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이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다.

근대 불교문헌 영역 대상은 효봉 만암 경허 만해 스님 등의 법어집과 저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6월 초 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6월 안에 영역화 편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사실 서구인들이 달라이 라마, 틱낫한 스님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수행법이 철저히 영역화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가 일본, 티베트의 불교보다 알려지지 못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실제 지난해 영역돼 전 세계 대학도서관과 공공기관에 배포된 한국불교의 '전통사상총서'는 미국 유명 불교전문지가 선정한 '올해의 불교 도서'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제대로 된 번역 서적이 있다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영역화 사업 역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학자들의 한국불교 기초 연구 자료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불교 해외 교육 불사 선봉장 된다

네팔, 아프리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한국불교계의 교육기관 건립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과 빵 등 구호물품을 직접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 국가의 동량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 우리 불교계가 인식을 함께 하는 것 같다.

이중 최근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를 건립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척박한 불모지인 아프리카 대륙에는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기본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교육시설은 꿈도 못꾼다. 그래서 이들이 공부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학교 건립이 절실하다.

특히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현실에서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동행이 건립하는 '탄자니아 농업학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수하는 새마을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동행은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한 민간단체사업발굴 지원에 선정돼 아프리카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4월 30일 케냐서 올마피테트 만해 초등학교를 기공했으며, 108순례기도회 회주 선묵혜자 스님도 네팔에 학교를 건립해 현지 국민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고기를 직접 잡아다 주는 것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 한국불교계의 활발한 해외 교육 불사 프로젝트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영통사
● 창건주 : 무 심 (김영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592-16호 2층

위 사찰과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불태삼 미륵암
● 법 명 : 금 강 (백순례)
● 주 소 : 서울 은평구 응암2동 397-19번지 2층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귀중

탈 종 공 고

● 직 위 : 이사 · 종회의원
● 사찰명 : 성불암
● 법 명 : 청 호 (김영호)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55-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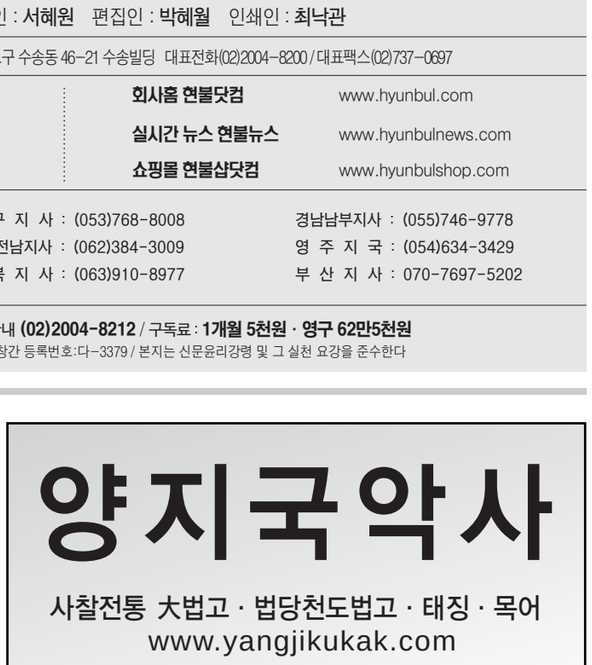
위 사찰과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사)대한불교 통합 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삶은 마음이 만드는 것으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을 만든다. - 법구경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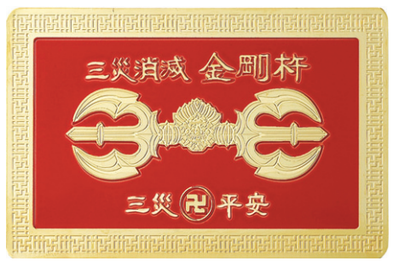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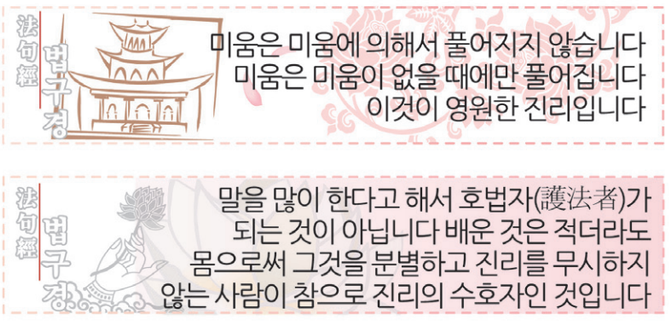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